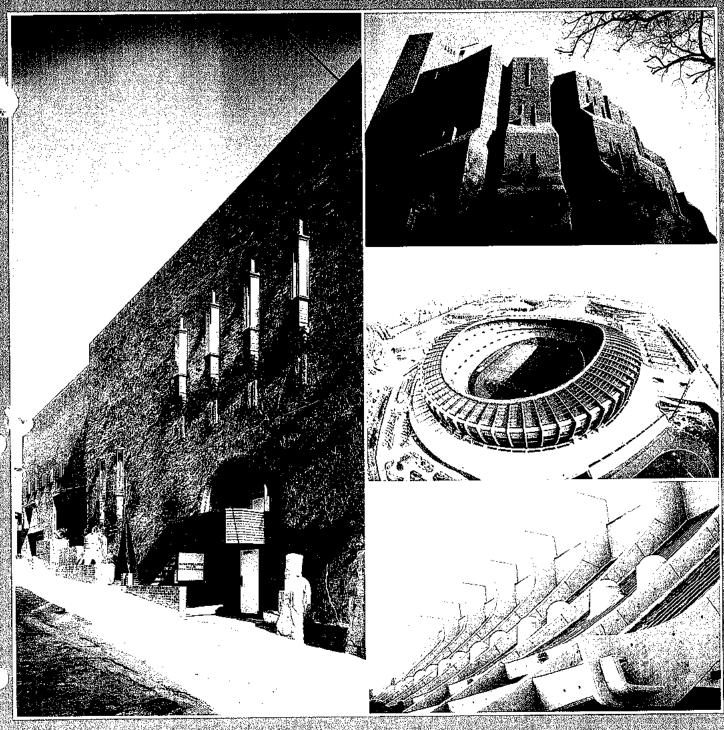


大原建築台區會區。 DULY 1986 NO 208

间间域重要中,每行日之。[698] 7 。 7 F (2015) 12 (31) 第 2 常範面物 (4) 級 (8) 可以對便香味(1





대청마루에 앉은

여인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시번호	통권 제208 호			
구입년월일	1986. 1.15.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Poem

A Woman Sitting On The Main Floored Room by Hwang, Ghum Chan



황금찬 한국문**형이사** · 한국시인**형**심시위원장

종로나 을지로에서 신뜻한 한산모시 씨늘한 물빛 차마 못풀리고 은은한 몸매에 꽃잎처럼 피어난 치마 저고리

한낮에도 별이 쏟아지는 진두라 강기에서 나비처럼 날고 있는 여인을 본다.

가이금 열 두줄에 진주빛 고운 손길 시락이는 적삼 고름 서늘한 바람이라.

대청마루 한 기운데 화문석 깔아놓고 내 이 옥지환의 노래를 가아금에 실으리 사랑이여 북을 치소셔,

모시나 저 안동포로 단장한 여인이 바로 한국의 여인일세

부연이 제비 날개처럼 휘고 항아의 옥루처럼 대청마루가 있는 집이 바로 한국의 집일세.

여인을 찾아 을지로나 종로로 간다. 집을 찾아 나는 오늘도. 마을로 간다.



표지설명 : 고 김수군작 공간시앙 경통교회 울립픽경기장 부여학육관 : 시진 : 정정몽

발 행 인 오 등 석 면 집 출판시업부

평찬위원회

위원자 한 차 원 부위원장 검 및 위 원 강 월 구 위 원 서 천 식 위 원 김 기 왕 위 원 윤 석 우 위 원 여 홍 구 전문위원 안 상 수 (디자인) 전문위원 안 참 의 (사 신)

발 한=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 - 55. 우편법호 135 전 화:사용(02) 표:581+57:11

전 화: 사용(02) 교 581~57년(대) 5712, 5713, 5714

등록반송 제 의 - 1251 등록일자 [1967년 3 월23일 U.D. C.869/72(054~2) 0612(519) 인 대 제 개문경판자 인 대 인 (전유규

避等品

차 례

1986년 7월호(통권208호)

	회원작품(상업시설 특집)
6	삼익쇼핑센터 정원영
8	유니버스백화점~~~~~~ 윤홍갑
10	영등포 신세계백화점김창수 · 박 승
12	그랜드 백화점
14	크리스탈 백화점 석덕재
16	
18	스거구(오시기)
10	수정궁(음식점)이강식
	이달의 시
3	대청마루에 앉은 여인······ 황금찬
•	10 11 1 WE 12
	논단
21	연합회제도에 대한 소고 유경철
	추모욕집 · 고 김수근 선생
22	김수근선생의 인생과 예술 강병국
28	김수근선생의 작품세계 조구현
30	삶이 빛나는 한 때 김석철
	M7H7
32	연구보고
-	장애자올림픽 서울대회와 시설계획 방향 박용한
38	건축과 조경② 오상평
44	✔ 조명기구와 조명방식김정태
50	생활오수정화 ······ 김종흡
58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참관기김지덕
68	일본(株)大林組기술연구소의 에너지절약 기법 대춘섭
	어즈어 / 중속 중\
56	언중인(書中書) 지수, 서성 - 기가이 이어
70	점수, 석차 — 좌절의 원인 정희경
	여행기
62	북경기행(N) 최장규
	- 1 0 · 1 0 (E1)
	일하며 생각하며
72	소묘 김인철
- 4	자료
74	아시아건축사회의 안내 송기덕
	회원광장
76	민주주의와 자율
, 0	FILES (15
78	혐회소식
80	회원동정
81	신입회원
82	자료
V 2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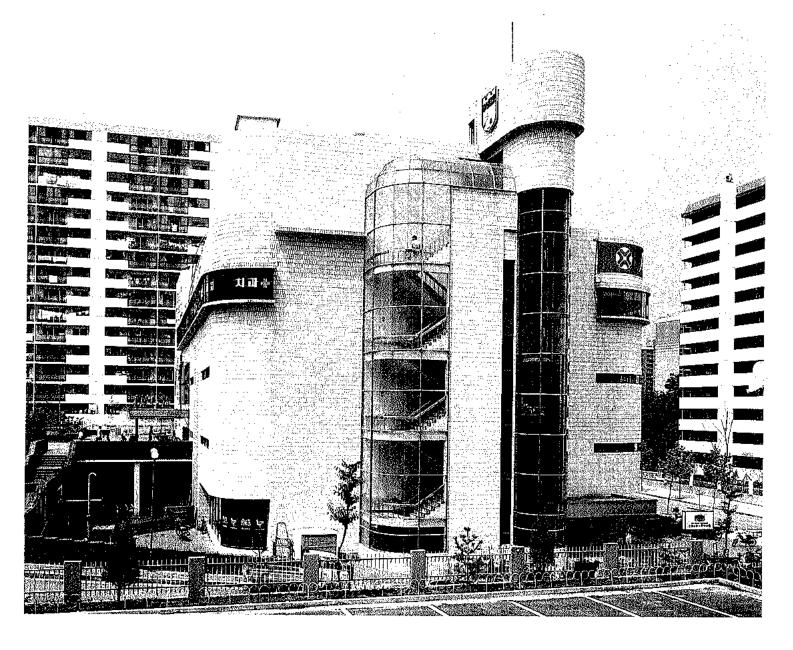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July 1986 Vol 208

1	Samik Shoping Center Jeong, Won Young	6
	Universe Department Store Young Kab	8
	Universe Department Store Name (No. 1000, Floring Name 1000, Floring N	10
	Shinsegae Department Store (Yongdungpo) Kim, Chang Soo & Park, Seung	12
•	Grand Department Store Youn, Tae Woong & Song, Kyo Sub	
	Cristal Department Store Suk, Duk Jae	14
	Bon Department Store(Anyang) Teak	16
	Soo Jeong Koong(Restaurant) Lee, Kang Sik	18
	POEM	2
	A Woman Sitting on the Main Floored RoomWhang, Ghum Chan	3
	PLATFORM	21
	Opinion on the Architect Union System ······· Yoo, Kyung Chul	21
	MEMORY OF THE MAN OF BLESSED	22
	Cherishing the Memory of Deceased Mr. Kim, Swoo Geun	22
	Gang, Byung Gook, Cho, Goo Hyun, Kim, Suk Chul	
	REPORT	2.7
	Direction of the Facilities Plan for the '88 PARALYMPICS	34
	Architecture and Landscape Oh, Sang Pyung	58
	tuminging and Lighting System	44
	Purification of Living Sewage	50
戏	The 1986 National Convention of AIA Kim, Chi Tok	58
	Energy Conservation Techiniques of OTR Center in Japan Tae, Choon Seub	68
	WORDS OF WORDS	
	Things to Discourage Students Chung, Hee Kyung	56
	TRAVELS	62
	Trip to Beijing	62
	WORKING THINKING	72
	Rough Drawing Kim, In Chul	14
	MATERIALS	
	Guide to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Song, Kee Duk	7 4
	MEMBER'S PLAZA	76
	Democracy and Self-regulation Song, Yi Ho	
	Kira News	77
	Movements of the Member	0U
	Newly Adimitted Member	δI
	Materials	82

Publisher: Oh Woong Suk Pal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r Chaig Wo Yes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Chul Kos Member: Rang Crut Koo
Sait Churt Sik
[Kim Ki Woosg
Yun Sak Woo
Yul: Hong Koo
Consultant: Aha Sing Scot(Lyout)
Lim Jonig bu(Photograph) Editorial Office Kora Inscripte of Registered Architects 18(13-35) Scotlordong, Kangaan-gu, Scoul Korea Scoul, 541-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Kr [25] Registered Date: Mard 1967 U. D. C.: 69/72(0842): 0612(519) Print: Kwangmon Printing Co Printer: Jeon Yon Kyo



삼익쇼핑센터

Samik Shopping Center

정원영

Designed by Chung, Won Young

대지위치 / 서울 · 강동구 명일동 대지면적 / 3,500 ㎡ 건축면적 / 1,644.9 ㎡ 연 면 적 / 8,709.3 ㎡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규 모/지하1층, 지상4층 외부마감 / 백색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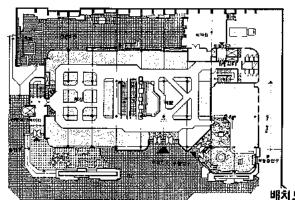
정원영 / 정원영건축사사무소 / 서울 · 강남구 신사동 617 - 3 / 542 - 8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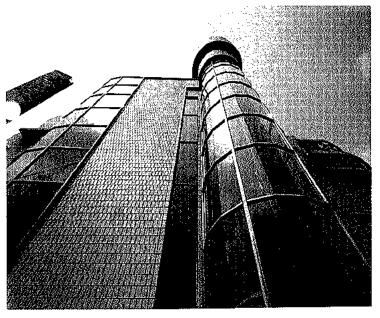
설계소묘

강동지구의 대단위 주거단지 내에 위치한 쇼핑센터로서 86, 88 올림픽에 대비한 뉴타운 건설과 함께 지구 편의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충족시키기 의해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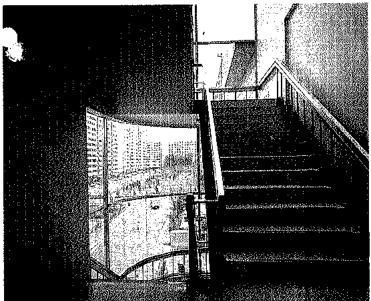
유통시설로서의 주 용도 및 기능의 이미저를 지구 중심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친근감 유도, 중량감과 휴머니티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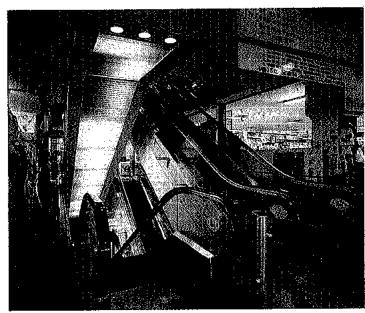
목적한 이미지의 건축적 표현을 위해 전면도로에의 정면성을 강조하고, 대지 전후면 단지 레벨차를 이용한 2개층 동시 진입유도와 곡면을 이용한 위화감 해소, 선근가든의 설치 등은 유통센타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인간적인 공간의 연출로서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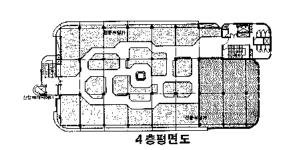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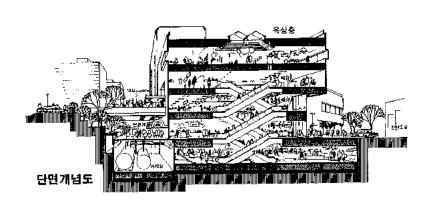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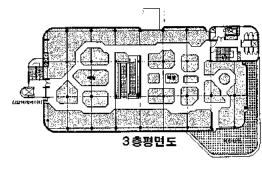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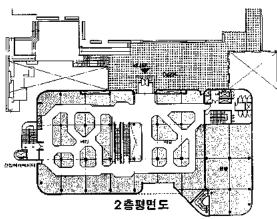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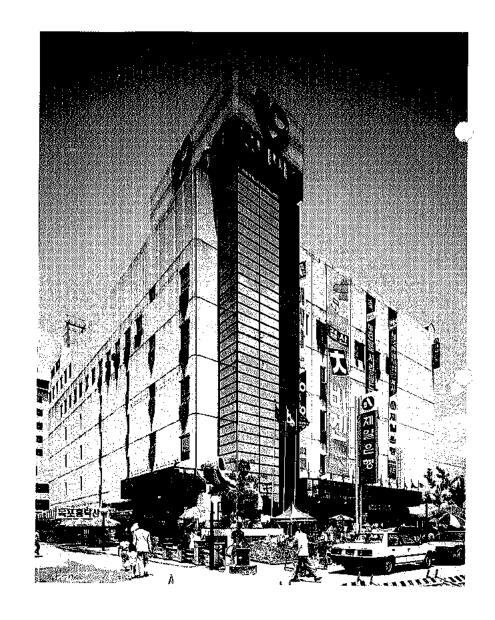
U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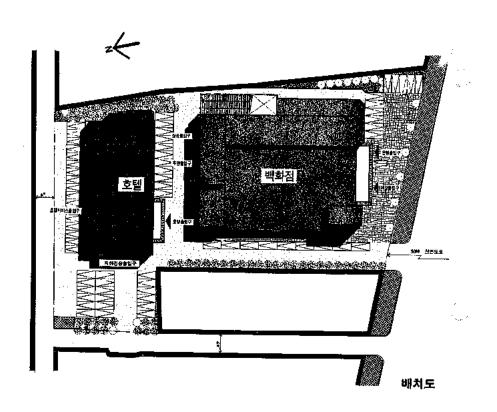
Universe Department Store

윤홍갑

Designed by Yoon, Hong K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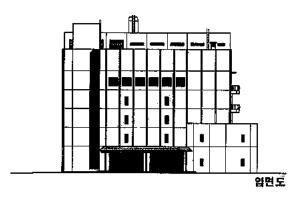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 · 강동구 성내동 대지면적 / 6,869 m² 건축면적 / 2,168.7 m² 연 면 적 / 16,304 m² 충 수/지하2, 지상6,옥탈 1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35.8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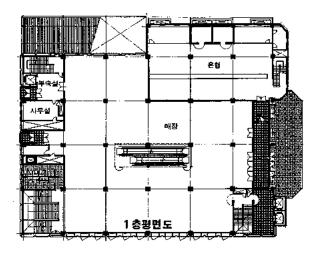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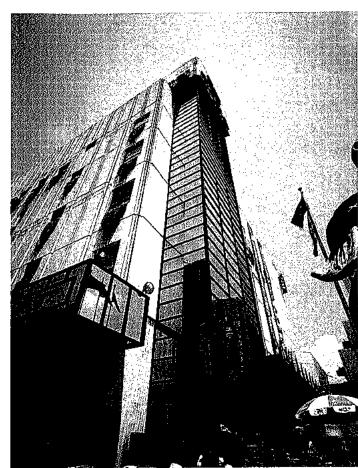


용흥감 / (주) 구조시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 · 종로구 견지동30 / 734 – 7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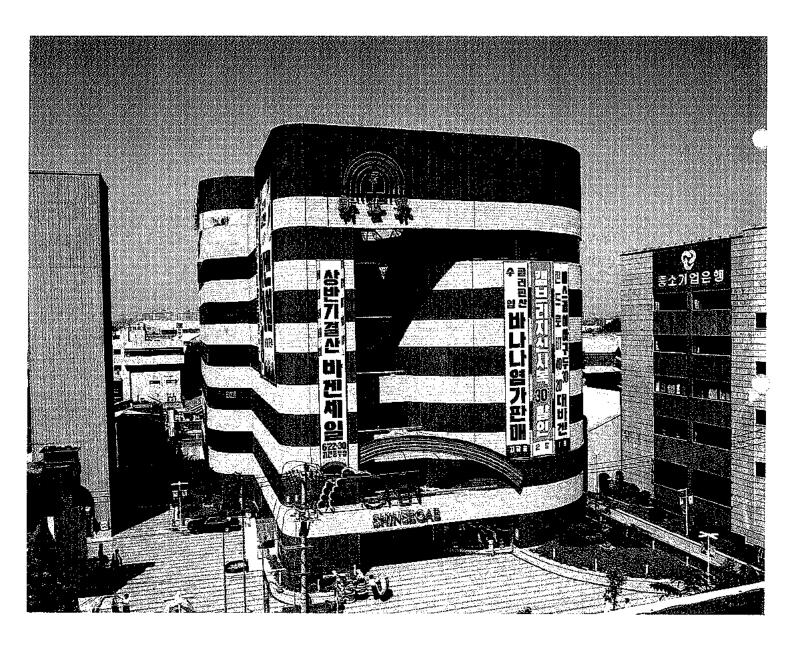








건축사 8607 9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Shin Se Gae Department Store (Yongdungpo)

김창수·박 승

Designed by Kim, Chang Soo & Park, Seung

대지면적 /3,782.81m^{*}

건축면적 / 1,604.23 m²

연면적/16,272.34㎡

규 모/지상7층, 지하3층

건 페 율 / 4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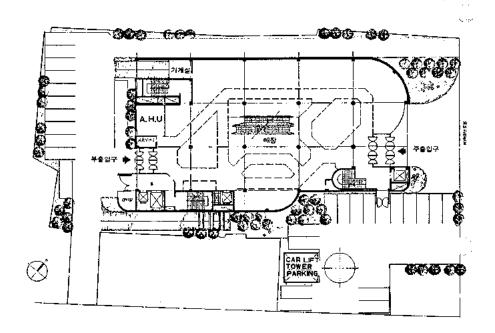
용 적 율/2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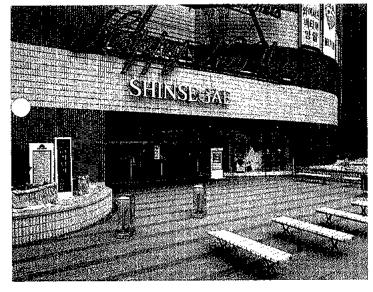
지역및지구 / 준공업지역, 노선상업지역, 1 종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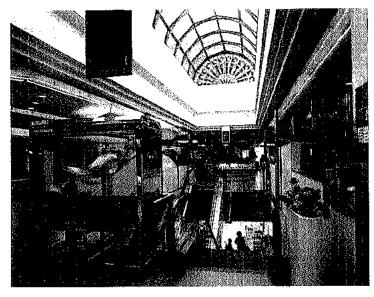
외부마감/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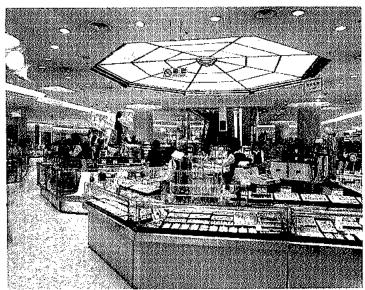
구 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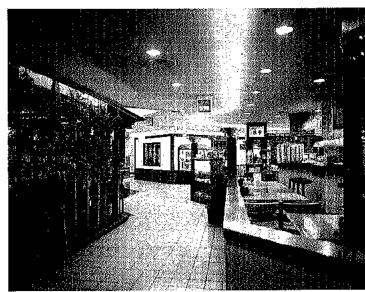
김청수·박 승/(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영등포 구 여의도동45-1/788-5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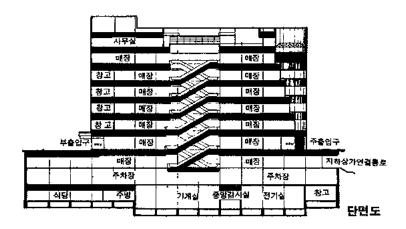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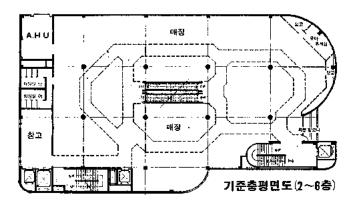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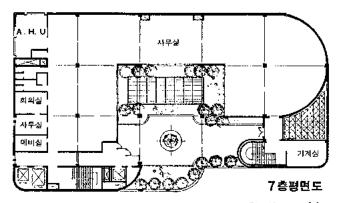














그랜드 백화점

Grand Department Store

윤태웅 · 송교섭

Designed by Yoon, Tae Woong & Song, Kyo Sup

대지위치 /서울·강남구 대치동 937 대지면적 /5,956.9 m² 건축면적 /2,900.82 m² 연 면 적 /26,270.76 m²

규 모/지하2층, 지상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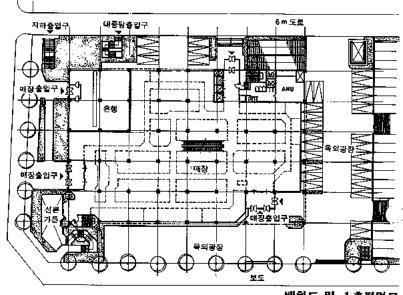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판매시설, 운동시설

외부마감/외장타일

설계소묘

주거환경에 요구되는 종합상업시설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공익성 있는 상업적 편의시설이라는 측면과 주거기능의 핵으로써의 역할 및 지역시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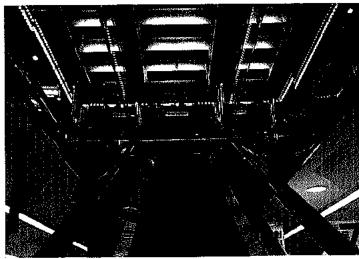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된 강남일대에 쇼핑을 위한 매장과 레저 스포츠를 겸한 종합 스포츠 시설로 구성되어 다목적 복합기능으로 구성되었고, 시만을 위한 문화시설로써 전시홀을 마련하여 코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금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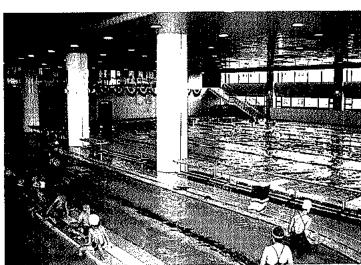
배치도 및 1충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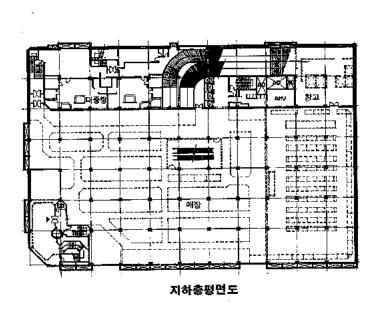
윤태웅 · 송교섭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 동인 / 서울 · 강남구역삼동 697 – 45 / 555 – 2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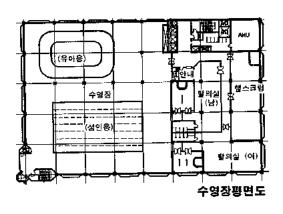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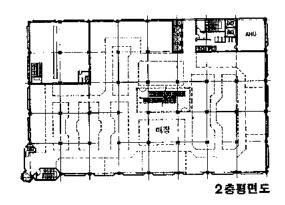












크리스탈 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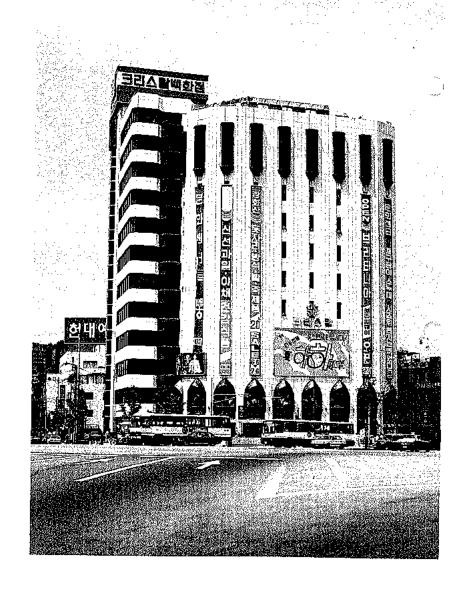
Cristal Department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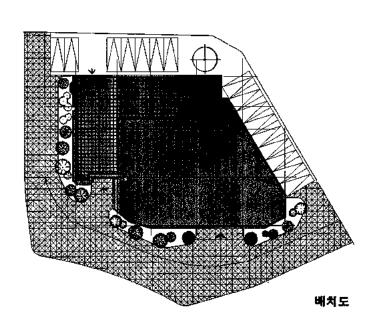
석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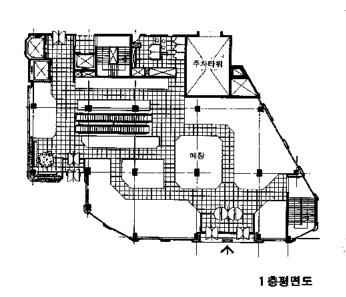
Designed by Suk, Deok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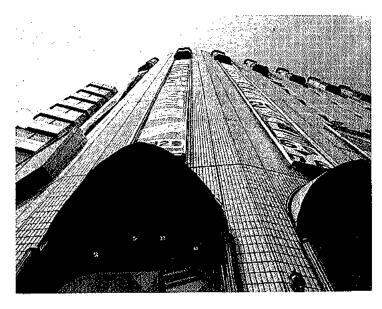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ㆍ미포구 노고산동 대지면적 / 1,607.76 m² 건축면적 / 803.324 m² 연 면 적 / 11,931.04 m² 건 돼 울 / 49.96% 용 적 율 / 475.85%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46.4 m² 충 수 / 지하4층,지상10층,옥탑 2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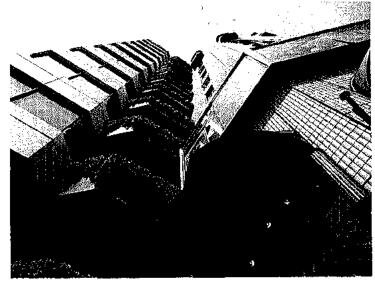
석덕재 / 건축사사무소 덕연 / 서울 · 중구 태평로 2가 305 / 753 – 7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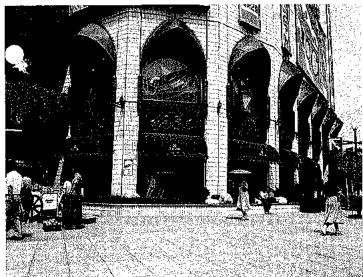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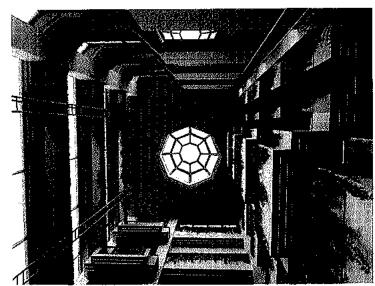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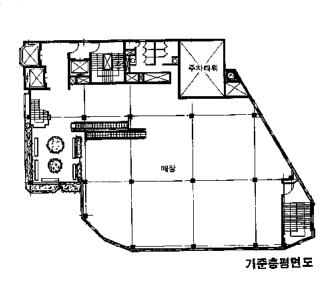
















안양 본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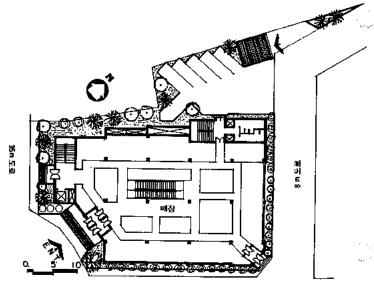
Bon Department Store(Anyang)

임용택

Designed by Lim, Yong Taek

대지위치 / 인양시 인양동 대지면적 / 1,772 m² 건축면적 / 1,060 m² 연 면 적 / 8,384 m² 충 수/지하 2층, 지상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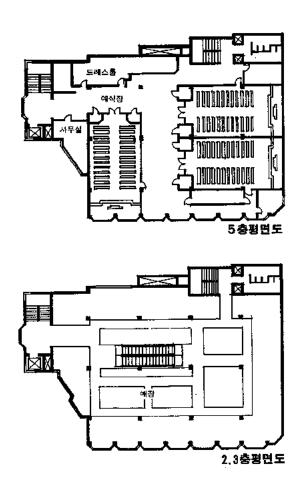
외 장/백색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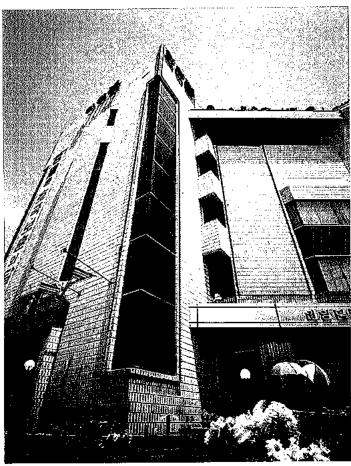


20m 도로

배치도 및 1 총평면도







건축사 8607 17



수정궁(음식점)

Restraunt Soo Jeong K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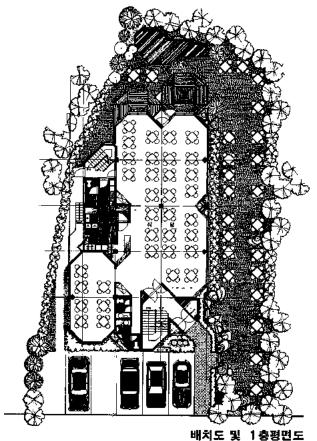
이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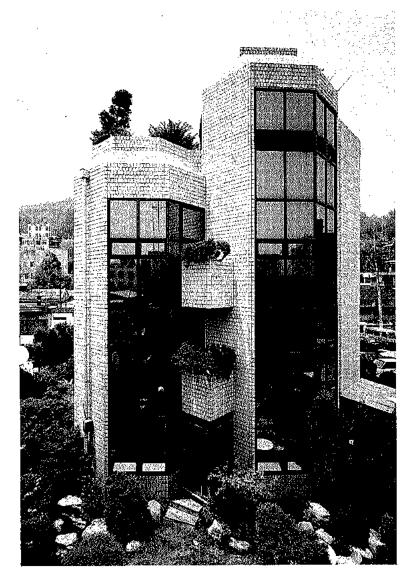
Designed by Lee, Kang Sik

대지위치 /수원시 팔달동 3 기/79 대지면적 / 784 ㎡ 건축면적 / 243 . 13㎡ 연 면 적 / 998 . 15㎡ 지역자구 / 상업지역, 방화주차정정비, 2 종미관 구 조/철근콘크리트

의 장/자기질타일 지하층 / 다방, 1,2,3층 / 대중음식점 옥탑 / 옥상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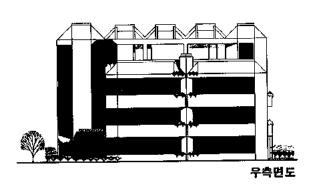
이강식/이도무 · 왼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 · 강남구 서초동 767 – 3 /583 – 4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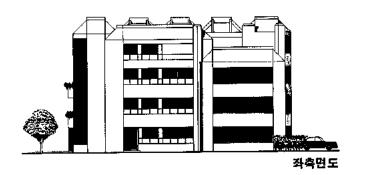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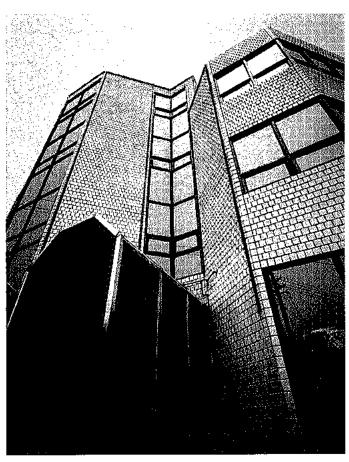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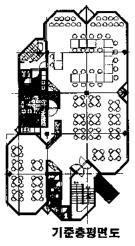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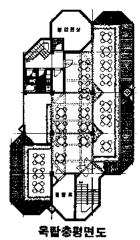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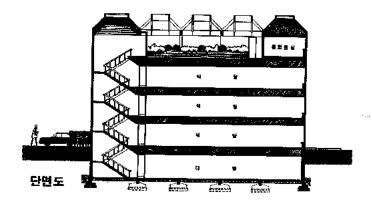












연합회 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PLATFORM

Opinion on the Architect Union System

by Yoo, Kyung Chul

유경철/ 본협 연합회연구위원회 위원장 다수회원이 연합회제도를 갈망해 온 것은 수년에 걸친 일이다. 각기 회원은 소속한 지부활동의 활성화 화구와 비례하여 연합회제도 실시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여ㆍ이를 위요한 정계에서의 지방자치제실시에 대한 거론이 이러한 내적 분위기성숙에 한 몫 더 거들었다고 볼 수 있다. 84년 봄, 김지태 전회장과 오용석 현회장 및 필지를 비롯한 시무처장 등 일행이 장래의 연합회제도 실사에 대비, 사전 조사준비차 일본을 다녀왔고 또한 계속하여 회장단과 국제 및 제도위원장 등이 미국과 동남아 제국의 건축사협회제도를 시찰하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1984년 제19차 정기총회에서 현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협회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협회의 기구조직의 확대개편 작업으로 85년초 연합회연구위원화를 제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일련의 이외 같은 움직임의 산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협회 제도는 정부 체제의 흐름과 필연적으로 궤(軌)를 같이하는 특별법인체로 한계지워져 있다고 여긴다.

86년에는 임시 대의원총회사 결의에 의하여 연합회제도 실시를 전제로 한 독립예산 제도의 실시방인을 연구 보고하도록 위임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모양을 짠 다음에 예산제도를 마추는 것이 선후의 합리를 갖추는 일이겠으나 연합회제도 실시와 불가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시기나 실시지역이 잠정적으로나마도 정해지지 아니한 것이 연구의 순서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변수 가운데에는 지부활동 활성화에 대한 회원들의 요망에 조기 부용 하려는, 회원을 위한 협회의 충정이 담겨있다는 사실에도 이울러 이해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

독립예산제도가 우리에게 전혀 생경한 것은 아니다. 이미 65년부터 75년까지 10여년의 충분한 경험을 거친 바 있다. 따라서 독립 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잇점· 불리점 등 제문제를 경험에 의거, 상정 (想定)할 수 있다.

우선 추정할 수 있는 유익점으로는

- ●시도지부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실시가 가능하여 지부활성을 촉진한다.
- 지부를 소속회원이 손수 조성한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예산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회원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회원 복지가 증진되며 더불어 비리 추방이라는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회원의 현저한 권익신장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동시에 숙고 되어야 할 사항이다.

- ●각 지부별로 엄청난 예산표출이 예견된다. ●지역별 경쟁이 비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 유발될 염려가 과거에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시도지부 회원의 실적회비 징수율 조정, 본부 예산을 조성할 재원
- 으로서의 정화원 회비의 적정선 책정, ● 취약지부에 대한 자립책 강구, 서도 지부에 분산되어 있는 협회재산의 분할관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100% 좋다. 또는 이주 나쁘다고 단정자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일진대 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을 수반 하게 되리라 믿어지며 다만 이를 어떻게 보완 하느니가 문제일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제하여 독립예산제만이라도 87년도 실시를 목표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회원의 의견을 더욱 폭 넓고 심도깊게 수렴하여 연구에 성의를 다하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제 변화에 대한 청사진은 예측하기 어려움을 상기할 때 이를 여하히 극복하고 무리없이 조화시켜 연합회제도라는 대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끌어낼지 미지수이다. 다만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증진 한다는 연구의 원칙에 전념하고 이를 끊임없이 보완 수정하여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어내야 한다는 소명감과 의욕을 높일 따름이다.



김수근선생의 인생과

예술

강병국 / 경향사문・생활문화부 차장

Memory of the Man of Blessed Cherishing the Memory of Deceased Mr. Kim, Swoo Geun by Gang, Byung Gook

네가티비즘의 동반

우리시대의 대표적 건축가 김수근 선생은 이제 유명을 달리 했다. 1986년 6월14일 새벽, 1년여에 걸친 투병을 마감하고 영면의 길로 떠났다.

시홀 뒤 선생의 장례행렬 위엔 슬픔인지 인타가움인지 모를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 장대비를 멀리하며 선생은 경기도 피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공룡(恭陵)의 신사옥부지 알으막한 언덕에 고된 생을 뉘였다.

장지(葬地)를 둘러싼 수백의 조화(吊花)가 대변해 주듯 선생은 비단 건축가로서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으로서 우리 곁에 많은 유산을 뿌려놓고 갔다. 장대비와 도열한 조화가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은 선생이 살았더라면 우리에게 줄 수 있었을 더 많은 메시지의 상실을 인타까워해서인 것이 틀림없을 것같다.

25년에 걸친 건축활동을 통해 선생은 20년을 「나의 것」을 찾는데 진력했고 나머지 5년은 「나의 것」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현대건축의 정립을 알린 선생이 세계 속에 한국건축의 독자성을 구축하려 했던 그 서두에서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이쉽다. 선생은 지난 80년 UIA제 4지역회의 기조논문을 통해 건축에 있어서의 네가티비즘을 발표하였다. 70년대까지 한국건축의 자이발견에 몰두했던 선생이 한국적 공간개념을 세계건축에 알리고자 했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 네가티비즘이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어떤 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고쳐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계속 더 적극적인 건축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시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팽창위주의 건축 행위가 무제한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인간의 요구조건만이 아나라 자연의 필요조건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네가티비즘은 결코 건축행위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되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를 일방적으로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과 밝은 면, 또는 인간 중심적인 면이나 건축주의 요청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축설계에서 제외되기 쉬운 중요한 축면들을 신중하게 고려 하자는 것이 네가티비즘의 뜻이다.」 이같은 사상의 근거를 선생은 우리의 전통사상에서 이끌어내고 있다. 선생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가(儒家)와 불가(佛家), 도가(道家) 사상에서 네가티비즘적 요소들을 규명해 냈다.

먼저 유가(儒家)는 「남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행위가 남에게 어떤 악(題)을 끼치게 될 지 생각하라고 일러 주고 있다.

이는 기독교에서 「남이 네게 해주기 원하는 일은 먼저 네가 남에게 하라」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선행(善行)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유가(儒家)는 분명 네가타비즘적 시고방식을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가(佛家)는 남에게 행복이나 쾌락을 다해주는 적극적 행동보다는 남에게 고통이나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소극적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서양의 공리주의(功利主義)와 달리 최소의 사람에게 최소한의 불행이나 고통을 주기 위해 노력하라는 부정적 공리주의의 윤리관이다.

한편 도가(道家)는 인간행동의 역기능적 축면을 강조하여 가능한 인간의 의식적 노력을 배제하는 「무위(無爲)의 사상을 중시하고 있다.

선생은 80년대들어 이같은 네가티비즘의 시고방식에 심취했다. 공간설계에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용할 것인기를 생각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이가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해(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선생은 여기서 구획되는 공간에 윤리성을 부여했고 「좋은 담장은 좋은 아웃을 만든다」는 속담을 기준으로 공간의 크기를 결정코자 했다.

사유공간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대신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사유공간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최대화가 그의 네가타비즘적 사고의 결론이었다.

우리가 그의 타계를 이쉬워하는 것은 비로 이같은 생각의 뿌리가 앞으로 뻗어 나갈 방향을 상실한테 있다. 만약 그가 실어 있었다면 한국건축의 사상적 기반은 좀더 빨리 세계 속에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집작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도 혹자는 「끝낼때를 스스로 인식하는 대가의 의지적 결단」으로 풀이하고 있다. 1년여에 걸친 병상생활을 통해 선생은 수없이 죽음을 떠올렸을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이미손을 뗄 수 밖에 없었던 병세를 보이면서도 그는 끈질긴 생의 의지를 나타냈고 주변시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대가(大家)는 삶의 방식이 그러했듯이 죽음의 방식도 스스로 터득하는 법이다.

선생은 때가 왔음을 감지했다. 더 이상 해서는 안되는 일, 곧 네가티비즘의 사고를 통해 선생은 생애를 마감코자 했던 것같다.

네가티비즘 과 공간

고 김수근 선생의 건축철학은 이 네가티비즘적 사고에서 절정에 이르지만 그 싹은 70년대초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71년 범태평양건축상을 받은 뒤 선생이 어느 신문과의 대담에서 털어놓은 생각은 바로 네가티바즘의 출현을 배태하고 있었다.

판자집은 추할는지는 물라도 악(惡)하지는 않지만 콘크리트로 잘못 지어진 반영구적인 구조물은 악을 겸한다. 」

여기서 선생은 건축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극명하게 밝혀 놓고 있다.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관은 한국적 공간개념의 특장을 찾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공간개념은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각 문화권마다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고는 전통 한옥의 문방(文房)에서 한국의 공간개념을 포착해냈고 이를 궁극공간이라 명명한 뒤 자신의 건축언어로 삼았다. 그는 궁극공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들처럼 단순한 생존을 위한 생산활동, 경제활동에 필요한 공간 뿐만 아니라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조용히 명성하는 공간,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여유외 공간을 뜻한다.」

선생은 기능주의와 합리주의 건축이 제1의 공간과 제2의 공간을 만드는데 치중했다고 보고 제3의 공간을 찾아 범으로써 국제주의 건축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이 제3의 공간이 인간에게 시색과 창조를 유도, 인간성 회복의 최후 보루라는 뜻에서 궁극공간이라 이름 불였다.

70년대 이 궁극공간의 구현에 노력했던 선생은 80년대 들어 궁극공간의 이면에 숨어 있던 사상을 합축해 내는데 성공, 네가티비즘적 사고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적 공간개념에는 분명 여유공간을 추구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생각하지 않는 일관성이 흐르고 있다. 우리의 국토가 너무 좁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까?

이같은 물음이 선생에게 전통한옥의 공간에 깃든 새로운 공간개념을 추적하게 했다. 선생은 여기에서 지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이 전통한옥에 반영돼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궁극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자연편에 서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었다. 선생은 이를 네가티비즘적 시고방식이라 설명했고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의 건축가들이 명심해야 할 공간개념이라 주정했다.

건축가 김수근 선생은 이 네가티비즘이 우리의 현대건축에 개화(開花)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그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선생의 생애는 「건축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충분한 해답을 주었고 따라서 선생의 건축활동은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형세계

사실상 선생은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희미했고 건축가의 작능을 무시하기 까지 했던 이 땅에 건축과 건축가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60년대초 자유센터 등에서 선보인 선생의 강한 조형외지는 바로 이같은 노력의 소신이었다.

거대한 구조물의 생동감 넘치는 표현은 30대초의 젊은 김수근이 건축가의 직능을 부각시키는데 적합한 건축언어였던 셈이다. 그러나 지유센터에 나타난 이같은 표현언어는 지난 67년 부여박물관 논쟁을 계기로 일대 수정을 겪게 된다. 부여박물관의 전체 모습이 일본 신사(神社) 의 지붕을 연상케한다는 데서 논쟁의 불씨는 튀었다. 이 문제는 한 일회담 뒤였던 당시의 국내분위기와 뒤얽혀 시회문제로까지 비회됐다. 선생은 이때 자신이 즐겨 사용해 온 노출콘크리트 수법으로 경사기등을 처리 강한 생동감을 표현하려 했으나 이것이 신사(神社)의 인상을 준다는 반발을 샀던 것이다.

약 한달동안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 시건은 선생이 논쟁의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함으로써 일단락된다. 이 시건을 계기로 선생은 자유센터 등에 나타난 생경한 언어를 버리고 소화된 자기의 언어를 찾는데 노력하게 된다. 그것은 「나의 것」을 찾는 자기성찰이었고 한국건축의 독자성을 재현하는 복원작업이었다.

지방을 여행하며 한옥과 초가를 살폈고 한국의 마음을 포착하기 위해 문화재에도 관심의 눈을 돌렸다.

이같은 탐색작업의 결과 선생은 애타게 추적하던 인간적 공간, 제3의 공간을 전통한옥의 문방(文房)에서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문방의 설계는 인간적 규모와 비례감을 유지하고 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도하고 있다.」 문방에 대한 선생의 설명은 휴먼 스케일의 발상지와 80년대 선생의 건축철학이 됐던 네가타비즘의 원류를 짐작케 한다. 우리는 이 문방의 공간개념, 즉 궁극 공간이 지난 71년 세워진 서울 원서동 공간사옥(空間社屋)에 구현돼 있음을 본다.

이후 선생은 이 한국적 공간의 연출가로 한국건축계에 우뚝 솟은 산맥을 일궈낸다.

시카고학파의 그림자

김수근 선생은 1931년 서울 가회동에서 태어났다. 부천은 법률가였다. 서울 북촌(北村)의 대표적인 가회동이 출생지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옥의 공간개념과 70년대초 전유물이 되다시피한 검은 전(博) 벽돌의 미학이 출생지와 뚜렷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을 일생의 엄으로 택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술회한 적이 있다.
「경기중학교 재학시절 영어회화를 배우느라 가정교사로 초병한 미군병사가 건축학도였다. (로버트)라는 그 미군병사에게 처음으로 아키텍트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 미군병사는 건축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다. 수백 수천년이 지나도록 지구상의 한 점을 지키고 있는 것은 건축물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선생은 서울대 공대 건축과로 진학했다. 건축과 2학년이었던 지난 51년 돌연 학교를 그만 둔 채 말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버지의 악어기죽 트렁크롤 판 25만원이 전재산이었다. 무엇이 밀항을 자극했는지 그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선생으로 하여금 한국현대건축계에 거장으로 자리잡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동경예술대 건축과에 들어간 김수근은 일본현대건축계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요시무라 준조(吉村順三)의 문하에서 건축하도의 꿈을 불태운다. 여기서 김수근이 요시무라 준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감수근 건축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느낌이 가미될 수 있음을 시시해 준다. 요시무라는 안토니오 레이몬드의 제지였고 레이몬드는 프랭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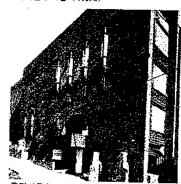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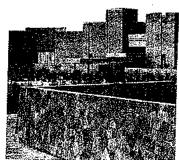
부여국립박물과(1967



비타주탟단지 (107s)



공간사육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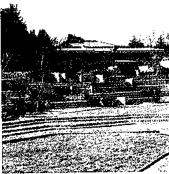
주인도 한국대사관(1977



오라파즈경기장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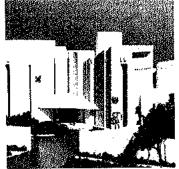
J 빅딮 (1978)



지주군린방몽관(1980)



경종교회(1980)



주카타르한국대사관 (1982)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김수근 자신도 「소위 시카고 학파인 설리반, 라이트, 레이몬드, 요시무라 등에게 유형 무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 동경예술대를 나온 뒤 동경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일본 체류기간중 동경예술대 3학년 때 만난 디자인 전공의 일본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다.

붉은 벽돌의 소재

김수근이 조국의 땅을 다시 밟은 것은 밀항 후 거의 10년이 지난 60년 초였다. 59년 남산국회의사당 설계현상에서 박춘명(朴春鳴), 강병기(康炳基) 등과 함께 1등 당선의 영예를 안고 화려하게 조국의 무대에 데뷔했던 것이다. 선생은 곧바로 「김수근건축연구소」를 개설했고「인간환경계획연구소」등을 거쳐「공간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직품활동에 나서게 된다. 선생의 작품(作風)은 건축재료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70년까지는 자유센터 등에서 보듯 노출콘크리트에 의한 거대한 구조물의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주조를 이루었다. 워커힐 힐탑바, 한국일보시옥. 과학기술원 본과 부여박물관 정동 문화방송사옥, 타워호텔 등이 이 계열의 작품으로 꼽힌다. 70년부터 검은 전벽돌의 건축에 심취했던 선생은 70년대 후반엔 전벽돌의 재료적 결함을 보완한 붉은 벽돌로 개성을 변모시켰다. 80년대 들어 잠실종합체육관 등 올림픽 시설물에 첨단 건축소재가 많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성 강한 건물에는 어김없이 이 붉은 벽돌이 사용된 점으로 미뤄 선생은 가장 완벽한 건축재료로 붉은 벽돌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선생의 붉은 벽돌건물은 모두가 완숙기에 접어든 장인(匠人)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 예술판. 샘터사옥, 해외개발공사, 문예진흥원, 마산 양덕(陽德)성당 등이 이 계열의

시공이 어려웠던 건축

작품이다.

한국건축설계에서 선생이 이룬 공적은 무엇보다 건축기의 지위향상으로 집약된다. 선생은 건축물에 관한 한 자신의 뜻을 급히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남에게 거만하게 느껴진 점도 있었고 권위주의적 이리는 비난도 받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생의 표현을 빌면 건축가는 의사이고 건축주는 환자라는 것이다.

선생은 의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만큼 책임도 철저히 수행했다. 제자들이 전하고 있듯 선생은 누구보다 철저한 설계과정을 밟았다. 대지의 환경과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뒤 건축철학을 불어 넣어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작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품기한을 넘기면 넘겼지 대충이라는 개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게 좌우명이었다.

설계과정이 철저했듯 그만큼 철저히 자신의 설계를 고집했다.

(마천루)라는 영화를 보면 건축가의

모럴이 잘 나타나 있지요. 한 건축가가 자기의 설계작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을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 선생은 그런 건축가가 되기를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서인지 선생의 특출난 개성이 반영된 건물은 시공이 어려웠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권교체로 남산국회의사당 건립안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첫작품이 된 워커힐 할탑HP만 봐도 그렇다. 기둥 4개가 45도 각도로 경사진 이 힐탑바는 공사장 인부들이 거푸집을 떼어내면서 붕괴를 우러하기에 족했다. 이때 선생은 자신이 힐탑바 속에 버티고 서서 인부들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거푸집을 떼어내게 했을 정도였다. 최근 만든 마산성당이나 경동교회 등도 시공상 난점이 많았음은 물론 완공후 하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선생의 작가적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공기술의 낙후성을 드러낸 것일뿐 절대공간을 창조해 내려 했던 선생의 투철한 장인정신을 오히려 돌보이게 한다.

선생은 건축가의 지위향상과 함께 한국건축계의 고질적 병폐로 손꼽히는 설계

덜핑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후학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건축은 작품이다. 결코 싸구러일 수는 없다. 이같은 생각이 70년대의 건축불경기 속에서도 선생이 덤핑만은 「죽어도 안한다」 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건축가의 지위가 변호사, 의사보다 못함을 들어 우리가 후진국임을 탓하기 전에 건축가 스스로가 주려 죽을지언정 절대 채미는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선생의 이같은 경영방식은 바로 필생의 과업으로 택한 「건축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적절한 해답을 던져주었고 그것은 일반의 건축가를 대하는 눈을 다르게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갈망했던 한편의 영화제작

건축계에 남긴 그의 또 하나 업적은 월간 「공간」지의 창간이다.

지난 66년 11월 첫선을 보인 이래 계속 적자를 감내하며 오늘에 이른 이 잡지는 한국건축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생은 지난84년 2월 「공간」지의 2백호 발간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미 있었던 전통적인 것이나 현재 있는 가치 있는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미래지향에의 기능성 등을 통해서 현대의 한국인이 지녀야 할 안목을 서로 길러 가지는 것이 잡지 「공간」이 되새겨온 지향점이었다. 멋도 모르고 용감하게 시작했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설을 몇번씩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고 … (중략) … 이제 2백호를 내면서 앞으로 다시 2백호를 더한 4백호가 나올 날이 언제인기를 살펴보니 2000년 가을이 된다. 2백호를 만드는 오늘이나 더욱 발행호수를 거듭할 내일의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공간」은 이제 범출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_ 선생이 이 글에서 사람은 바뀌어도 「공간」 은 더 오래 좋은 잡지로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같은 유지(遺志)에 따라 공간 그룹은 현재 인고 있는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간지의 간행을 다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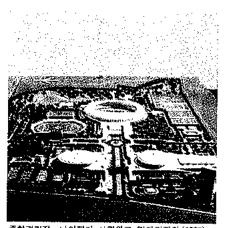
고 김수근 선생은 자신의 생사에 관계없어 「공간」지가 하나의 작은 전통으로 지속되기를 원했듯 자신의 설계시무소도 후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갈망했다. 지난 72년 당시 「김수근환경설계연구소」를 「공간설계연구소」로 개칭했다.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는 여러사람이 함께 그 설계기풍을 유지할 수 있는 공통의 그룹명칭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였다. 이로써 선생은 우리나라 건축계에 하나의 작단(作壇)을 일구는데 성공했다. 이른바 공간사단이라 불리는 일단의 건축가들은 약간씩 서로 다른 작품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간그룹의 기풍을 따르고 있는 느낌이다.

선생은 또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의 모든 분야를 통합, 종합예술운동을 펼치고자 했다. 처음 건축전문지로 출발했던 「공간」지가 종합예술지로 변문한 것을 비롯, 소극장 공간사랑과 공간미술관 등의 개판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홍에 관심을 기울였다.

선생은 언제나 후학들에게 좋은 건축을 하려면 음악, 미술 등은 물론 문학도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그는 건축 가로서 외길인생을 살다 갔지만 언제나 한편의 영화를 만들기를 소망했다. 그가 건축을 하면서 다른 예술분이를 수용하려 노력했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 영화의 종합예술성과 불기분의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건축가로서 그가 영화제작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건축물 자체에 영화의 감동을 부여하는 길 뿐이었다. 유달리 공간의 규모와 흐름을 중시한 것도 감동적 공간을 이뤄내기 위해서였다. 종합예술에 대한 그의 이같은 열망은 최근 구현된 경기도 공룡의 아트 아카테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일찍부터 종합예술센터의 설립을 구성해 왔던 그는 지난 75년의 이란의 주거단지설계로 목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바로 공룡에 1만8천평의 부지를 구입했다. 이곳에 건축을 비롯한 각종 예술연구소를 마런하고 전시관과 공연장 등을 설치한다는게 그의 기본계획이었다. 마스터플랜을 끝내고 하나 둘 건물이 들어서며 그의 필생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을 즈음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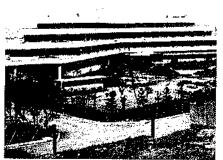
이웃 예술의 깊은 이해

고 김수근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업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생은 소극장 공간사랑의 개관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예술가들에게 공연장을 제공. 우리문화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종합경기장, 나이제리,사라와크 말레이지아(1985)





한국방송광고공사 훈련원(1983)

시물놀이의 탄생과 공옥진(孔玉振)의 병신춤을 빌굴해 낸 것도 선생의 공적이다.

선생은 또 이란의 액바탄주거단자를 비롯, 수단의 영빈관, 발레이지아 사라와크 종합경기장 등 한국건축의 해외진출에도 이바지했다.

건축활동뿐 아니라 지난 61년 홍익대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학계에 몸담아 오며 후학양성에도 함을 기울였다. 선생은 그렇게 살다 갔다. 지난해 6월 잉키유적을 돌아보고 온뒤 간임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웠던 선생은 끝내 많은 건축계인사들의 회구에도 불구하고 유명을 달라하고 만 것이다.

평소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던 건강체였던 선생에게 갑자기 병마가 달러든데 대해 사람들은 과로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란 원래 피어나는 삶의 절정을 엄습하는 범이다. 선생은 생전 「80년대 상황이 이 땅에 가장 좋은 건축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노임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건물을 짓기엔 여건이 좋지 못하고 후발공업국인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데다 노임도 적정선이어서 어느 나라 보다도 건축적 여건이 좋다는 설명이었다. 선생은 이처럼 건축의 사회성을 인정하고 가장 훌륭한 건축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왔건만 죽음으로 말미암이 걸작을

· 낳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선생은 언제나 자신의 대표작에 대해

(Next One)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일단 작품이 완성되면 나는 그 속에

완전히 만족할 만큼 내 생각이 펼쳐져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건축이란 건축가 한 사람의 재능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좋은 건축이 나오려면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못지 않게 그에 따르는 시공기술자의 능력도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主人)의 높은 안목과 요구조건 등이 삼위일체가 될 때 거든요.」 선생은 바로 이때가 오면 자신의 대표작을 생산해 낼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남기고 간 완전건축

그러나 이제 선생의 대표작은 건축사가(街)의 혜인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선생이 좋은 건축의 탄생조건으로 삼은 건축가, 시공자, 건축주의 삼위일체라는 관점에서 선생의 대표작을 선정해 보면 그것은 다름이닌 서울 원서동의 공간시옥으로 귀착된다. 공간사옥은 선생 자신이 건축가이자 건축주였고 시공까지 공간그룹의 손으로 이뤄진 유일한 건물이기 때문이다. 공간사옥은 또 선생의 자아발견이 도달한 궁극공간이 구현돼 있다는 건축사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 80년대 그가 주창하고 나선 네가티비즘의 사상도 바로 이 공간시옥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지난 71년 앞쪽 절반이 지어졌고 그뒤 77년에 중축을 끝낸 이 건물은 토착의 재료인 전돌을 사용했고 공간의 크기와 배열을 한국화한 기념비적 건물이다. 공간사옥은 외관부터가 비원(秘苑)의 고궁을 비롯한 주변한옥들과 완벽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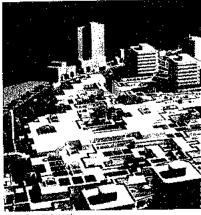
조회를 이루고 있고 내부공간에도 전통 계승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다. 너비 60cm에 불과한 좁은 계단과 1백90cm로 낮춰진 천장 등이 한국적 공간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건축의 이면에 숨어있는 조상들의 공간개념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이같은 공간을 연출해 낸 것이다.

연건평 3백80평의 이 건물에는 40여개의

기능적 공간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생체리들의 긴장과 이완을 연상케 하며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다. 공간사육은 톡히 명확한 총의 개념을 없애버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건물은 보통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상 지표면에서의 높낮이로 측정해 보면 무려 22층이란 층수가 나온다. 그것은 각 방의 천장높이를 달리함으로써 주공간과 보조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낭비되는 공간을 없애는 교묘한 공간구성의 미학을 구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공간시옥은 지난 60년대 한국건축계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전통계승문제에 하나의 뚜렷한 방법론을 제시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건축계 인시들이 감수근 선생의 대표작으로 공간시옥을 거론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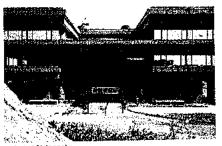
세계현대건축계에서 스스로 제 3세대 건축가로 자처하고 휴먼스케일의 제 3공간 연출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김수근 선생은 이제 모든 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임한 채 우리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선생은 시간 속에 공간을 새겨넣은 숱한 작품으로 계속 우리 곁에 살아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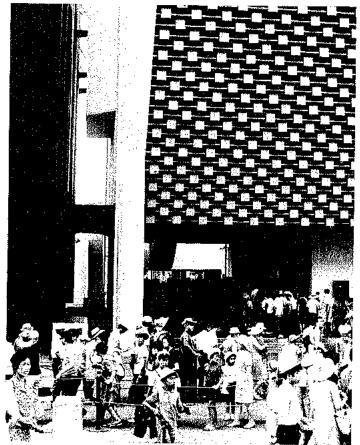
남대문시장(1977



싸주택 (1978)



광명시청 (1983)



엑스포70한국관: 한국관은 Symbole Zone을 통하여 입장한다. 한국관을 관람키 위하여 좀서 있는 관객

김수근 선생의 작품세계

(대판 Expo70 한국관을 중심으로)

조구현/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Memory of the Man of Blessed Cherishing the Memory of Deceased Mr. Kim, Swoo Geun by Cho, Goo Hyun

약관20세의 나이에 건축에의 뜻을 품고 도일하여 수업하고 29세의 청년이 되어서는 국회의사당 현상설계(1960)에 1등 당선 하여 금의환향하여 고국에서 건축에의 외지의 나래를 피우기 시작 하면서 30세에는 워커힐 힐탑바(1961), 32세에는 자유센터(1963), 36세에는 부여박물관 (1967), 39세에는 Expo'70 한국관(1970) 등을 설계하면서 작품에 몰두하셨고 급기야는 외국에 눈을돌려 이란의 엑바탄 주거단지(1975), 수단국의 영빈관(1977), 말레이지아의 시라와크 주립 sport complex (1985), 등 주목과도 같은 작품 제작에 몰두하시던차 어느날 갑자기 병마와 싸우신다는 소식을 들은지 불과 2개월만에. 그분의 의지라면 얼마든지 극복하겠지. 설마,설마 하던일이 드디어 벌이지고 말았다. 별세하신 것이다. 그분을 모셔놓은 서울의대 영안실에는 평소 그분을 아끼고 따랐던 여러분들이 오셔서 애도해 주셨고 또 수많은 조화(弔花)도 답지하여 있었다. 그 조화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일본의 저명한 건축가 단계 겐소(丹下 健三)씨의 것이었다. 이분의 조화를 보는 순간 김수근 선생의 연구소에 10여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깊었고 나에게 많은 감명과 배움을 주었던 Expo'70의 한국관 (韓國館)을 회상케 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이 한국관의 설계·감리의 참여를 위하여 일본에 체재시 대판(大阪) EXPO'70의 Master Plan 작성자인 단계 겐소씨가 "EXPO'70순방"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건축사회, EXPO'70본부 요원 및 내빈들과의 TV 좌담회에서 설계 Idea로는 한국관과 Canada관이 돌보이며 한국관은 새로운 각도의 설계시도라고 극찬할 때의 흥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관은 4,150m'의 대지위에 \$ 1,200,000의 예산(실내장식 및 전시 비용 제외)으로 건설한 것으로 한국관의 북측에는 중국판, 남측에는 불란서관. 서측에는 카나다관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을 압도하기 위하여는 일단, 대지 전체를 덮고 그와는 별도로 그속에 전시동 (展示棟)을 넣은 비행기의 격납고와도 같은 형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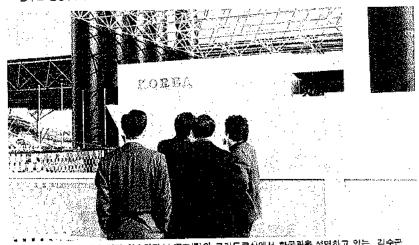
이 대지를 덮는 형태는 직경 3,75m

고30m의 원주(円柱)를 북측에 8개 남측에 7개를 각각 일렬로 배치하고 그위에 높이 4.24m 폭35m에 길이 66m의 트러스 (Truss)가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의 형태로 덮여자는 것이다. 일단 대지전체를 덮고난 후 구성된 공간의 내부에 또하나의 공간 즉, 2개의 전시동 (4층건물인 주전시동(主展示棟)과 2층 건물인 부전시동(副展示棟)과 랜딩 프렛트폼(Landing Platform; 일명 종각) 을 두어 무한한 우주공간속에 또하나의 소우주를 구성함으로써 볼륨을 강조함은 물론 약진 한국과 세계와의 조화를 실감 토록 배려되었다.

당시 한국관의 주제가 "좀더 깊은 이해와 우정"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도 합당한 공간구성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주전시동은 4층에는 과거 우리 조상으로 부터 물러받은 유산을, 3층에는 당시 한국의 성과를, 2층에는 관리실을, 1층은 주전시실(Hall)로서 고전과 현대무용을 공연하였다. 또하나의 부전시실(약900㎡) 의 1층은 전기 및 기계실, 2층부분은 한국의 미래상을 전시하였다. 이 미래관(未來館)은 인공의 연못(池)위에 거북선(亀船)의 모양을 하고있어 선생은 미래관을 보고는 항상「임진왜란때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한국을 침략키 위하여 발진한 항구가 바로 대판항 (大阪港)인데 나는 지금 거북선(亀船)을 대판에 상륙시켰다. 참으로 통쾌하다」라고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또, 랜딩 프렛트폼 에는 실물크기의 에밀레종이 매달려있어 입장객들이 예밀레종소리를 들으면서 에스커레이터를 이용, 4층의 과거 전시관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선생은 이에 대하여 「입장객에게 에밀레 종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불어넣어 주고 또, 빈공건을 소리로 채워줌으로써 삼중의 효과를 노린다」고 말하던 것이 또한 생각난다. 당시 한국관의 랜딩 플렛트폼에 설치되었던 에밀레종은 조각가이며 현대 미술관의 관장이었던 김세중씨가 제작한 것으로 김수근선생이 작고하시고 20일도 못되어 타계하셨으니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한번 생각케한다. 당시만해도 청년 이었던 두 분이 다 고인이 되어있지않은가? 한국관의 건설당시 선생과 나는 시간이



Symbole Zone에 서서 한국에서 시찰은 정부 담국자들에게 한국관을 설명하고 있는 청년건축가 감수근 선생(좌측에 박서보 교수가 보인다. 그는 미래관의 작품에 참가됐었다.)



EXPO'70 한국관 정면 화요광장(火曜広場)의 고가도로상에서 한국관을 설명하고 있는 김수근 선생(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분) (KOREA라고 표시된 부분이 주전시동, 그앞이 Landing Platform 좌축 하단의 감옷과 같은것이 거북선형태의 미래관인 부전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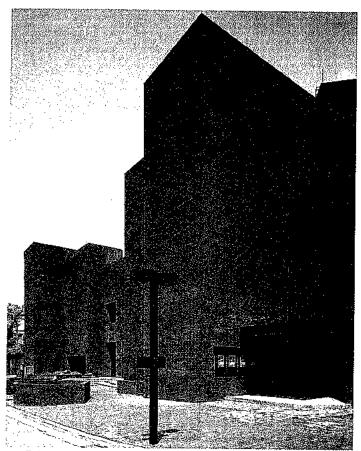
있을 때면 가끔 영화관엘 가곤 하였는데 언젠가는 영화가 끝나고 나오다가 「영화가 끝날 때가 되어도 자미있는 장면이 안나오면 초조해자는데 요즘 나는 나의 인생에서 그런걸 느끼게 되네」하시던 때가 선생의 나이 40이되는 해였고 50이되던 해에는 「이제 내나이 50이되니 이제서야 건축이 무엇인지 겨우 어림풋이 알겠네」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인생을 선생과같이 그렇게 초조하고도 알뜰하게 여미고 저며가며 시신분도 없을 것이다.

선생이 귀국한 이래 25년간의 작품을 돌이켜 볼때 초기작품은 C.I.A.M.적 성격을 따어 기능주외적이고 입체주의적 성격을 많이 따우다가 때때로는 돌발적으로 실험론적 건축작품이 보이는가 하면 레이트 모던(Late Modern)적 성격을 거쳐 최근에 와서는 포스트 모던(Post Modern)의 분야에 심취했던 흔적이

보인다. 선생의 최근의 작품 경향을 볼때 단의적(単意的: Uni-Valent) 인것을 파하고 다의적(多意的: Multi-Valent) 인것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음직 한것은 최근의 교회작품을 미루어 짐작케한다. 뿐만이니라 선생은 신고전주외적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선생의 작품들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조명해 볼때 선생은 빠른 템포로 건축의 여러주의나 형태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며 선도해 나이갔던 것을 그의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만일 선생이 지금현재도 건재하여 계시다면 어떤 성격의 작품을 해나갔을까 매우 궁금 하고 기대되는 것이나 선생은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 선생의 주옥과도 같은 작품을 다시는 대할 수 없게 된것이 자못 안타끼을 뿐이다.



문예국장

삶의 빛나는 한때

김석철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키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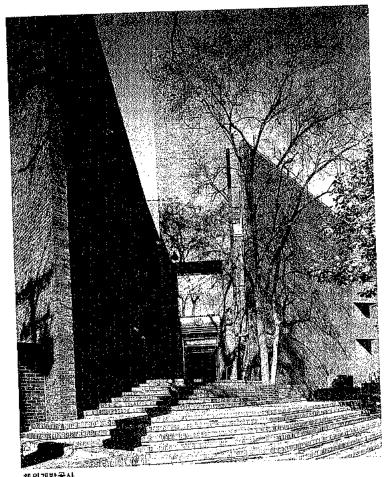
Memory of the Man of Blessed
Cherishing the Memory of
Deceased Mr. Kim, Swoo Geun
by Kim, Suk Chul

마침 우리 시무실이 이분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미술회관과 문예극장 바로옆에 있고 샘터 건물에는 하루에 한번씩은 좋은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도 정작 그분에 대해서 쓰려고 하니 어렵다. 이분의 직품들에는 범상한 사람이 닿지 못할 본래인 건축들만이 갖는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국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예극장과 미술회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고 중요한 마로니에 광장과 내부공간의 전개가 엇갈리고 삼층의 자료관은 전체적인 얼거리에서 비껴있고 램프로 이어질 수 있는 옥상은 버려진 것같다. 문예극장은 무대부분과 뒷무대의 일상적 쓰임이 정작 사용자 주인들로 부터 불평을 듣는다. 그러나 이 두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유서깊은 장소인 마로니에 광장에 매우 이름답게 들어선 건축물이다. 마로니에 광장은 대학로와 낙산과 한 아름다운 정경을 이룬다. 미술회관을 다니면서 이 양반이 이 좋은 자리의 중요한 정경을 건축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킨 것에 감탄한다. 아래위 두 전시장을 다니면서 혹은 중간 브릿지에서 트여 막히면서 이어진 마로니에 광장의 푸름은 곧 낙산 압벽을 넘어 뒤 푸른하늘로 이어간다. 밤에 문예극장이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사람들이 수런거릴 때 광장에서 바라보이는 문예극장은 과연 극장답다. 마로나에의 녹색과 붉은 벽돌과 불빛이 축제스러운 소리가 날 듯한 감상을 불러 일으킨다. 이분은 건축가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본질적 재능인 주제에 대한 본원적 이해와 부지의 가능성에 대한 뛰어난 직감력을 가진 사람이다. 마침 예술의 전당일로 열번 가까이 세계도처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다녀 보았지만 새로이 선 현대건축 중에 이만한 극장은 없다. 바비칸 센타의 설계자인 프랭크 웃즈도 '이건 과연 좋은 극장이다.'라고 한 본격적 수준의 격이있다. 이런것은 아무나 만들수 있는것은 아니다. 샘터 일층 커피숍에 가면 대학로가 편안히 트여 보인다. 오후 한나절의 약간 편안한 휴게의 나쁜한 공간이 거기 있다. 물론 동승동의 네 벽돌 건물들에 비판적 측면들도 없지 않다. 구조방식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현대건축의

승리에 속하는 바 이념의 배반에 속하는 위장된 조적조의 결구는 거북스럽기도 하고 반복적인 조직기법의 반복이 비시대적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분의 건축들은 우리가 잊고 살던 "삶의 빚나는 한때"들을 실현한다. 그것은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한 측면이다.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만족시키는 건축가가 있고 당장의 용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건축의 높은 관점에서는 인간의 인간다움, 도시의 도시다움인 진실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분은 지친 서울거리에 삶의 기치와 산다는 일의 귀중함을 말해온 사람이다. 아침마다 바이엘 사옥과 경동교회, 해외개발공사를 지나 여기 동숭동 시무실로 오면서 서울거리에 심은 이분의 이름다운 감성을 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난다. 바이엘 사옥의 청람색 타일과 스테인레스 수평샷시의 각진 구석과 원통각창은 경사진 가로변에 건축의 한 즐거운 장면을 연출한다. 경동교회의 고색스러운 응벽은 도시 한길로 나선 종교의 갈등과 성심을 보이는 간극의 공간들을 보여준다. 길을 비껴선 해외개발공시의 대작선 벽은 대학로 거리에 저만큼의 넓음의 여유를 말한다. 현대건설 사옥의 무작스러움으로 벗겨진 공간사옥은 본래의 골목으로 부터 있던 건축적 프러세션은 많이 파괴되었지만 하나의 벽, 하나의 개구부에서도 얼마나 건축가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필요를 앞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하지만 건축의 건축다운 본래의 가치를 위해서 이분은 오랫동안 외롭게 어렵고 큰 길을 걸어오신 것이다. 공간이라는 오래된 커뮤니티를 옆에서 보면 참 보기가 좋다. 초기의 인국동 시절부터 서울신문사 별관과 교육회관을 거쳐 잠시 기술공사가 되었던 후암동 학교건물로 부터 이곳 원서동 시대에와서 커지고 풍성해진 이들을 보면서 이런 가족들과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시대의 좋은 이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자유센타, 워커힐 힐탑바, 오양빌딩등의 60년대를 지나 기술공사의 세운상가스러운 좌절과 질곡의 날들을 지나 공간사옥, 우촌장, 문예회관,

마산성당으로 이어지는 70년대를 거쳐 진주 박물관, 공룡사옥 등의 원초공간에의 집착동에 보이는 작가의 의지는 다양한 커뮤니티로 부터의 '함께 큼'을 실현한 귀중한 예로 기억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속에 몰두할 때 이분은 자기의 주위를 키우고 마음을 열고 팔올 벌려 자신의 새로운 마당을 키워온 것같다. 밖에 알려진 것보다 내가 이는 그분은 발군의 재능과 과장의 제스추어들 속에 델리키트한 심선의 가락을 가진, 이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 그의 건축은 풀로트의 다양함과 설정의 굵은 윤곽이 눈에 뜨이지만 예상외의 섬세한 다테일의 전개가 시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면서도 자기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키울 수 있었던 천부의 능력은 부여박물관 때 말한 '가진자는 새로운 영향에 부딛혀 더욱 커지고 가지지 못한자는 그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 던 말씀을 상기케 한다. 60년대 후반 윤승중씨를 중심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들 별개의 길을 다르게 가면서도 당시의 작업들을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워낙 이양반은 사람을 11는 이상한 함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실은 다 가진 '가능성의 정점' 들을 발견하고 자극시키는 본인의 '시람을 사랑하는 좋은 심성'에 그 시작이 있는 것같다. 함께 이 양반과 일해본 사람은 무슨 하찮은 일에서의 동반지였어도 그에게 끌린다. 그러면서 그는 삼십년동안 그들을 키우고 자신을 새롭게 변신시켜 온 것이다. 탈레랑이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사건이 아니다. 단지 뉴스일 뿐이다'라 하였던 수사를 상기한다. 정작 이 양반이 떠나시고 나니 나같이 비판적이었던 시람조차 문독 적막한 감회에 사로잡힌다. 그는 건축계의 거의 독보적이었던 별이었다. 그러나 그벌은 항상 함께 빛나는 별이었다. 공간에 남은 그분의 동반자들의 계속적인 건투를 기대한다.



장애자 올림픽 서울대회와 시설계획방향

박용환 한양대학교건축학과 교수

Direction of the Facilities Plan for the '88 PARALYMPICS

by Park, Yong Whan

[] 정상인과 장애자와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에 약 4억5천만의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일려져 있으며 이는 총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300만명씩 증가추세에 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자 인구를 약 1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수준에 비해 비교적 저율이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장애정도가 비교적 기벼운 자, 노약자들을 제외한 사회보장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로 장애자의 범위를 한정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으리라 예상된다.

최근에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이 항상됨에 따라 비로소 시회복지, 또는 장애지에 대한 관심이 중대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정상인으로 부터의 「무관심」「차별의식」이 장애자들이 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기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점은 현재 '86 아시안 게임' 과연이은 '88 서울을림픽 개최 등 국제스포츠 대회에 대한 열기가 국내외로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고 일반 국민의 판심과기대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에 반해 '88 서울을림픽이 끝나면 곧 개최될 예정인 '88장애자 을림픽 서울대회"에 대해서는 그 개최사실조차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2] "장애자와 스포츠"에 대한 기원은 기원전 약 3 백년경부터 비롯되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근대 의료스포츠가 과학적으로 발전해왔다. 문예부흥기 이후부터는 오래전부터 독일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환자의 기능회복을 지도하였으며, 1880년 영국에서는 하지절단자를 위한 최초의 신체장애자 스포츠대회가 개최되는 등 장애자에 대한 스포츠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기 시작하다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에 영국의 Guttman 박사에 의해 "스포츠 대회"로 조직화되기에 이르렀다. 세계신체장애자 스포츠대회(일명 Stocke Mandeville Game)는 척수의 손상으로 인해 마비된 중도(重度)의 신체장애지들에게 휠체어를 사용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중도신체장애자가 과거와 같이 죽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남아 있는 잔유기능을 훈련하여 시회복귀(Rehabilitation)의 길을 미련해 주고 나이가 세계의 장애자가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 서로 어울려 진정한 스포츠맨쉽(Sportsmanship) 을 발휘함으로써 상호간에 회망과 격려를 그리고 우정과 이해로써 보다 크게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는 기본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조직된 이 대회는 스포츠가 단순히 하나의 처료 수단만이 아니라는 점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올해로 35회째를 맞게 될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오다가 1952년 처음으로 국제대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60년 로마올림픽 대회부터는 올림픽 개최국에서 장애지올림픽을 함께 개최토록 규정하기에

한편 그동안 대회의 성격이 올림픽 대회로까지 발전하는 동안에 1972년 히이댈베르그대회까지는 척추장애자만 참가하던 것이 1976년 캐나다의 토론토 대회때부터 척추장애자 이외에 사지절단, 시각장애자가 추가되었다. 1980년 소련 올림픽대회 때에는 대회개최의 철회로 말미암이 네덜란드 안램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때에는 다시 뇌성마비자까지 참가하게 되어 그 규모나 장애유형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적 스포츠 대회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다.

한편 앞서의 네가지 유형의 장애자정기 기구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1982년에 ICC (세계 장애자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 회)가 결성되었으며, 따라서 1984년 미국 뉴욕주의 올림픽대회는 ICC 결성 이후 최초의 4개 경기가구의 통합대회이긴 하였으나 척추장에자 경기만은 영국에서 따로 개최됨으로써 '88 서울장애자올림픽 대회가 ICC 결성 이후 전장애자 경기가 동일개최지에서 거행되는 최초의 세계 스포츠대회가 될 것이다.

한편 장애자올림픽을 통칭 파리림픽 (Paralympic) 으로 말하는 것은 1984년 일본의 동경대회때 생겨난 애칭으로서. 그것은 Paraplegia의 Para의 Olympic의 Lympic을 합친 합성어이며,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포츠대회가 최초에는 하반신 불구의 장애자만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전신체장애자의 국제적 스포츠 경기대회로서 보다 널리 일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원래 이 대회와 올림픽대회와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나. 1956년 올림픽 운동에 대한 공적으로 수여되는 「팜리-컵 (Fearmley-Cup)」이 국제율림픽위원회로 부터 이 스포츠대회에 수여됨으로써.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이 단체를 이념과 목표가 동일한 단체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해에는 장애자올림픽 또한 같은 장소, 같은 시설을 시용하며, 오륜기를 게양하는 것 등에서 양대회의 관계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③ '88장애지올림픽에 관련하여 최근의 주요장애지스포츠대회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금관에 35회째를 맞이하는 영국의 「Stockemandeville Game」, 지난 84년의 「New York 장애지올림픽 대회」, '85년의 제21회 일본 「전국신체장애자체육대회」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International Stocke Mandeville G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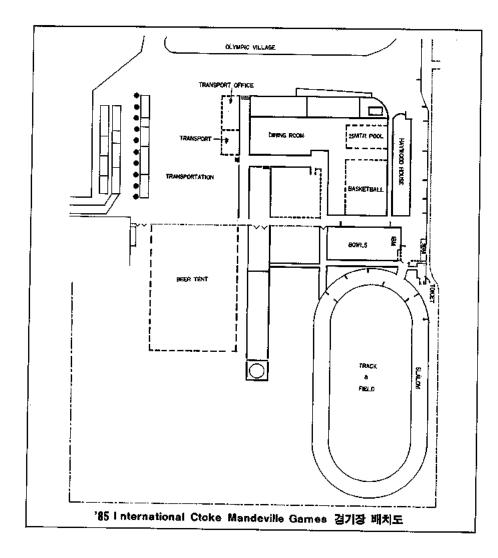
이 대회는 1948년에 시작하여 작년까지 34회의 대회기간을 거쳐오면서, 그 동안 참기인원, 참가국, 경기종목 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대회가 차루어지고 있으며 '85년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13개국으로 부터 6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사격, 양궁, 육상, 농구, 보울링, 펜싱, 당구, 수영, 탁구, 역도, 미라톤, 5 종경기 등 12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되었다. Stocke Mandeville Sports Center를 주경기장으로 하고, 그 외에 3 곳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였는 바, 경기장별로 간단히 스케치하면 다음과 같다.

◆ 수영경기 - 전광판 혹은 touch pad 시설이나 건축적으로 특별한 설비나 시설이 거의 없는 길이 25m, 폭 6 lane의 국히 일반적인 소규모의 풀로서 25m 경기가 실시되었다.

- 당구경기 살내체육관의 농구경기장 부속실을 전용 당구장으로 활용하였는데, 실내는 미치 암실과 같은 분위기로서 4 대의 당구대를 설치하고 집중조명시설을 당구대 위에 하였다.
- 탁구경기 가폐식 스텐드(관중석)가 설치되어 있는 중급규모의 에일즈버리 시민회관의 강당에 탁구대를 10대 설치하여 경기를 진행하였다.
- 역도경기 ―탁구경기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졌으며, 아직 국내에는 보급되지 않고 있는 높이의 조정이 기능한 벤치(Adjustable Bench)를 설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 국제역도경기연맹(IWF)에서 규정하는 제반 부대사설을 갖추었다.
- 양궁경기 -에일즈버리 그라마 스쿨의 럭비경기장에서 실시되었으며, 경기장 전체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14개의 양궁 타케트가 설치되었다. 경기장 후면에는 좌식번기와 세면기를 갖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역시 간이로 설치한 L.PG 순간은수 시설에 의해 항시 더운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 농구경기 실내체육관의 농구경기장을 활용하였으며 약 4 백석의 관중석과 체육관 전용 전광판 1개가 설치되어

역대 장애자 올림픽대회 현황

역내 상에자 됨			. 	-1 -1	-00	-11 (2 3-1)	7)]	7 회	제 8 회
구 분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제 6 회		1 =4	01
개최연도 및	1960.	1964.	1968,	1972.	1976.	1980.	1984.		
시기	9.18~	11. 8~	11. 5 ~	8. 2~	8.3~	6.21~	6.16~	7. 22~	
' '	9. 24	11. 12	11. 12	8.10	8.11	7. 5	6.30	8. 1	ļ !
	(7일간)	(5일간)	(8 일간)	(9일간)	(9일간)	(15일간)	(15일간)	(11일간)	
개최국	이탈리아	일 본	이 스 라 엘	서 독	캐 나 다	네덜란드	미 국	•	서 울
및 개최지	로 마	동 경	텔아비브	하이델베르그	토론토	안 햄	뉴 욕	엘즈버리	
대회공식명칭	Olympics for	Paralympic	Olympics for		Torontolymp-	Olympics for	1984 Internat-	The 7th World	!
"-"	the Disabled		the Disabled		pia		ional Games	Wheelchair Cam-	[
	(IK. BISGSIOS			i	1	the Disabled	for the Disab-	es	
				ļ			led		!
alalanuc	참가국:21개	참가국 : 22개국	참가국 : 29개국	<u> </u>	참가국.42개국	참기국:42개국	참가국: 44개국	참가국 : 41개국	
참가국및선수	중기국 - 21개	참가선수;378명		i .	참가선수:	참가선수:	참가선수:	참가선수 :	
i) † 참가선수 :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E-16, 1100	1,000명	1, 560명	2, 500명	1,800명	1, 064명	1
	400명						임원: 700명	임원: 330명	
하계올림픽지		일 본	맥 시 코	시 독	캐나 다	소 련	미 국		-
아세를품파이	로바	두 경	- - - - - - - - - - - - - - - - - - -	원 핸	몬트리얼	모스크바	L. A		<u> </u>
<u> </u>	• 올림픽경기	•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개최국	<u> </u>		*소련은 대회	#당초 척추장에?	나는 일리노이주, 일반	-[
	장 활용	활용	인 멕시코의 준			개최 철회	장애자는 뉴욕	주에서 개최 계획이었	
	1	1	1	•대통령 참석		''-'	으나 준비관계호	로 척추장애자는 영국	
비교	•대통령 영부	1	리엘에서 유치	1 - 41.6 - 2 - 12 - 1			에서 개최됨		
	인 참석	황후 참석	1			1	•레이건대통령 •	見예회장	
	◆ 교황치사 • : : : :		•이스라엘대학				• 영국 황태자 참석		1
	연설		경기장 활용				0.1.20.40.1	: 1	Ì
			 수상 창석 	<u> </u>	<u> </u>			<u></u>	L



있었다,

● 펜성경기 –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4 개의 포스트(post)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중석이 없고 실내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보아 펜싱훈련장으로 쓰이던 곳이라 여져졌다. 국제펜싱경기연맹이 규정 하는 채점기 및 시설을 갖추었다.

● 사격경기 - 공기총 전용 사격연습장으로 사용되던 사설을 아용하였으며, 전광판은 없고 단지 사대가 7개인 협소한 곳이었다.

- 보울링경기 6 개의 lane이 설치된 실내전용보울링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lane의 표면은 화학성유의 일종인 이크릴 카페트종류로 시공하였으며, 각 lane 마다 수동식 스코이보드(score board)를 벽면에 부착하였다. 보울링장 밖에는 사교장과 유사한 휴계실이 부설되어 있는데 이는 보울링 센터를 일종의 사교장으로 활용하는 영국식에 기인하는 것같다.
- 숙박시설 각종 경기시설 이외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중의 하나로서 숙박시설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 대회기간동안에는 Ludwich Guttman Sports Center 내에 위치한 약 4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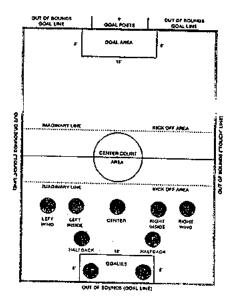
수용규모의 신체장애자 전용숙시를 선수촌으로 활용하였다. 이 숙시는 원래 부터 장애자전용 건물로서 단층의 경랑철골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물내외의 서큐레이션(Circulation) 뿐만 아니라. 현판, 복도, 화장실, 기타 제반 소요실 및 1실당 약 20명 수용 가능한 침실 등 시설적인 면과 조명, 건축재료, 색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건물이다. 또한 주경기장과 매우 근접하여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 자유로이 숙시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대회기간 중 선수들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숙사였다. 평상시 이 건물은 병원건물의 일부로서 척추장애자를 위한 병동으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환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 대회가 개최되므로 선수용 숙박시설로서 이용도가 높다는 점은 '88 서울대회를 앞두고 시설정비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참고 시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회 이후의 시설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증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더우기 새로이

신축되는 시설일수록 시후 활용방인이 계획 당초의 전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경기장 내에는 이 밖에도 약 300평 규모의 Beer Tent (Social Tent), 프레스센터, VIP용 Tent, Friendship Tent, 그리고 간이화장실, 우체국, 보장구수리 텐트 등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부대시설들이 대회 이후의 철거를 전제로 간이식으로 설치되어진 점은 매우 합리적이라 하겠다.

2. '84뉴욕 장애자 율림픽 대회

이 대회는 1984년 6월 16일부터 보름간 미국의 Nassau에서 개최되었는 바, 총 18개 중목에 걸쳐 45개국으로 부터 참가한 900여명의 인원과 시각, 뇌성마비, 잘단, 소아마비 등의 장애를 가진 1천8백 여명의 선수 등 총 2천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최초로 IOC승인하에 올림픽 오륜기가 게양되었던 뜻깊은 대회였다.

미셀공원, 이이젠하워공원, 호프스트라 대학, 낫소지방대학 등 2개의 공원과 2개의 대학시설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모든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주경기장 으로도 함께 이용된 육상경기장은 미셀 공원 내에 타란트랙을 설치, 트랙경기를 실시하였고, 관람석은 파이프와 철골을 이용한 조립식 스텐드를 경기장 양편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공원의 잔디 위에서는 양궁과 필드경기가 이루어졌다. 수영, 탁구, 배구, 농구, 역도, 골볼 등 실내경기는 모두 대학 내의 실내경기장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축구경기장 구조

치투었는데 특히, 호프스트라 대학교의 실내수영장은 50m, 8 레인을 갖춘 국제규격의 수영풀로서 사이드라인(side line) 한쪽 면에 스텐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주경기장인 육상경기장을 중심으로 보조경기장, 선수촌 및 기타 모든 부대시설들은 상호 연결 가능하도록 1마일이내에 설치되었는데, 마젤 공원의 북쪽에 설치된 올림픽광장에는 용급치료시설, 보장구, 수리센터, 정보센터, 티켓 판매소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인근에 설치된 대형텐트(Social Tent, Souvnenir Tent)에는 사교장, 전자오락실, 우편시설, 은행, 전화시설, 기념품판매소, 종교집회시설 등이 갖추어졌다.

주경기장 주변에는 특히 일반인 및 장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5개의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었고, 호프 스트라 대학내의 학생 휴게실은 영화판으로 활용, 참기자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선수 및 임원들은 전원 호프스트라 대학교 시설을 선수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선수촌에는 5 동, 12층 건물로서 1~2인이 1실을 사용하는 기숙사와 4 백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식당자하에 우편시설, 구내매점, 기념품 상점 등이 위치하였다. 기숙사 내에는 1개층에 2개의 변소와 세면 시설이 되어 있었고, 숙소, 화장실, 욕실 등은 휠체어 사용자들의 이용을 위해 문 대신 side rail 장치를 하였다. 또한 버튼이나 수도꼭지는 절단장애자라도 밀기만 하면 물이 나오도록 장치되었으며,

. 사위장에는 지체장애자가 앉아서 사위할 수 있는 의자시설을 마련하였다. 기숙사와 식당으로 진압하는 길은 모두 램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기숙사 문은 자동문으로 하였다.

경기장을 왕복하는 셔톨버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내버스까지도 모두 휠체어 승강기가 부착되었으며, 휠체어 승강시간 단축을 위해 별도의 승강기 없이도 직접 버스 문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임시 램프를 정류장마다 설치하였다.

이 대회는 경기운영면에서는 다소의 불편과 차질이 있었으나 시설면에서는 경기장, 숙소, 식당 및 쇼핑센터나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한 기존시설을 훌륭히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었다고 할 수 있다.

3. 제21회 일본신체장애자 스포츠 대회

이 대회는 동경율림픽이 개최되었던 1964년 이후 매년 일본전국의 현율 순례하면서 계속 개최되어 왔으며 21회 대회는 1985년 11월 2일부터 2일간 롯도리시에서 거행되었다.

선수 약 1,100명, 임원 및 관계자 약 1,400명 도합 2,500여명이 참기하여 육상,수영, 궁도, 탁구, 농구, 야구, 배구 등 7개 경기종목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42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현에서 운영하는 운동공원내의 시설, 지역체육관, 학교시설 등 모두 기존시설을 이용하였다.

대회의 주경기장 및 육상경기장으로 사용된 관람석 3 만석 규모의 후세 육상경기장은 1984년에 완공된 것으로서 종합운동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51ha의 부지를 기진 이 운동공원은 이외에도 야구장, 2 개의 보조경기장, 투척장, 광장, 주차장을 갖춘 대규모였다. 한편, 경기장 내의 장애자를 위한 모든 편의시설, 선수대기실, 각종 봉사활동을 위한 시설, 화장실 등은 모두 이번 대회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간이시설 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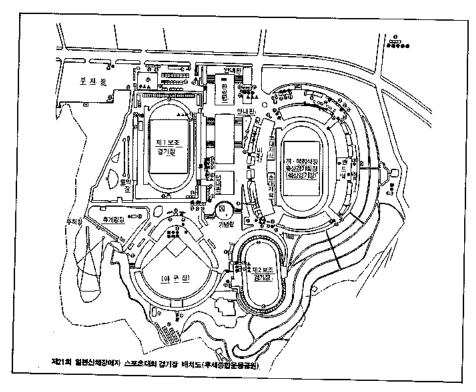
경기장 주변에는 "만남의 광장"이란 명칭의 Social Tent를 설치하였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지방민속춤, 수화극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그와 장애자들의 작품전시장, 의료보장구 전시장 및 각종 기념품 판매장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상에 소개한 최근의 몇몇 장애지스포츠 대회를 통하여 볼 때 비록 각각의 대회에 대한 개최국의 사정이 다소 다를지라도. 몇가지의 사항 즉 주경기장의 위치와 주변환경, 선수용 숙박시설, 교통문제,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공통적으로 울림픽 주경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근교의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보조경기장(기존시설)을 두어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메인스타디움(주경기장)은 동선처리가 거의 평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자에게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수직동선 죽. 계단이나 리프트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회진행을 매우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넓은 잔디 핀람석, 각종편익시설과의 연결, 조립식 입시스탠드 등의 설치 등은 위치상 도시 내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두번째로 선수용 숙박시설을 볼 때 우선 각 경기장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차량 등, 교통수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장애자의 아동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대회 진행을 위확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회 이후의 장래에 있어서 시설의 이용도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병원이나 대학의 기숙사 등 기존시설의 활용 혹은 대회 이후의 시설의 활용방안이 당초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특히 건축 및 도시환경에 있어 거의 전무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존 도시환경조건의 이유로 주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한 가까운 곳에 대처할 수 있는 미땅한 기존시설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대회기간동안에 이용될 각종 시설의 위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어차피 일정한 간격으로 차량의 운행이 불기피하게 되므로 일반차량을 개조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일반도시교통 체계와 대회진행을 위한 교통대책이 기급적 상호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대회기간 동안에 필요한 각종 편의 및 오락시설. 시교장 등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고정시설물 보다는 텐트류와 같이 간이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대폭 개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장애자를 위한 사화복지의 측면에서는 결코 틀린 일이 이닐 것이나 단기간만의 대회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간이식설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의 건설 당시에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낭비 또한 막을 수 있는 일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①얼마남지 않은 '88장애자올림픽 서울대회를 앞두고 이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는 세계도처에서 참가하는 장애자들이 대회기간 동안 이용하게 될,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개선책이 당면한 중요과제이다. 여기서의 각종 시설이라 함은 비단 스포츠경기를 위한 실내와 채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참가선수 및 임원용 숙박시설은 물론 시내 주요관광시설, 레크레이션, 쇼핑시설 등 이용기능한 시설이 모두 포함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기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

기존 체육시설을 대회기간 중 사용하게 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경기장 외부로 부터 관람석에 이르기까지의 어프로우치 문제, 건물내부에서의 서큘레이션(Circulation), 관련편익시설의 부족, 기타 외부 공간과의 단차(段差), 특히 휠체어 사용자의 기존 관람석 이용문제 등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장애자 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서 사용한다고 기정하였을 때는 위의 열거한 시항 이외에도 관람석과 그라운드의 단차가 매우 심하여 상호간에 장애자의 이동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장애지를 위한 관람석 및 응원석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각종 편의 시설과의 동선이 떨어지거나 혹은 경기장

밖에 설치해야 될 경우 이용상 대단히 불편한 점, 대회기간 동안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및 그의 이용이 매우 불리한 점, 그리고 각국의 참가인원수에 비해 경기장 규모가 너무 클 것이라는 점이 문제시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각각이 당연히 장애요인이 되는 것들로서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별한 해결책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바 외국의 스포츠대회의 실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이번 대회만을 위하여 기존 건물의 개수 혹은 보수를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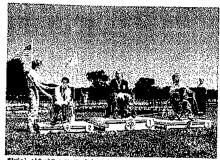
장애자스포츠 대회의 특징상 대회의 대부분이 동선상 평면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회기간 중에 이용하게 될 대상시설의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필요한 편익 시설을 기급적 텐트나 간이 이동식으로 대치시키는 방안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대회 이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대처 방안이 장애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해결책은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원시설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만 더 시설적인



지동차에 부착된 카리프트(Car Cift)를 이용하여 휠체어 사용지 가 중차하는 모습(International Stoke Mandeville Games)



환체이 사용자용으로 폭발하 제작된 시상대에서의 시상식 광경 (New York 장애자올림픽 대회)

배려를 한다면 장애자들도 충분히 안심하고 이용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것으로는 우선 공원 정문까지의 접근성에 관한 것으로서. 횡단보도상의 신호감지장치, 유도장치, 차도와 보도와의 단차, 노면의 굴곡 등에 대한 해소 및 보완, 그리고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 및 위략시설 등 공원내의 각종시설에 있어서 입구부분의 단차해소. 경사로의 설치가 요구되며, 기타 판매대. 벤치, 화장실 등 각종 설치물에 대해 장애자의 동작 특성과 필요공간의 첫수에 적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장실 및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방법이나 위치, 공원내 안내를 위한 표시 . 표식 등은 기본적이고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서 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호텔 및 백화점

타 편익시설에 비해 비교적 건물내부의 동선이 복잡하며 항시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므로 지체장애자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자에 대한 안내 표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호텔 저충부 및 백화점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위주의 수직동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혼잡할 때에는 일반 엘리베이터의 이용조차 불가능하다

그리고 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반드시 장애자 전용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며 이



메인스타다용주변에 긴아식으로 설치된 편의사설(일본선체장에자



회전문은 월체어 시용자의 경우 전혀 이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목반사용자조차 힘들다.

경우 자동문이 가장 비림직하다. 그 밖에 통로, 판매대간의 간격, 프론트 데스크, 클로크, 각종 키운터 등은 그 소요첫수 결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폭의 확장 혹은 높이의 하향 조정 등 재고의 여지가 있다.

● 교통시설

현재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하철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는 전혀 이용이 불기능하며 하지장애자조차 이용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장애자 전용 엘리베이터 (계단 Lift) 유도블럭, 맹인용 점자안내 등의 설치뿐만이 아니라 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장애자용 지도를 별도로 발간하여 사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재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매우 격차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이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지라도 이를 체념하기 보다는 각종 안내표지, 난간, 조명, 군데군데 유도불록 동을 설치하고 램프 등을 갖추는 등 비교적 용이한 것에서 부터 개선 및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지면 장애지에 대한 기존시설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은 실로



변기주변에 난진이 설치된 예. 장에자 전용화장실은 월체어 사용을 고타하여 충분한 단적이 요구되며 수정및 수작년간을 한제 설치한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리만큼 많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제반시설에 있어,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장애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지를 위해서 어떠한 시설적인 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만으로는 실제 이용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램프와 경사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건물의 내외부름 통한 전체 서큐레이션이 가능할 때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출입문이 자동문이라든가, 카운터나 전화박스의 높이가 낮다든가, 전용화장실, 전용엘라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접근할 수가 없거나,혹은 다음으로 연결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 전체 동선의 흐름이 불기능할 때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차」에 있어서 정상인에게는 결코 문제시될 수 없으며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이러한 「단차」가 장애자의 「공통의 적」임을 재삼 인식하고, 비단 '88장애자 올림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장애자를 위한 시설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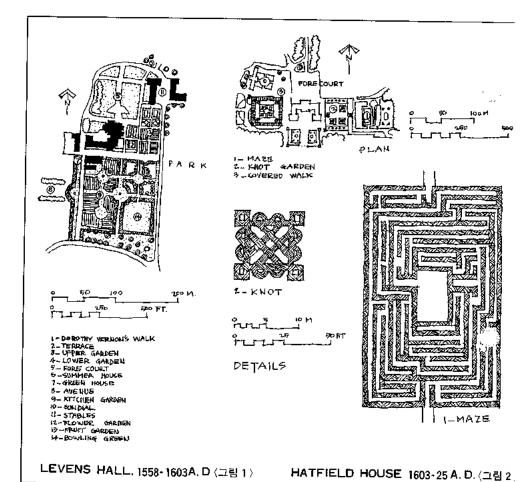
[2] 날로 변화해가는 생활환경의 도시화, 고도화는 개개인에 있어서도 동일한 능력을



관에대, 카운터, 전화박스 등 각종 성치물들은 장에지를 고려할 때 높이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요구하는 반면, 장애자에게는 스스로가 생활환경에 대한 핸디캡이 점차 큰 장애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지럽에 대한 의옥마저 상실하게하고 만다. 이울러 사회로 부터의 소외 또는 무시도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장애지들은 가정이나 시설 또는 일정지역을 벗어나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나 우리 정상인에 의한 심리적 물리적 제조건들은 모든 방면에 있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 비록 어떠한 자가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해 갈 수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지는 장애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88장애자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단순히 성공적인 대회 개최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장애지에 대해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장애지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숭화시켜야할 것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자의 두 다리와 우리 정상인의 두 다리의 차는 인간으로서의 결정적인 차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88서울올림픽 대회를 위한 제반 노력이 올비른 진로를 향하기를 바랄 뿐이다.

건축과 조경② 서양의 조경



TREATIS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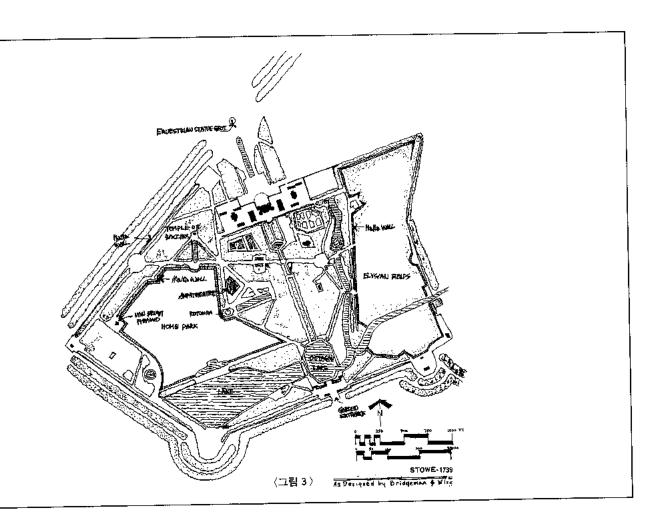
by Oh, Sang Pyung

④ 영국 풍경식(風景式) 낭만주의 조경 〈문화와 예술은 연속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절대로 좌절될 수 없는 것이며 이무리 새로운 상황하에서도 그 맥락은 면면히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시대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다시 재창조되어 새로운 풍조가 지연스럽게 등장되는 것이다.....) 16세기초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13세기초에 발생되었던 자유주의 사상적((Magna Charta 1215년 영국왕 Johno) 승리한국민자유의 칙허장) 전통을 계승 하고 있었는데 로마교황권을 부정하는 절대 군주정체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 것은 1530년 경이었다.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들은 전원지대(田園 地帶)에 보유한 자기의 영지에서 이무 간섭도 받지 않고 생활하는 자유를 추구 하였으며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상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의 지배하에 있던 세속군주도 그 지배를 벗어나 독자의 권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때에 국가를 초월한 개인에 의한 새로운 사상적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Nicolaus 1473 ~1543), 케플러(Kepler, Johannes 1571~ 1630), 걸릴레이(Galilei, Galileo 1564~

1642); 뉴톤(Newton, Sir Issac 1643~1727)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럽제국의 과학자들이 이당시 까지만해도 종교적 사상으로 인한 절대신성의 성역이었던 신에 도전하여 우주의 구조에 대한 해명을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근대철학의 창시자로서 과학적 경험론을 중요시했던 독일 철학자 테카르트 (Descartes, Rene 1596~1650)가 「나는 사유(思惟) 한다, 고로 나는 존재(存在) 한다」고 설과한 것도 이 시기였다. 개인은 타인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실존(實存)과 경험에 입각하여 추론(推論)한다는 명제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신앙의 자유(自出)를 왕권 (王權)과의 대립을 전제로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만인평등을 인정하고 중간계급과 재신권의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다. 시대적으로 요구된 이러한 과학적 자유주의 (自然・自由主義)를 배경으로 싹튼 것이 영국 자연풍경식 조경양식(自然風景式 造景様式)의 역사적 배경이라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건축풍조(建築風潮)를 개관 한다면 유럽대륙으로 부터 흘러 들어왔던 기하학적으로 정형된 것에 맞선 건축이

오상평 / 정화엔지니어링 대표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체적인 통일의 유지와 균제의 미를 살리는 가운데 궁궐이나 장원과 같은 형태를 떠난 규모가 꽤 큰 밀접된 도시형 건축물이 나타났으며 교회의 종탑 등으로 강조(Accent)된 치밀한 벽돌조의 실용적인 것과 기념비적인 (monumental) 것의 절충식 건축이 정착되어 있었다.

예컨대 1632년에 건설된 Hampton Court 궁원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Greenwich The Royall Naval College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건축의 목적과 부지 및 자연환경에 걸맞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관(景觀)의 구성 역시,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구성의 양식(pattern)에 영국인 특유의 기질을 잘 반영한 건축과 마찬가지로 절충식의 형태를 반영함으로써 초기에는 거대한 직선적인 설계(lay out)가 가로(街路)에 도입되었으나 공유자 상호간에 거센 반발을 일으켜 차츰 완만한 기복을 가진 영국 지형에 알맞는 목가적 분위기로 변모하기 사작하였다.
1470년에 축조된 Haddon Hall, 1547~53년에 건설된 Montacute Hall, 1958~1603년에 건설된 Levens Hall에서 처럼 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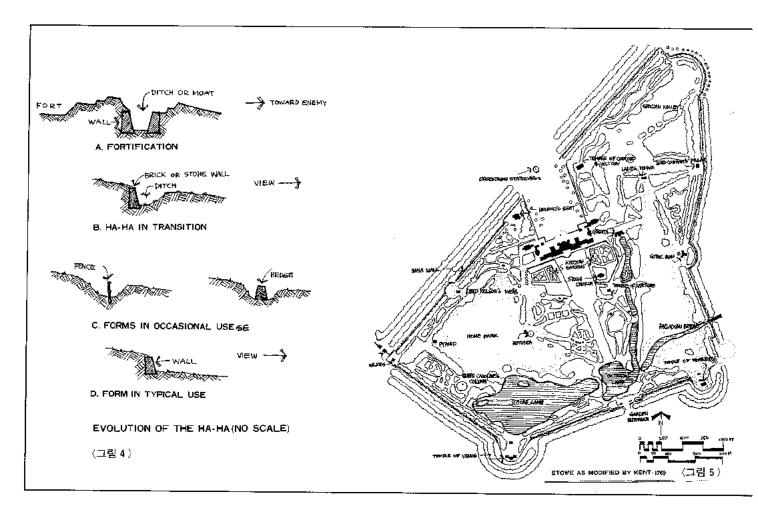
(前庭: fore court)에는 자갈깔린 마당보다는 잔디 또는 녹색의 소관목을 심었으며 저택(castle) 안의 적당한 곳에테라스(terrace)를 설치한 것을 보아도이탈리아의 장방형보다는 정방형인경향으로 조성되어 있어 영국적인 강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이와같은 흐름중에서도 영국풍경식(英國 風景式) 조경의 진화과정이 가장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는 건축가인 반 브로우(Van Brough)와 조경기인 브리지만(Bridgeman) 에 의하여 18세기초에 건설된 스토우 (Stowe) 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3) 대륙적인 영향으로 정형식(定形式)이기는 하지만 얼른 보기에는 베르사이유 (Versailles)에서 처럼 중앙의 축을 중심으로 남쪽 경사를 따라 8각형의 연못 까지 똑바로 이어져있고, 촘촘한 간격으로 나무들이 있는 두개의 가로수 길이 버킹검으로 향해 경사져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파테어(parterres: 정원에 화단을 배치한 구역)들이 수영장과 분수와 수로 (canal)와 숲이 있는 곳에 마련되어 있어 대륙의 정형식 정원(formal gardens)과 동일시 할 수 있으나, 좀 면밀히 살펴보면

영국적인 뚜렷한 개성과 혁신적인 처리 기법을 볼 수 있다.

첫째, 브리지만은 은장(隠墻: 정원의 경계로서 개천을 파고 그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숨은 담장인데 이와같은 것을 ha-ha wall이라고 하였음: 그림 4)을 도입하였다. 이와같은 ha-ha wall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모우트(moat: 도시나 성곽둘레의 外濠)를 정원 축조 기법에 도입시킨 것으로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하는 폐쇄적인 돌출담장을 피하고 부지 외부의 자연경관을 부지내의 경관과 연장시킴으로써 차경관의 확대효과를 기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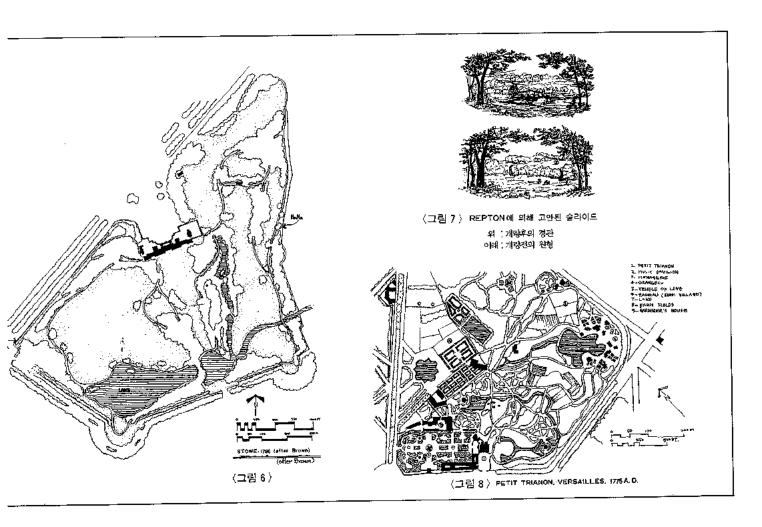
둘째, 교차되는 축선의 각도에서 기존 마을에 있었던 도로망의 축선을 근본적으로 직각이 되도록 교차시키지 않고 서로 빗나가게 교차시킴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고 옛토지의 지배자였던 코브라함 군주가 사용하였던 교회 등 초기 스토우 (Stowe) 마을의 집들은 존차케하여 지배자가 떠났더라도 옛 로마의 도로에 이르는 길들이 그대로 존속케하였다. 새째, 위 두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지형 자체가 기복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연지형을 대부분 그대로 살려 무리한 절토와 성토를 자제하였음을 볼 수 있다. 1733년 브리지만의 활동기가 서서히 지나갈 무렴, 당시 화가와 조각기로 활동 했으나 크게 빛을 못보고 오히려 건축과 조경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어 브리지만과 쌍벽을 이루었던 윌리엄 켄트(William Kent)가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2세기에 절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이태리의 르네상스 별장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 왔다. 윌리엄 켄트는 조사를 통해 범장의 각 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보았으며 이런 현상은 윌리엄 켄트에게 강열한 인상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뇌라속에 박히게 되었다. 초기의 켄트는 브리지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후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주로 심취하였던 황폐된 이태리 정원의 영향을 받아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들과 정원과 부지위에 구축된 구성물 전체에서 고전적 정형미의 균형을 거부하는 새로운 조형미가 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임자의 작품과는 정반대로 켄트는 평면 (平面)이나 선(線)을 사용하지 않고 작품을 만든다고 보고 있었으며 그가 개량한 스토우정원(Stowe garden)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전적, 정형적인 형태를 거부함으로써 고전적 요소가 무너진 형태에로 매우 자연스럽게 변천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 이다. 이러한 켄트의 영향을 받은 그의 후계자 란셀로트 브라운(Lancelot Brown) 은 한술 더떠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켄트의 절충식(정형의 거부에 의한 지연형으로의 복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연주의를 탐미함으로써 정형식(定形式)의 고전미가 완전히 사라지게됨과 동시에 급진적인 고전 개랑주의로의 이신(異身)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르네상스식 고전적 형태의 멋진 역사 유물들이 일시적이나마 무비판적으로 파괴되고 개량되어 뜻있는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 하나의 예가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스토우 정원(Stowe garden)의 2차 개량이다. 이처럼 근대영국의 풍경식 조경양식 (風景式 造景様式)은 켄트에 의하여 창시 되고 브라운에 의하여 완숙 되었는데 이 때의 켄트의 작품을 보면 거대하고 용장 (勇狀)하며, 기복이 있는 강처럼 보이는 수면만 있으면 어디서나 그와같은 수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역력하였다.

켄트가 처음 시작한 것은 수목(樹木)이 군집(群集)을 이루게 되도록, 즉 작은 숲이 되도록 나무를 식재 하는 방법이였고 건축물은 햇빛과 구름이 비치는 용대한 목가적 경관속에 자리잡게 하였으며 ha-ha wall 속에 갇힌 사슴들이 자연스럽게 한가히 떼지어 노는 시적인 풍경을 연출 하였다. 여기에 브라운온 목가적이고 시적인 사상을 넘어 영국의 부드러운 토지 형태에서 아이디어의 커다란 영향을 받아 지연의 곡선만을 유일한 조경기법(造景 技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성된 영국의 자연풍경식 조경양식을 이어받은 험프리 렙튼 (Humphrey Repton: 1752~1818)은 브라운의 인간미를 가미한 기법 즉, 완전히 개방된 순수 자연적인 (다소 비인간적인) 것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인공과 자연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기법을 구시하였다. 그리하여 험프리 렙튼 시대에 정립된 영국의 자연풍경식 조경양식에서는 현대 조경에서도 가장 존중되는 자연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자연과 인간화합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다. 험프리 렙톤의 톡색은 정성들여 작성된 보고서와, 심리적이고 시각적이며



분석적으로 제작된 설계도서, 계획의 사전, 시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도를 종합한「Red Book」이라는 방법을 창안해 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요즈음의 시행전 사진과 시행후의 투시도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림?)이러한 일련의 영국풍경식 조경 양식은 고전적 기하학적 형태에 실증을 느낀 사회 심리적 현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 있으며 특히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인뜨와네뜨(Marie Antoinette)같은 이는 쁘띠뜨리아농(Petie Trianon) 부근에 르 기르뎅 앙글레스 허모(Le Gardin Anglais Hameau : 촌락)를 조성하여 정원의 깊숙한 골짜기에 소용돌이 치는 냇물이 흐르게 하고 연못이 있게하고 연못 제방에는 제분공장과 낙농저장고와 마차의 장신구들이 있는 농가를 배치하여 마리 안따와네뜨 자신이 시녀들과 농부놀이를 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그림 8) 이타리에서도 I8세기 후반 보르게제 (Borgeze)가 영국인을 고용하여 뽀르 따 델 포풀러(Por ta del Populo)주 외곽에 있는 빌라 보르게세(Villa Borghese)의 한 부분을 황폐된 시원으로 장식하고 이어서 모가르트(Mogarth)의 미의 선어 흐르는 숲을 통과하게 하여 오솔길과

전설적인 그리스 이스클리피어스(Asclepius) 신전 다이아나(Diana) 신전으로 이끄는 조망을 갖춘 켄트와 브라운과 렉톤의 정원을 이곳에 만들었다. 대륙에서의 문예부흥은 영국에서의 산업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와 함께 국력이 강대 해진 영국의 조경문회는 유럽대륙과 북아메리카 및 그들의 식민지가 있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장기에 이르렀다.

⑤ 현대 미국조경의 아버지 프레데릭 로우 올롬스테드(Fredrik Law Olmsted)

16세기 중엽 이후 코페루나쿠스, 케폴러, 갈릴레이, 뉴톤 등 일단의 과학자에 의하여 우주와 지구의 현상을 해명함에 있어 과학적 법칙에 의거한 논증 방법이 시발을 하였으며 유럽제국들간에는 미지의 세계로 향한 탐험의 항해가 맹열히 일기시작하였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은 새로 발견되는 신대륙에 그들의 국민을 이주시켜 본국 영토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영국은 스페인, 포루투칼 등에 비하여 다소 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 들었으나 산업 혁명으로 점증하는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의 필요성과 공업회에 의한 국력의 급성장, 막강한 해군력 등에 힘입어 식민지를 확장해 나간 결과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와 북미지역, 대양주, 아프리카 등 그들의 발길이 5대양 6대주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는 스페인이 키리브해 연안을 차지하여 날미와 북미의 남부저역에 그들의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그들이 차지한 지역명을 베라크루즈(Vera Cruz) 세인트 어거스틴(St. Augustine), 산타페 (Santa Fe) 등으로 붙였고 동북부 카나다 지역을 차지한 프랑스는 몬트레올(Montreal) 등으로, 증동부 지역을 거점으로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본국 왕이나 그들 고국 고유의 이름을 붙여 제임스 타운(James Town), 버지니아(Virginia), 사우드 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뉴잉글랜드(New England) 등으로 지명을 붙였다. 이와같이 북미의 동부지역에 터를 잡은 영국인들은 강력한 국력의 뒷받침으로 처음에는 신대륙을 찾는 이민의 수가 적었으나 나중에는 끊임없이 몰려들어와 신대륙 에서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청교도적인 검소함과 고국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강인한 개척정신을 가진 이들 영국 이민 1세들은 북아메리카의 중심 지역에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었고 함께 신대륙에 상륙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등 타국의 국력이 기울기 시작하는 기회를 이용, 북미지역 식민지 건설에 기선을 잡게되었다.

초기 동부를 중심으로 정착했던 이들 이주민들은 본국과 중속의 유대를 이루면서 고국의 생활과 풍속과 건축양식 등을 정착지에 이식했다. 그러나 이민 2세대 3세대로 점차 바뀌면서 유럽 여러나라로 부터 이주해온 타민족 끼리와 융화가 이루어지고 서부 개척 시대의 특이한 역사적 과정이 이에 겹쳐 서서히 본국으로 부터의 탈출의 의지가 싹트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독립의지가 팽대해져 1776년 독립전쟁이 벌어졌고, 1787년 동서부의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 정부의 헌법이 제정 됨으로써 명실공히 합법적인 독립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의 건축양식은 르네상스기의 영국 양식과 네덜란드 양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18세기 전통을 충실히 지켜 우아함을 유지 하였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은 프랑스식 고전주의와 영국식 지연풍경식 사이에서 방황하는 미국의 조경술(造景術)에 미국 독자적인 기초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인물중의 하나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베르사이유궁의 기념비적 (monumental) 위용에 대한 동경은 조지 워싱톤(George Washington)의 동감대 위에서 합치되어 프랑스인 랑팡에게 포트맥 (Photomacc) 강변에 신수도 워싱톤 (Washington)의 도시계획을 의뢰토록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817년~26년 사이 버지니아 대학교정(Virginia University Campus)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브리지만→켄트→브라운→렙톤으로 이어진 영국 자연풍경식은 앤드류

잭슨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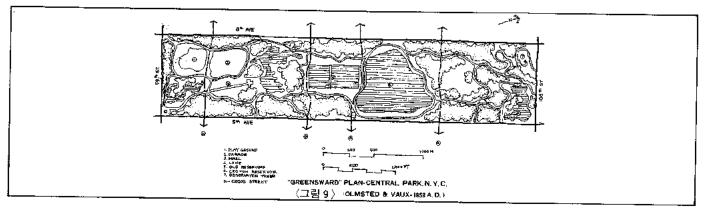
의 백악관과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 (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 국립 박물관)의 계획을 통해 미국적인 대중제1 주의(public first) 개념의 도입기운데 포용되었으며 넓은 잔디밭과 전정(前庭) (front yard)의 화사한 꾸밈새 등이 바로 시민을 위한 대중정원(public garden) 으로서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이은 칼버트 보그스(Calvert Vaux)와 프레드릭 로우 올름스테드(Fredric Law Olmsted) 는 1858년 뉴욕의 중앙공원(Central Park) 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종래의 사유지 (私有地) 조경 (유럽에서의 벨사이유 햄턴코트, 보르비 꽁떼, 이태리식 별장 등 왕궁과 귀족들의 장원)에서 떠나 시민을 위한 대중공원(public park), 즉 공공 공원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현대조경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대 전환율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현대조경의 이버지로 불리우는 <mark>올름스테</mark>드(F. L. Olmsted)는 1822년 당시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 (당시 인구 123,000명) 교외에서 태어나 서부개척 시대의 후반 기와 도시집중시대의 사회적 변천기를 실었는데 그는 측량기사이자 항해사 였으며 1847년에는 스탠튼 아일런드(Stanten Island) 에다 만인의 갈채를 받은 시범농장 (Model Farm)을 만들었다.뿐만 아니라 언론가로 출판업자로서도 활약했으며 남북 전쟁 당시에는 미국 적십자사의 전신인 미국 위생위원회의 사무관으로 2년간 봉사 하기도 한, 실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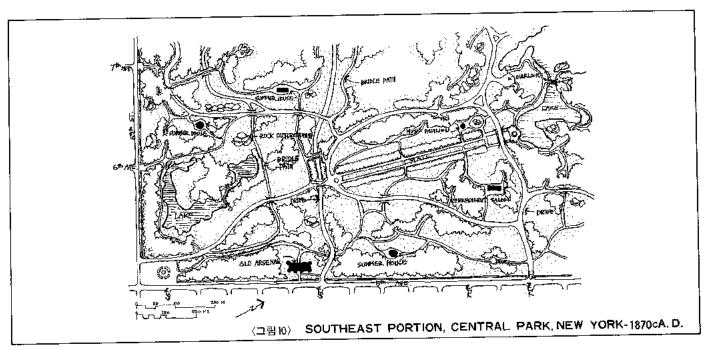
이 시기 1844년 시인이며 신분 편집인인 윌리엄 쿨렌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가 「The New York Evening Post」지에 대중 공원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열띤 글을 발표하였고 4년 후인 1848년에는 앤드류 잭슨 다우닝도「The Horticulturist」지에 유럽 대륙 왕후 귀족들의 광대한 사유지가 일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가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공공을 위한 대중 공원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이외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뉴욕의 시의회(The Board of Alderman)는 공공 공원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당국에 의하여 공원위원회 (公園委員會: The Board of park Commissioners)가 구성되었다. 1858년 4월1일 공원위원회(B.O.P.C)는 중앙 공원(Central park)건설을 위한 설계경기 (Competition)를 실시 34개의 용모 작품 중에서 을름스테드와 보그스(F.L.Olmsted +C.Voux)의 그런스와드 플랜(Greensward plan: 잔디계획)을 영예의 최우수 조경

작품으로 뽑았다. 올롬스테드는 B.O.P.(로부터 중앙공원(Central park)의 총감독으로 위촉받아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유명한 센트랄파크를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 당사로서는 344ha의 교의 부지에 이처럼 대규모의 방대한 공원 계획을 서도 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올롬스테드는 급격히 중가하는 뉴욕의 인구와 도시 성장의 예견에 대한완벽한 선견지명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공원위원회(B.O.P.C)의열광적인 동의를 득하였던 것이다. 그린스와드 계획(Greensward plan)을 요약하면그림의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 1. 부지를 관통해야 하는 횡단도로에 대한 계획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필요한 교차점마다 공원내 일반 도로 표면보다 낮게(2~3m) 계획함으로써 공원내에서 횡단 도로의 노출이 안되게 하였음.
- 2. 시각적 효과도 올리고 소음을 완충 하는 역할도하는 이중효과의 경계식재를 실시.
- 3. 전체 부지의 형태는 장방형이나 도시의 엄격한 바둑판 눈금형 양식(grid pattern)으로 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자연적





경관으로서의 길게 내려다 보이는 경치 (vista)와 전망(view)을 강조.

-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대화하며 쉴 수 있는 가로(avenue) 와 산책로(mall)를 구분 시설,
- 5.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길고 넓은 마차의 운행로(drive course)를 시설.
- 6. 유쾌한 경험과 건강한 운동을 주는 길고 다양한 승마도로(bridle trail)를 시설.
- 7. 한가한 산책자들을 위한 기복있는 보도(walking way)를 시설.
- 8. 시원함과 신선함을 줄 수 있는 평지의 잔디밭(lawn ground)과 도보행진 등 특별행사에 사용될 연병장을 사설. (parade grond)
- 9. 활동적인 운동을 위한 놀이터 (play ground).

10. 비스타(Vista)로서, 보트장으로서, 겨울의 스케이트장으로서 매력적인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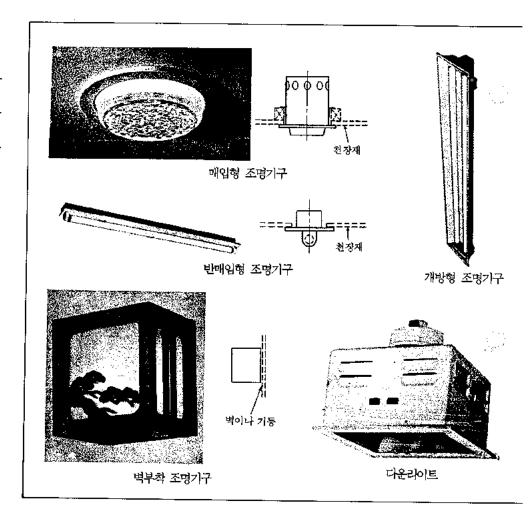
11. 분위기 좋은 환경에서 식물 감상을 할 수 있는 꽃밭(flower garden)과 수목원 (arboretum).

이상 요약한 것과 같이 센트랄파크에서 날로 비인간화 되어가는 도시적 인간환경 (밀집된 도시, 가로와 고충건물과 각종 공해)으로 부터 인간의 본성을 회복 시키려는 위대한 사상적 배경을 읽을 수 있으며 종래의 특정인을 위한 전제봉건적 사고의 탈피와 더불어 민주적 복지주의의 전개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그런스와드 플랜(Greensward plan)의 성공은 올롬스테드의 명성을 견고히 확립시켰으며, 1869년의 미국 대륙 횡단 철도건설의 완성, 1893년의 시카고 세계 콜럼비아 박람회, 전국적인 통신망 (철도건설에 따른)확장 등의 시회여전 성숙에 힘입어 순식간에 미국 전국 각지 도시에서 대중공원(public park) 운동이 세차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카나다와 유럽대륙으로 다시 확산되어 전제 봉건시대에 건설되었던 왕궁과 귀족들의 장원이대중정원(public garden)으로 개방되게 되었고 19세기 중엽에는 영국의 하이드파크(Hyde park)를 비롯하여 켄싱턴 기돈(Kenshington garden), 그린 파크(Green park), 세인트 제임스 파크 (St. James park), 리젠트 파크(Regent park) 등의 대중공원이 속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상젤리제(Champs Elysees), 파르크 몽소(Palais Royal parc Moncoacu), 자르뎅 플랑트(Jardin des plantes), 튁생브르 파르크(Luxembory parc)가 꾸며졌으며 독일에서도 멕데부르크(Megoledurg)라는 소도시에서 최초의 도시공원이 생겼다. 베를린에서는 프리드리히사인 (Friedrichshain)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공원화되었고 왕실 소유의 티르 가르텐 (Tier ganten)이 역시 시민공원화 되었다. 또한 의사였던 세르베르(Schreber)에 의해 창시되었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한 단위가 200㎡ 정도인 집단 소정원 지구로 시민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시켜 채소 화훼 과수 등을 기꾸게 함으로써 여가 및 취미 활동을 즐기게 하였고 그 중심지에 김나지움 (Gymnagium)을 설치하여 운동경기 등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에도 기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지금도 독일지방을 여행해

보면 어느 도시에 가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주말농장과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런것이 흔히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같은 대중공원(public park)의 시조는 20세기에 이르러 도시계획상 함께 고려해야할 기본개념이 되다시피 되었고 공원이 없는 도시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한걸음 나이기서 1928년 부터는 뉴저지(New Jer-sey)의 래더번에 클레어런스 스타인(Clarence stein)과 헨리라이트(Henry wright)이 복잡한 도시환경으로 부터 이탈하여 도시 근교의 전원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택 단지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도로와, 주거생활, 보행자 공간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자동차나 기타 각종 공해로 부터 거주민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필요한 근린 주거시설 (住居施設)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여 녹지대의 (Pathasterian Mall)을 중심으로 배치된 이 전원도시는 오늘날까지도 비인간화한 거대도시에 대한 안정된 주거단지 계획의 시범적 견본 (model)이 되고 있다. 이외같은 미국에서의 대중공원(Publie park) 사상은 멀게는 태고로 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서양조경 (西洋造景) 역사의 한 결정의 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교통 ·통신 및 모든 산업과 정보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온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옥외의 거실(정원)인 동시 생활공간(공원과 시기지) 구성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조명기구와 조명방식



TREATISE

Luminaire and Lighting System

by Kim, Jeong Tai

1. 조명기구

1-1. 매입형 조명기구 천장·벽 등에 조명기구 전부를 매입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매입형 조명기구라 한다.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전구 매입기구, 형광등 매입기구, HID램프 매입기구 등이 있다. 매입형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공간에 조명기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내가 깨끗하게 마감된다. 그러나 조명기구를 매입하기 위하여 천장과 벽을 뚫고 매입 해야하므로 취급 및 부착에 어려운 점이 있다.

1-2, 반매입형 조명가구
천장・벽 등에 조명가구의 일부를 끼워
넣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반매입형 조명
가구라 말한다. 매입형의 경우와 같이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전구 반매입기구,
형광등 반매입기구, HID램프 반매입기구
등이 있다. 반매입형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장식과 조명기구의 이름다움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으며 깨끗한 마감의 효과도
얻는다. 단. 매입형 조명기구와 같이
천장과 벽을 뚫고 매입해야 하므로 공시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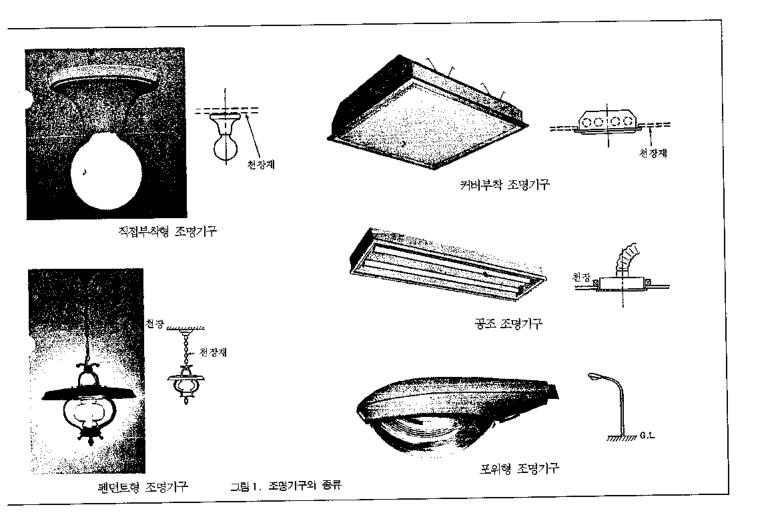
1-3. 직접부착형 조명기구 천장과 벽 등에 볼트나 나무나사로 직접 장치하는 조명기구를 직접부착형 조명 기구라 한다.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전구 직접부착 조명기구, 형광등 직접부착 조명 기구, HID램프용 직접부착 조명기구로 분류된다.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 매입형기구나 반매입형기구와 같이 천장을 뚫기도 하지만 부착대를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가 간단하다. 단, 조명기구가 천장에 노출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명기구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천장 높이가 2.2~2.5m정도 되는 곳에서는 높이가 큰 조명기구를 피하는 것이 좋다.

1-4. 개빙형 조명기구

조명기구에는 빛이 나오자마자 빛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눈부심을 조절하기 위하여 커버와 쿠버를 붙이지만 개방형 조명 기구에는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빛이 나가는 방향은 기구의 반시판에 따라 결정 된다. 조명가구에 루버와 커버가 없으므로

김정태 / 경희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공학박사



램프의 광속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구효율은 매우 높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 시대에 알맞는 조명설계가 가능하다. 단 휘도가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는 직시할 때 눈부심이 생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장소는 지수소 등 밝기 본위의 장소와 공장 역사 등 밝기가 지나치게 변화되지 않는 곳에 적합하고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통 개방형 조명기구라하면 조명기구의 이랫부분을 개방한 것을 말한다.

1-5, 커버부착 조명가구 조명기구에 투명하거나 분산투과성을 가진 플라스틱(혹은 유리) 같은 커버를 부착한 것을 커버부착 조명기구라 한다. 조명 기구에 커버를 부착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조명기구와 램프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보호한다.

- ② 빛을 확산시킨다.
- ③ 광원의 빛남을 없앤다.
- ④ 프리즘의 효과를 얻는다.
- (5) 디자인적인 선호 등.

커버부착 조명기구의 예로서는 그림에서 매입형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광원의 빛남을 억재하고 바로 아랫부분의 조도를 크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투명 프리즘 커버도 있다.

1-6. 벽부착형 조명가구 건물의 벽이나 기둥 등에 부착하는 조명 가구이다. 광원의 종류에 따라 전구 벽부착형 조명기구, 형광등 벽부착형 조명 가구, HID램프용 벽부착형 조명가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사용장소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실내에 사용하는 일반형, 욕실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방습형, 옥외에 비가 내리는 장소에 사용하는 방우형 등으로 나누어 진다. 어느것이나 광원을 직접 볼 수 있는 가구는 없고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커버가 된 것이 많다. 이 가구는 벽 가둥 등에 설치하므로 전반

이 기구는 벽 가동 등에 설치하므로 전반 조명에는 부적합하고 국부조명과 장식적인 조명에 적합하다. 조명설계상 주의할 것은 이 브래컷(벽에 부착한 조명기구)은 비교적 시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회도가 높은 광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팬던트형 조명기구 건축물로 부터 코드, 시술, 파이프 등에 매어단 조명기구를 총칭하여 펜던트형 조명 기구라 한다. 팬던트형 조명기구는 광원과 피조면을 기깝게 할 목적으로 많이 이용 하지만 주택과 점포에서는 조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상향 광속이 거의 없고 하향광속이 많은 펜던트형 조명기구는 조명기구의 바로 위쪽 부분이 어둡고 음침하게 되는 일이 있다. 따라서 주택과 점포같이 비교적 천장이 낮은 건물에서는 펜던트형 조명기구를 전반조명과 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목적도 국부조명과 함께 장식적인 의미가 강하다.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로 위에는 이 기구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며, 또 꿰던트의 목적에 알맞도록 메어다는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다.

1-8. 다운라이트 보통 조명기구를 천장에 매입하고 직접 이랫부분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직접 조명의 일종이다. 다운라이트에 사용하는 광원으로서는 일반 전구, 할로젠전구 및 HID램프 등으로서 점광원에 가까운 광원을 조합하며 매입한 경우가 많다. 다운 라이트는 배열 방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방법과 불규칙하게 무작위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정연하고 건고한 느낌을 주지만 후자는 유유자적한 느낌을 주므로 공간에 따라 배열 방법을 결정한다.

다운라이트는 조명기구를 천장에 매입하기 때문에 지첫하면 어둡거나 옴침하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HID램프용 다운라이트는 현관, 홀 등 높은 천장이나 점포같은 곳에 약간의 높은 조도를 얻기 위하여 최근 많이 사용 되고 있다.

1-9. 공조 조명기구

공기조절 시스템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조명기구를 말한다. 근대 조명설비의 고도조화에 발맞추지 않고 에너지의 열화수를 좋게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air handling troffer라고도 부른다. 그럼에 40쌍형광램프 2등용 개방형 공조 조명기구가 예로 나타나 있다.

I-10, 포위형 조명기구 역광기, 가로등 및 도로등처럼 전면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뒷면은 금속판이나 주물로 덮은 조명기구를 포위형 조명기구라 한다. 일반적으로 옥외용이 많고 전면 유리는 램프의 뜨거운 열기와 빗방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강화유리가 사용 되고 있다. 뒷면의 금속판은 램프를 보호 하는 기구덮개의 역할외에도 투광기의 정우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멀리까지 투사시키는 반사장치의 역할도 한다.

1-11. 탁 스탠드 풀로어 스탠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주로 고정식 조명 기구였지만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탁상스탠드는 가구위에 놓고 플로어 스탠드는 바닥위에 놓는 조명기구이기 때문에 기구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동성이 좋은 국부조명 기구로서 실내의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진다. 탁상 스탠드는 서재, 공부방 등에서 독서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응접실의 사이드 테이블 위나 참실에 사용된다.

전자는 명시적인 요소가 강한 경우로서

전구스탠드가 많이 시용된다. 플로어 스탠드는 거실 소파에서 독서를 할때나 혹은 일가족의 단란함 등에 분위기를 위하여 사용되는 광색은 차분하고 의장성이 있는것이 많이 이용된다. 이상의 조명기구를 사진으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조명기구는 건물의 종류 및 시람들의 행동에 따라 사용되는 종류가

다양하다. 각 건물에 따라서 조명기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표 1과 같다.

2. 조명방식

2-1. 기구의 배광에 의한 분류 기구배광에 의한 분류에는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은 상향광속과 하향광속의 배광에 따른 분류로서 백열전구만 있었던 시대에는 실내에서의 배광 뿐만 아니라, 효율, 글레어, 균제도 등에 관해서 설명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확산광원으로서 고조도를 취할 수 있는 형광램프가 개발되고, 또 건축물의 천장높이가 낮아지는 등 여러가지 변천에 따라서 일부 가정에 전반확산기구가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직접조명방식으로 되어 있다. 조명방식별 장단점은 표2와 같다.

2-2. 기구배치에 의한 분류 실내의 조명분포와 이에 따른 기구배치에 의하여 전반조명방식, 국부조명방식, 전반조명방식은 유사한 직업이 나란히 있는 장소나 이동이 행하여자는 방에 균제도가 좋은 조명을 할 때 사용한다. 조도 계산은 광속법으로 하고, 등구(灯具)는 동일한 것으로 실내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전반 조명은 균제도가 높은 조도분포가 목표이다. 비교적 작은 실이거나 중요한 장소가 중앙부인 장소에 배광이 큰 등구를 한동 덧붙인듯한 경우는 전반조명에 적합하지 않다.

국부조명방식은 살내의 일부분이나 물체를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주로 직접 조명방식에 의한 것이 많고, 조도는 역자숭법의 계산이 실측 데이터로 구해진다. 채광방향의 선택 방법에 따라 질감의

표2. 기구배광에 의한 조명방식

명칭	기구의 예와	그 저희		<u></u>	71
-	111-11-11-11	<u> </u>			정 Talah , Handah
직접조명		상향광속 0~10%	하향광속 90~ 100%	장점: 조명율이 좋다. 먼지에 의한 감광이 적다. 박, 천장의 반사율의 방향이 적다.	조명으로 되기 쉽다. 기구의 선
바 직 접 조 명	**	10~40	60~90	다. 자외선 조명을 할 수 있다. 설비비가 일반 적으로 싸다.시 계에 어둠 밝음 의 차이가 적다.	1
전반확산조명	*	40~60	40~60	녹·실: 직접 조! 간접 조명의 중간	• •
반간접조명		60~90	10~40	조도가 균일하다. 음향이 적다. 연직인 물건에 대한 조도가 높다.	조명율이 낮다. 즉, 조명효율이 나쁘다. 먼지에 의한 감광이 많 다. 천장면 마무
간 접 조 명	raine manner au	90~100	0~10		리의 랑부에 크 게 영향을 준다. 음기한 감을 주 기 쉽다, 물건에 업체감을 주지 않는다.

명확성, 모델링 효과등이 생긴다. 국부 조명은 중점 부분만을 중요시 하므로 일반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시람들은 전체조명이나 부분조명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까다롭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 상당한 고조도의 전반조명을 사용하고, 조도가 부족한 일부 장소에서는 보조적으로 조명을 설치한 보조조명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반조명방식에서는 조명기구의 배치를 단순한 기하도형(작선, 각형, 격자, 전면 등)으로 하고 있지만 실의 성격에 따라서는 일정한 균제도를 요구하지 않고 기구 배열도 획일적으로 하지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구에 따라서는 미적효과와 조도 균제도를 계획적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또한 램덤(random)배치의 전반조명방식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2-3. 건축화 조명

독별한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천장 · 병 · 기둥 등의 건축부분에 광원을 만들어 실내계획을 하는 조명방식이다. 가장 간단한 것은 천장매입조명이며 매입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1) 다운라이트(down light) :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기구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기구는 설계자의 의도로서 여러가지의 것이 사용된다. 개구부가 극히 적은 것을 핀홀라이트(pinhole light), 천정면에

표 1. 건물별 조명기구의 선택조건

	. 건물별 조 		1 —				조	명 7	1 구 의		건		
건	물의 종류	조명 설계의 포인트	글레 어가 적음	확산 성베 광	지향 성배 광	조명 율이 높음	광출 력이 금	연색 성이 좋음	광색과 주광과 의조화	_	보수 가용 이	의장 이우 수	조광 이가 능
	시무실· 설계실	•쾌적한 시환경의 정비. •사무 능률 의 향상 •피로의 경감	0	0		0			0	0			
무	영업실	• 차분한 분위기의 조성 (방문객에 대한 배려) • 사무 능률의 향상	0	0			O (고천 장)		0		O (고천 장)	0	
<u>ē</u>]교 교실	◆ 쾌적한 시환경의 정비 ◆ 피로의 경감	0	0		0		0	0	0	0		
·	의장 · 강당	• 차분한 분위기의 조성 • 다목적 사용을 위한 배려	0	0				0					0
	장(객석) · 화관	• 안전한 관람 • 통행의 확보 • 상영효과의 방해에 대한 배려	0		0				-		0		0
병	진찰실	 쾌적한 시환경의 정비 작업실수의 방지 피로의 경감 명시 환경에 따른 안전위생의 확보 	0	0				0	0		0		
원	병 실	• 차분한 분위기의 조성 • 다목적 사용 (휴식, 진찰)을 위한 배려	0		0			0					0
	박물관 미술관	 전시물 재질의 정확한 표현 차분한 분위기 조성 퇴색·열화 방지를 위한 배려 	0	0	0		İ		0				
支	로 비	• 호화롭고 차분한 분위기 조성 • 호텔 이미지 표현			0			0	0	0		0	0
텔	<u>홀</u> 객 실	• 다목적 사용을 위한 배려(홀) • 차분한 분위기 조성	 		0	+ -	 	0		i	 	 	0
	점 포	• 구매 의욕의 향상 • 고객의 유인 • 상품의 정확한 연출		0	0			0			0	0	
	주 택		0					0			0	0	
	체육관	•경기자 및 심판의 정확하고 신속한 과다에 도움이 되게		0		0	0			0	0		
		• 안전한 작업환경의 형성 • 작업 능률의 향상 • 피로 경감	0	0		0	0	0	_	0	0		

반원구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기구를 설치한 것을 코퍼라이트(coffer light)라 한다.

다운라이트의 방법은 천장면이 어두워지는 것이 특색이며 또한 이것이 결점이다. ② 광창조명: 넓은 4각형의 면적을 가진 광원을 천장 또는 벽에매입한 것이다. ③ 광천장조명: 건축구조로서의 천장에 기구를 설치하여 그 밑에 루우버와 확산 투과 플라스틱판을 천장마감으로서 설치한 방식이며 천장 전면을 낮은 휘도로 빛나게 하는 방법이다.

④ 광양조명 : 연속열의 기구를 천정에 매입하거나 또는 보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⑤ 코오브라이트(cove light) : 간접조명이지만 특히 간접조명가구를 사용하지 않고 천장 또는 벽의 구조로서 만들어 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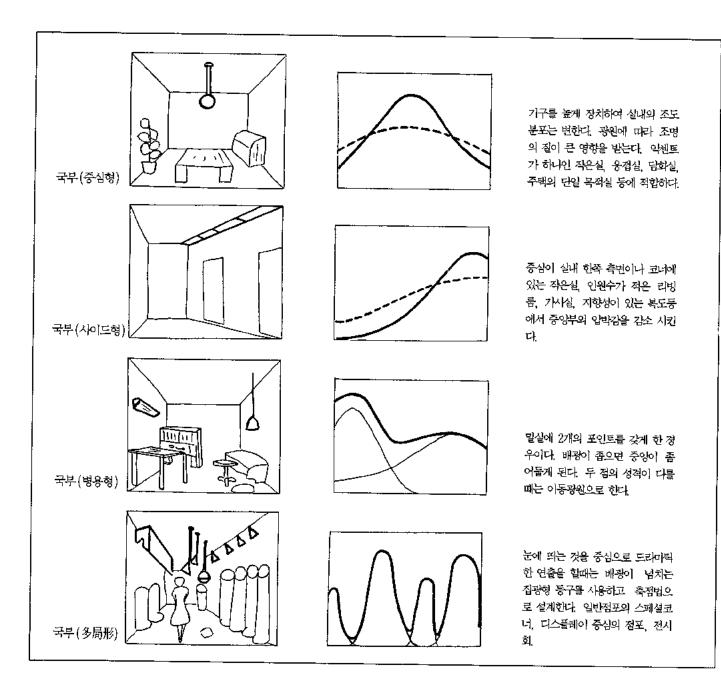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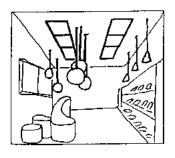
⑥ 벽면조명 : 벽면을 밝게 광원으로 하는 방법으로서는 광양조명이 있으나 이외에 눈가림판을 사용한 코니스라이트(cornice light) 밸런스라이트(balance light) 등의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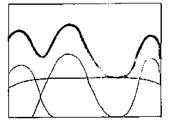
2-4. 조명설계를 하는 입장에서의 분류

좋은 조명의 조건은 수없이 많다. 조명설계를 진행할 때는 각종 조명의 조건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지만, 조명설계를 쉽게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조도를 정하고실내에서의 조도분포를 자세히 유형화하여실의 용도와 관련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면 조명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실의 용도와 관련하여 그림 3처럼 10개로 분류할

수 있다. 종래의 분류는 조도분포를 나타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러한 분류는 종축의 고저가 질적인 우수성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조명설계를 하는데 보다 사용하기 쉬운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10개의 그림은 조명설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다. 이렇 부분의 곡선도에서 종축의 경우에 따라서 조도라 생각해도 좋고 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또 횡축은 단순히 면적적으로 넓어짐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조명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를 조합하여 주어진 평면도에서 포인트를 정하고 거기에 조도(몇 룩스 정도), 연색, 글레어, 모델링 등 조명의 질에 관해서 카테고리름 A급, B급, C급 식으로 메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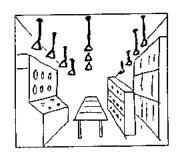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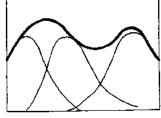




전반국부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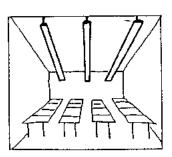
내장효과를 중시한 고급품 점포,레 스토랑, 다파점의 조명에 적합, 우 선 베이스 조명을 고려한후 악센트 물 준 형으로 디스플레이에 좋다. 대비 효과의 체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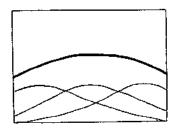




전반(중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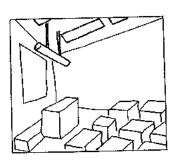
살내의 작업배치에서 전반 조명을 계산하고 등구 위치에 따라 중점부 분을 만드는 조명으로 축점 계산을 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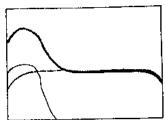




전반(순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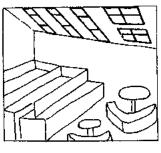
전반 조명으로서 시무실, 광장, 대 중식당, 일용품 점포, 체육관의 조 명에 보통 사용. 조도를 정하고 광 속법을 계산하여 균제도가 높도록 배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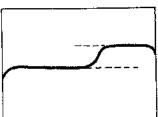




전반 국부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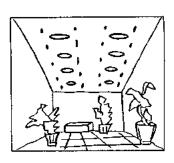
학교교실, 특별판매부분을 가진 슈 퍼, 일반공공회관 등에서 실롱이나 홀의 한 구석을 강조할 경우에 사 용, 다른 종류의 램프를 사용하면 대비적인 강조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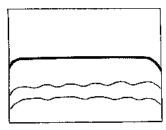




전반(병용형)

하나의 살내를 면적적으로 다른 성 격과 정서를 갖게 할 경우 사용. 두 분부의 조도가 다를때 각각 조도설 계를 한다. 도서관, 은행영업실등.





2종의 광원을 전반조명적으로 병용할 때 사용. 조도는 두 광원의 합계가 되며 조명의 질은 두개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 조명설계를 하는 입장에서의 분류

서언

<u>생활오수</u> 정화

Report

Purification of Living Sewage by Kim, Chong Hub

(4월호 기사내용 소개) : 필자는 같은 제목으로 전월호에서 현재의 수세식 화장실 시스템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미국의 Van der Ryn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고 생활오수의 불완전처리가 야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하였다. 즉 오수처리에서 미처리된채 잔류하는 유기물질은 "트리하로메탄"생성 등으로 「암」유발의 원인이 되며 오수처리에서 완전제거 되지못한 「질소」 「인」 등 역시 유이에게 「빈혈증」을 일으키고 「암」 유발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을 형성한다. 또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과질소현상」 「과인산현상」등의 피해를 주어 농민을 울리게 되고 자연에 대하여도 공포적인 파괴현상을 야기한다.

즉 호수, 항만 등 폐쇄수역에 대한 적조현상은 상수도원을 파괴하고 어족을 멸망시킴을 설명함과 이울러 대규모 유역하수도 시스템의 종말처리장은 「처리수」와「오니」를 바다에 버림으로서 100 m 깊이의 해저. 연안에서 15 km나 떨어진 먼바다에서까지 해양생태계 파괴롤 일으켜 인간능력의 한계성을 느끼게 한다. 동시에 오수처리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반성케하고 인식개혁을 촉구한다. 철저하고 만족스럽게 오수는 처리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정화조는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오수처리 기술도입에 대한 문호개방은 이 분야에서도 권장되고 불필요하게 집중화하고 대규모화하여 문제를 크게하는 유역하수도 사고방식도 개혁되어야 한다.

1. 수질요염근원에 대한 고착

그러면 우리의 수자원을 근원적으로 오염하는 원홍은 무엇일까? 식품생산, 가공업체 등의 산업체나 도살장 등으로 부터의 배수가 허천이나 호수의 수질을 오염하는 큰 원인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사실 1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들 사업체가 폐수를 처리도 하지 않고 함부로 방류하던 시절에는 공공수역의 물은 이들에 의한 오염이 컸으나 근자에 와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폐수규제는 엄격하고 비교적 잘 준수되어 이들에 의한 것보다 밀집화되고(경제수준 향상으로)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한 알반시면의 비처리 집배수 방류가 오염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필자가 이 글의 제목을 생활오수라고 못박은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으며 현재의 국내법으로는 소규모의 건물, 소수가족의 주거집배수는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조치 없이는 생활오수 문제는 표2에서 추정할 수 있는바와 같이 점점 커질 것이다. 1965년에 15%를 차지하던 것이 10년 후인 1975년에는 59%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농촌에서까지 소규모 하수도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 투지를 하기 시작하여 생활오수에 의한 수질오염 방자를 하고 있다.

일본 농촌주민들이 희망하는 생활환경 시설의 우선 순위를 참고로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불원 이와같은 단계에 도달할 것이 기대된다(표3).

2. 수질보전에 관련있는 제사항 개관

여기에 포함될 사항은 그 범위가 보는 견지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여기에서는 대규모 하수도와 소규모 하수도의 특색과 문제점, 그리고 소규모 오수처리(10,000명 미만의 생활배수처리)에 있어 통상 쓰이고 있는 방법을 개략 살피므로서 각 방법의 장단점 이해를 돕고, 차후 수질보전에 대한

표 1. BOD 발생원별 내역

BOD 발생원 구분	발생비율
생활배수	62%
(이중 생활 잡배수 무처리 방류)	(55. 9%)
산 업 계	23%
축산계 및 기타	15%

근거 : 일본 환경자 1982. 3. Vol. 7 No. 2 P.42 기다오다가미네-도요하시大 교수 (16개 하천 수 측정평균)

표 2. 오탁원별 농지피해면적(1965년,1975년 비교)

	오탁	원구분		197	5	1965			
도시]오수(생활비	수) 	ha 92, 844	59	ha 19, 802	15		
산	엽 (공	장) 비	宁	35, 137	22	68, 676	54		
광			산	20, 115	13	33, 932	27		
자	연	오	탁	2, 441	2	1, 959	2		
기			타	4, 928	3	2, 246	2		
	75	P		157, 325	100	126, 711	100		

근거:일본정부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농업용수 의 오탁에 의한 농업피해의 전국실태조사" 계획수립이나 평가, 판단이 필요할 때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가. 하수도란 무엇인가

(1) 하수도의 기능

물은 강우와 증발이라는 자연현상을 기본으로 하여 순환 System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자연섭리내에서 인간은 생활과 사업활동을 위하여 물을 쓰고 버리고 있다. 하수도는 사용하여 더러워진물 등 필요없게 된 물을 깨끗이하여 자연에 돌려주는 시설로서 자연정화력에 의존하여 깨끗이 할 수 없는 도시로서는 물의 순환상 하수도가 점하는 위치는 중요한 것이다. 옛날에는 하수도의 목적은 빗물을 빨리 배제하는 것.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항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바다나 하천의 수질 오탁의 정도가 급진하고 항만 하천의 익취가 심하여짐에 따라 위에 말한 목적외에 "공공용 수역의 수질보전"이란 사고가 부가되면서 도시시설로서뿐이 아니고 호수 등 자연보호의 견지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로서도 정비되어 가고 있다.

이상 요약컨데 하수도는 (개) 빗물 배제

① 지역의 환경개선 ① 변소의 수세화 역할 (각건물 정화조에서 불완전 처리된 수세 변소배수를 종발처리장에서 위생적 처리) 및 ② 공공용 수역의 수질보전 역할을 한다

(2) 하수처리장의 구조

유입되는 하수는 우선 screen에 의거 커다란 쓰레기, 물건 등이 제거되고 다음 침전지(조)에 들어가 먼지를 침전시킨다. (체류시간 1~2시간) 다음 단계가 주정화가능을 발휘하는 폭기조(체류시간 6~8시간)인데 여기서는 공기를 하부로 부터 강제송입하여 하수를 뒤젓게 되고 하수중의 미생물은 점점 번식하여 오물을 먹어 없앤다. 다음에 하수는 침전지 (체류시간 2시간)에 옮겨져 미생물이 먹고난 오물중 무게가 있는 부분은 침전되고 윗물은 소독실로 들어가 염소 등의 약품처리를 받아 살균된 후 하천 등에 방록된다.

침전자에서 침전된 흙뭉치같은 것은 다시 폭기조로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오물을 먹어주는 미생물 덩어리이다. 이 미생물 덩어리는 오물을 먹어 점차 커지게 마련인데 커진 부분은 제거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소위 "잉여오니"이다. 여기에 응용 또는 변법으로 폭기조 체류시간을 2시간 정도로 단축하는 고율처리라는가 2 차처리, 3 차처리 등으로 고급처리를 한다는가 시설부지를 줄이기 위하여 침전조, 폭기조를 2 층으로 나누어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나, 대규모(유역) 하수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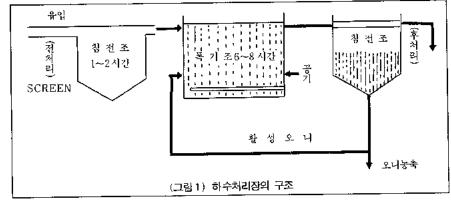
유역하수도란 하천, 바다 등의 공공용 수역을 단위로 그 유역에 있는 복수의 시. 읍. 면 등의 공공하수도(주로 시가지에 있어서의 하수를 배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하수도)로 부터의 하수를 광역적으로 수집,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계, 설비, 장치 등의 크기, 능력을 중대하고 반면 수량, 개수를 줄임으로서 장치, 건물의 총체 면적을 줄이고 운전요원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소위 scale merit 를 최대한 활용하는 개념의 하수도를 말하는데 이는 비단 하수도 뿐이 아니고 소위 20세기 공업화 사고, 대규모화 사고에 입각한 것으로 선진국에서 성행하였던 제도이다. 이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크게 노출되어 이 개념을 일찍 적용한 선진국에서는 근자 10여년전부터 이야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고 이 개념의 하수도 사업은 소규모로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대규모 하수도 사업의 문제점 크면 경제적이라는 개념은 20세기에

크면 경제적이라는 개념은 20세기에 있어 근간적인 사고였고 실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나 큰 것의 페단도 있었음은 상대적으로 "Small is beautiful" 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됨으로도 알수 있다. 이제 대규모 사상이 하수도에서 적용된 대표라고 할 유역하수도의 문제점들을 아래에 나열한다.

(1) 건설비가 저렴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비도 비싸다.

하수도의 일단계는 집수이며 집수관거는 물량(物量)이 많을수록 커지고, 길어지게 마련이다. 종말 하수처리장 자체의 비용만 고려하면 단위용량당 건설, 유지관리비는 싸지겠으나 하수시설 전체건설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관거비가 비싸지면 하수시스템 전체공사비는 반드시 싸진다고



ㅍa 노초주민이 희망하는 생활환경시설(우선순위)

표 3. 공존무민이 의당이	.C. 요즘집합이 기를 (1 년	. ± 117	
구 분	희망우선순위	구 분	희망우선순위
도로정비	17.7%	방화·방재시설	7.8 %
하수배수	14. 7	스포츠오락센터	5.8
집회시설(회관)	13. 1	의 료 시 설	5.0
놀 이 터	12. 5	급수시설	4.4
방범동	9. 4	기 타	9.6

근거 : 일본 농림 수산성, 생활환경개선대책 사업보고서

표 4 , 농촌하수도사업비내역 (근거;山形県羽無町)

- 11	4. 古七	- 412-7	-VI 8-	1-11-11 (2	±/1 ,	山形系	1255 17										
수	全 ~	全	Ϋ́	ŕ o	수광	체오	일 오	1 최	₹	<u> </u>	4 _	①	처	리 시	선 ②	사 업	1 사 인 업
익	익 현	의 현	위 계	의계 '	민 . 관	리 ,	일 수	4 대 사 오	과 연	됌 시	사	1 사	치설	삸	1 사	비	당 비
면	세계	인 재	세획	인 활		대 '	평 '	, 수	-) -)	7T A	업계	인 입 당 비	리 변 [*] 시 점	ਮੀ ਸ਼ੀ	인 업 당 비	계	①+②
줙	[대 ~	구 ~	베	7)	악동	상 량	균량	[간 량	भ ४	프 설	- П	8 4	শ প				
0.28	519 f	2 720P	६०६ ह	3,170명	15호	1,130 m'	911 m²	108 m	12, 835m	5개소	5.45억엔	171,989엔	5,337 m	319,192천원	100,691엔	864,398엔	272,681엔

볼 수 없고 자연유하식으로 집수되지 않는 지세(地勢)에서 강제송수를 하는 경우 그 유지관리비 역시 싸진다고만 볼 수 없다.

scale merit는 하수도의 경우 20만명 (약 50,000m²/일)이 최대한계라는 설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76년에 시작하는 제 4 차 하수도정비 5 개년 계획에는 2,000 만명에게 하수도를 사용하겠금 할 예산으로 7조5천억엔(5.3배 환율로 약40조원)이 계상되었는데 계획종말년인 1981년초에 예산은 96%소모하고 공사는 예정의 43%, 840 만명 범위에 그쳤고 일본 전체의 보급율은 7.2% 상승된 결과로 1% 상승에 1조엔(5조3천억원)이 소요된 꼴이다. 계속되는 1981년 4월~ 1986년 3월의 제5차 5개년 계획에는 11.8조엔(약 63조원)이 계산되고 있어 1인당 약100만엔(530만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된다. 이에 반하여 소규모. 농촌하수도계획에서는 이래표와 같이 1인당 272,681엔 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다. 즉 30% 미만이다.

또한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도 유역 히수도의 경우 연간 관리비가 약 167만 명의 수혜자에 대하여 460억엔으로 1인당 연 27,544엔, 월 2,295엔인데 반하여 소규모 농촌하수도의 경우 아래표에서 알 수 있듯이 394엔으로 약 1/6에 불과하다.

표 5. 농촌하수도유지관리비 내역

_				
				수혜인원(1,711인)
연	간	경	비	8, 099, 368
월		평	丑	674, 947
내	전	력	耳	448, 074
	수퇴	<u>료 (약</u>	품)	187, 367
역	7]	_	타	39, 506
월	1	인 평	균	394
오	니	શ	출	12, 45 m²

근거:山形県羽黒町

(2) 오니처분이 큰 문제이다. 위 2,가,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잉여오니처리가 "활성오니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문제인데 대규모 시설이 되면 그 처리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본 동경도의경우 오니발생량은 1984년도에 (함수율 98~99%) 매일 8,000㎡ (주I)나 생성되니이것의 처리는 엄청난 노력, 비용, 버릴장소문제를 야기한다. 1톤당 공정별처리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버릴장소(현재는동경만에 섬을 만들고 있으나 불원 새로버릴 곳을 찾이야함) 문제로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하여 탈수, 소각 처분한다.

(주1) 여기에 오니발생랑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고급처리 할수록 또 하수도 보급율이 향상될수록 증가함으로 금후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동경도 하수도 보급율은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9년 현재 75%이고 일본 전체는 34%에 불과하다.

(3) 방대한 에너지 소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역하수도 개념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하수를 한곳에 집결함으로 도중에 펌프장을 설치한다든가 처리장에서 수위(head)를 높이는 등 별도의 에너지 소모가 많다. 이래에 동경도의 연도별 에너지소비랑과 미국「인디에너폴리스」시의 에너지소요 구성표를 참고로 적는다.

(4) 오수처리 수질의 불안전성과 질소(N) 인(P) 제거능력이 거의 없다.

표 8. 연도별수전량 및 중유소비량

연도	수 전 량	중유소비량
1980	467,378×10.3KWH	23, 030k#
1981	499,715×10.3KWH	21, 597kℓ
1982	521 ,515×10. 3KWH	21, 927kℓ
1983	529,681×10,3KWH	21, 518kℓ
1984	563,513×10.3KWH	22, 928k <i>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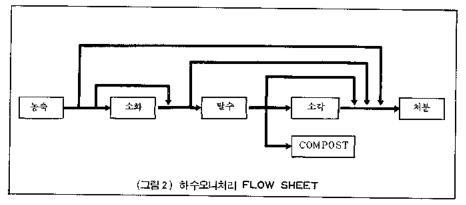
등경도 연도별 수전량 및 중유소비량 (하수도 펌프장 및 종말 처리장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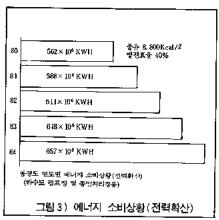
표 9. 미국 Indianapolis 샤의 애너지소요표

부 문 별	·	구	성	비	율
하수처리시	설		45	%	
차량(공공운반수	단)		21	%	
공 공 건	물		12	%	
가 로	등		10	%	
7]	타		12	%	

근거 : Do Joker System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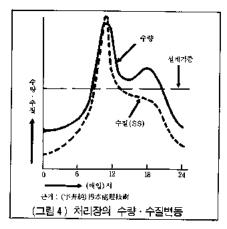


표 6 (오니처리) 공정별 비용

(단위:엔/t)

공정 구분	소 각	운 반	혼 연	운 반	처 분	계
_ 소 각 분	35, 200	2,000	1, 200	400	1, 500	40, 300
미소각분	_	13, 000	23, 500	3, 000	13, 600	53, 100

표 7. (일본의) 하수도 보금율(동경·일본전국)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동 경 도(평균)	52, 2	57	59, 3	61.4	64, 1	66.4	68, 9	71, 2	73	75
일본전국(평균)				27	28	30	31	32	33	34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수의 량은 하루중 11시경에 가장 많고 저녁 18시경에 다시 증가하였다가 심야 24시 경에는 현저히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처리장의 일정한 각 시설 용량은 이 기복이 큰 수량번통에 일정하게 대응할 수 없고 수질의 기복 또한 심하다. 거기에다 활성오니법 등에 있어서는 위에 밀한 "벌킹" 현상 등으로 기능안정을 기하기 어렵고 일단 고장나면 활성오니가 완전히 가능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2개월이 걸린다. 또한 전월호 2, 다. (1), (개)형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제약으로 N의 제거, P의 제거는 별도 3차 처리시설을 갖지 않는 한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문제를 누적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크게 만든다

유역하수도로 하여 넓은 지역의 하수를 수십만톤으로 크게 집절하므로서 위 (3)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가 더 먹고 시설비가 고가가 될 뿐 아니라 넓은 지역의 잡다한 성질의 오수, 예컨대 공장폐수, 병원폐수 등등 중금속이나 특수화학약품 등이 섞여 있는 하수를 같이 처리하므로서 오니 속에 유해물질이 혼존한다. 따라서 순수한 유기물질로 된 "오니"라면 "유기질 비료"로(액체 또는 분말상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을 활용못할 뿐더러 적절한 버릴곳 물색에도 곤란을 갖게 한다. "돈 들여가면서 골칫거리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제일 현명치 못한 바보짓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대규모 하수처리아말로 이런 조롱을 받을 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봄직하다. 참고로 동경의 한 종말처리장 sludge cake (오니를 탈수, 취급용이케한 것)와 소각처리한 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이래에 적는다.

또한 BOD 30정도로 정화된 처리수도 소량식을 분산하여 방류하면 각 장소에서의 (잔류) 유기오염물질 총량이 적음으로 희석 또는 자연정화력 등에 의거,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수십만톤의 처리수를 한곳에서 집중 방류하면 유기질 총량이 많음으로 인체나 자연에 유해작용을 함은 전월호 2, 나 및 다(2)항과 다. 2항에 기록한 바와 같다. 이외같이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문제점을 많이 그리고 큰 규모로 갖고 있는 바 소규모 처리에 있어서의 결점— 기계대수, 부지면적, 인원수를 많이 요하고 운전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는 점 등등 — 을 최소화하거나 운전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처리방법을 연구, 개발 또는 물색하는 발상,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연방정부 환경보호국이 소규모 분산처리를 적극 권장하여 소규모처리에 대하여는 연방정부가 시설비의 85%를 무상원조로 제공하고 ACT. 92~500법률을 제정하여 큰 강아나 호수, 항만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등은 위에 설명한 문제점들을 절감함에서 얻은 현명한 조치라고 하겠다.

라, 소규모 오수처리에 대한 대표적 방법 소개

(1) 장기폭기법 : 이는 활성오니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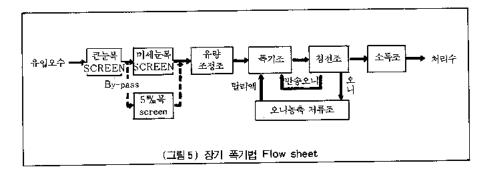
○〈班10〉슬럿지 케잌, 소각재중의 중금속(신하안처리장)

(단위mg/kg)

	소각로	Ti	Cr	Mn	Fe (%)	Ni	Cu	Zn	Pb*	Cd*	Hgૠ
슬럿지	1	2,000	400	690	6, 6	170	590	2,000	37	1, 6	0.40
케 익	2	3,600	530	900	6, 7	470	1,300	6, 700	120	7.4	0.58
	1	3, 500	650	1,200	14. I	300	1, 100	3, 300	160	4, 1	0.011
소각재	2	8,600	1,300	1,700	15.2	1, 100	2,700	15,000	970	28, 5	0.005

근거 : 동경도 공해연구소연보(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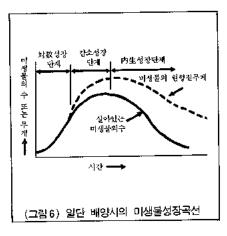
(주) :원자홉광법(Wet Base) 기타는 형광X선법(Dry Base)



변법 중의 하나이다. 활성오니법의 원리는 오수 중에 공기를 충분히 송입하면 호기성 미생물이 오수 중의 유기물을 영양원으로 번식을 계속하는데 어느시간 지나면 미생물은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소위 플록(FLOC)을 형성한다. FLOC은 무거우므로 이를 일정시간 가난히 놓아 두면 활성오니로서 이래에 침전하여 깨끗한 윗물을 얻게 된다. 이 방법과 표준활성 오니법의 차이는 一표준활성오니법보다 폭기시간이 길고 BOD부하가 적으며 폭기혼합액의 부유물 농도(MLSS)가 높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능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처리수를 안정화함과 동시에 잉여오니의 생성량을 극력 적게하려는 의도이다

(주) 처리대상인원(오수량)이 많아지는 경우 큰 먼지의 파쇄장치를 추가설치 한다든가 오니농축조를 별도시설하는 등 한다.

이 방법은 소위 "관리의존형"이라고 불리우는 바와 같이 운전조건 즉 오나농도. MLSS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벌킹현상 (FLOCo) 침전하지 않고 분산되어 홀러나기는 현상)에 대한 대비, 스캄제거 등등을 잘하면 정화성능은 우수하다. 그러나 소규모시설에 있어 이와같은 운전조건을 일일이 유지할 전문가를 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운전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화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고 폭기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뿐 아니라 오니발생랑이 많은 결함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활성오니법 정화조 (전폭기식 정화조)를 표준정화조로 건축기준법에서 공인한지 약 10년만에 표준정화조 형식에서 삭제하였다. (1981년) (주 : 이미 설치된 전 폭기식 정화조는 400 만개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를 표준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아 얼마나 기능발휘상 문제가 있었는가를 짐작케한다)



(2) 접촉폭기법 : 폭기조에 접촉재를 충진하여 여상(瀘床)을 형성하고 폭기 교반에 의하여 충분히 용존산소가 공급된 오수를 순환접촉시키는 것이 주정화가능인바 이 기능을 수행하는 "조"를 "접촉폭기조"라고 부른다. 생물성오니는 접촉재 표면에 부착하여 생물막으로서 생성, 축적된다. 유입한 오수는 그 부칙된 생물막과 되풀이 접촉함으로서 정화된다. 이 방법에서는 생물성오니가 생물막으로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침전지"로 부터 오니를 반송할 필요가 없다. 본 방식의 통상 운전상태에서는 접촉폭기조의 순환수는 활성오니법에 있어서와 같이 많은 부유오니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부유오나는 없다. 또한 "최종침전지"가 있는데 固液분리작용에 의거, 처리수를 언고지함이 목적이 아니고 접촉폭기조 유출수중의 미량 부유물제거와 생물막 과잉축적에 의한 유출 또는 여상세척에 의한 일시적 오니유출에 의한 처리수질 악화를 방지함이 그 목적이다.

(기) 장점

- ① 생물성 오니가 접촉재 표면에 생물막 상(狀)으로 부착생성되므로 접촉재의 비표면적이 클 수록 다량의 생물성 오니톨 보지할 수 있다.
- ② 오니일령(汚泥日令)이 극히 길고 광범위한 生物相이 형성되어 생물화학 반응의 안정성이 중대된다. 동시에 오니의 자기 산화가 촉진되어 잉여오니 생성량도 강소된다
- ③ 저농도의 오수 및 부하조건에 우수한 대용성을 갖는다.

(나) 단점

- ① 부착된 생물량을 임의의 일정량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 ② BOD또는 부유물에 관하여 고부하 조건을 부여하면 생물성 오나의 축적속도가 상승하여 여상(瀘床)의 閉寒시기를 빠르게 한다.
- ③ 그 대책으로서 여상의 세척 및 과잉 오니의 제거가 필요하게 되는바 그 방법이 접촉폭기조의 구조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진다.
- 이와같이 장단점이 있는데 활성오니법이 장치의 구조에 부가하여 공기관리 또는 오나관리 등의 유지관리 의존성이 높은데 반하여 접촉폭기식은 오히려 구조의존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방식의 성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입한 오수를 어떻게 하여 장시간

균등하게 접촉재와 순환접촉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처리용량에 따라 침전분리실 앞에 SCREEN, 유량조정조가 부가될 수 있고 오나농축조, 저류조가 별도 시설될 수 있다.

(3) 회전원관법(回転円板法) : 회전원판 법도 위(2)항의 "접촉폭기법"과 같이 생물막의 작용으로 오수 중의 유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1900년경부터 독일에서 연구를 거듭, 1960년에 발포스 치롤로 만든 원판이 출현하므로서 급속하 보급되었다. 이 법은 오수가 체류하는 "회전판 접촉조"와 생물이 부착한 "회전판"에 의하여 기본적 기능이 발휘된다. 유입오수 중의 유기성 오탁물질은 접촉조내에 체류하는 동안에 회전판상에 부착한 "미생물군(群)에 의하여 제거된다. 회전판은 통상 조내에 약 40%정도 침적된 상태로 서서히 회전하여 공기증의 산소를 접촉조내에 공급함으로서 회전판상의 미생물군이 호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회전판을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오수를 유입시키면 1~2주간으로 원판상에 미생물이 부착 번식한다. 생물막 두께는 회전판 단위면적당 BOD 부하량 다과에 따라 틀리나 통상은 0.5~2% 정도가 된다. 활성이 저하된 생물막은 회전판이 회전하는 전단력에 의거, 탈락되어 처리수와 같이 유출한다. 따라서 침전지에서 고액분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래에 이 방법의 Flow sheet 와 장단점을 기록한다.

(가)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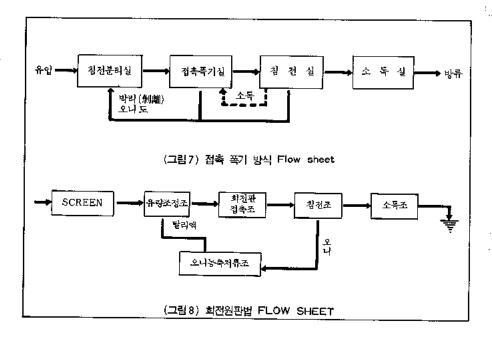
(1) 활성오니법보다 많은 생물성 오니를

보지(保持)할 수 있다(회전원판 표면이 크므로)

- ② 생물막 형성 생물이 다양하며 안정된 생태계를 형성한다. 활성오니법의 오니 중에는 대체로 배가시간(미생물이 2배로 증가소요시간)이 2일 이상의 생물은 들어갈 수 없음에 반하여 생물막에서는 물의 정체시간에 관계없이 중식속도가 작은 생물도 중식가능하며 빈모류 (貧毛類)와 같이 배가시간이 10일 이상인 생물도 생물막중에 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환경조건의 변동(온도등)과 부하 변동에도 강하다.
- ④ 중식속도가 적은 고치영양 레벨의 생물이 생물막에 서식 가능하여 輸虫류, 곤충류, 빈모류 등의 대형생물이 관여하여 식물연쇄가 길어 잉여오나 발생이 적다.
- ⑤ BULKING 등에 의한 오니유출 염려가 없고 오니를 반송할 필요없다.
- ⑥ 생물막 탈락오니는 대체로 침강성이 좋다.

(나) 단점

- ① 여재에 섬유성 고형물이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micro 스크린이 필요하다.
- ② 고부하 조건에서 여재의 폐색 염려가 있다.
- ③ 생물막 탈락시에 미세입자 오니가 발생하면 이를 침전제거하기 어렵다.
- ④ 생성생물막의 양이 설계조건에서 정하여 짐으로 운전조건의 변동에 의한 생물량 조정이 어렵다(설계시 신중한 부하조건 결정이 필요하다).
- (다) 미국 EPA평가 1985년 6월 EPA/600/S2-85/033



미국환경보호국 연구개발 보고에 의하면 기계고장이 갖고 BOD제거율이 설계치보다 높은 등 미국내에서의 회전원판법 사용 처리장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16개 회전원판법 적용처리사설 조사결과는 BOD제거율이 평균 82% 밖에 인되었다— 설계치 85% 제거에 대하여 3% 미달)

(4) 산화지법

유입하수를 펌프로 산화구(접촉조 역할을 하는 비교적 얕은 도랑)로 보낸 후 금속제나 나무로 만든 솔같이 생긴 rotar를 돌려서 공기를 오수중에다 공급하면 오수중의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약3일 전 후면 오수는 깨끗이 된다는 것으로 이는 "화란"에서 개발되고 화란의 많은 배수용 도랑(舊)을 이용하여 오수처리할 목적이었다. 공사비가 대단히 저렴하고 유지관리비, 기술의 필요가 없고 BOD부하변동에 대하여 강하며(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외에서 BOD2,500 ppm이 60ppm으로 떨어지고 옥내에서는 4,800ppm이 6 ppm평균으로까지

하락되었고 폐색, BULKING등 고장염려가 전무한 자연의존형 처라방법이다. 다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익취문제, 한생기온에 대한 대비문제 등에 있어 국내의 경우 적용범위에 대단한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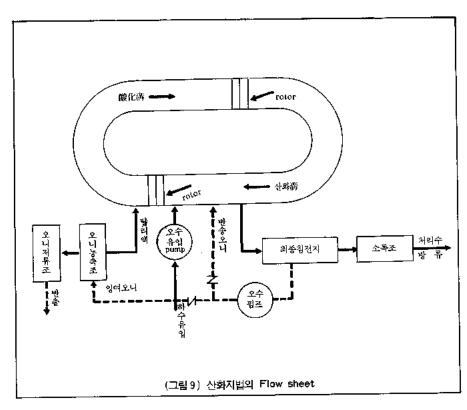


표11 BOD 용적부하 0.1~0.2 kg / m²·d 부근에서 운전한 반회분식활성오니처리의 성적(1969~1977)

()내는 하기기간중의 평균치

용당 / 시 간 225m/3일 1400/20 1400/20 1800/20 50ℓ/10일 50ℓ/20일 50ℓ/50일 40ℓ/24hr 40ℓ/24hr 40ℓ/24hr 폭기 항식 부라시4hr 22KW×2 15KW/2 22KW×2 78 함당 동 과 등 과 등 과 등 과 등 과 등 과 등 과 등 과 등 과 등 과	TH 2020 1	.,	·		 -						
設計 BO D 부처	場 所·施 設		된 장(白杵)	豚舎(栃木)	泰野農場	室内A	室 内B	室 内 C	室 内 D	室内E	室 内 F
용당 / 시 간 225m²/3 월 1400/20 1400/20 1500/20 300/101 300/200 300/101 300/200 500~2000 800~2500 1000~4500 (3400) (3400) (3406) 4000 800 200 1000/1500 500~2000 800~2500 (110 (10) (1770) (2760) (3400) (3406) 4000 800 200 (1200) (1470) (1770) (2760) (3400) (3406) 4000 800 200 1000/1500 500~2000 800~2500 (110 (6) (16) 80 20 50 1000/1500 500~2000 800~2500 (110 (6) (16) 80 20 50 1000/1500 500~2000 800~2500 (110 (6) (16) 80 20 50 1000/1500 500~2000 800~2500 (110 (6) (16) 80 20 50 1000/1500 500~2000 800~2500 (110 (6) (16) 80 20 50 1000/10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770) (110 (6) (16) 80 20 50 1000/100 (1500)	<u></u> 設計 BOD부하	0.17	0.15(0.3)	0.15	0.15	0.2					
폭기 항식 부라시 4 hr 22KW × 2 15KW / 2 22KW × 2 578 입 등 화 등 화 등 화 등 화 등 화 등 화 등 화 등 화 등 화 등	용 량 / 시 간	225㎡ / 3일	1400/20	1400/20	1800/20	50년 /10일	50월 /20일	50년 /50일	40ℓ /24hr	402 /24hr	40½ /24hr
통기 방식 무라시 4 hr 22KW × 2 15KW / 2 22KW × 2 5KW × 2 1hr 점점 연속유업 1 일 1회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동		부라시 4 hr	BSK티-빈	BSK	!	공기흡입 등	동 좌	동 좌	돗 좌	동 좌	동 좌
유입 유출방식 0.5hr유출·업 1.5 hr침전 1hr침전 1hr침전 1000~4500 1000~4600 4000 4000 4000 (1200) 41470 (1770) (2760) (3400) (3046) 4000 800 200 (1470) 4000 (1770) (2760) (3400) (3046) 4000 800 200 (1470) 4000 (1770) (2760) (3400) (3046) 4000 800 200 (1470) 4000 (1770) 4000 (1100) 4000 (1100) 4000 (1100) 4000 (1100) 4000 (1100) 4000 (1100) 4000 (1560) 4000 (110) 4000 (1560) 4000 (1560) 4000 (11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60) 4000 (1500) 4000			22KW × 2	15KW / 2							
유일BODmg/분	유 입·유출방식	1 hr침전	연속유입	1일1회	동 좌	두 좌	 동좌	 동좌	동 좌	동좌	동 좌
유일BOD mg/ℓ (400) (1200) (1470) (1770) (2760) (3400) (3046) 4000 800 200 등 등 등 BOD mg/ℓ (14) (13) (83) (60) (11) (6) (16) 80 20 5 등 등 함 등 장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동 과 등 과 등 과 동 과 동 과 등 과 등		0.5hr유출·입	1.5 hr취전	1 hr침전		0 -1	ļ				
유월BOD mg/ ℓ (400) (1200) (1470) (1770) (2760) (3400) (3046) (30	유입BODing/ℓ	300~500	1000 / 1500	500~2000	800~2500	1000~4500			4000	800	200
유율BOD mg / ℓ (14) (13) (83) (60) (11) (6) (16) 80 20 5		(400)	(1200)	(1470)	(1770)	(2760)	(3400)	(3046)			
유합 O D mg / ℓ (14) (13) (83) (60) (11) (6) (16) (16) (17) (17) (19) (19) (19) (19) (19) (19) (19) (19	유출BODmg/l	10~20	1	8~400	30~140	2 ~75	1~15	ļ.	80	20	5
유럽C O D mg / ℓ 600~700 (1000) (760) (1560) (2570) (3450) (3084) CF 4200 CF 900 OF 270 OF 27		(14)		(83)	(60)	(11)	(6)	(16)		<u> </u>	
유입CODmg/ 년 600~700 (1000) (760) (1560) (2570) (3450) (3084) 10 20 30~10 30~105 33~60 40~130 110 70 20 5~20 150~150 (27) (110) (200) (66) (51) (68) 110 70 20 10~100 190~470 140~640 130~640 300~640 300~640 (393) 260 40 10 10~20 30~170 150~180 9~102 10~60 70~130 154 33 85 16 化/ 脱 稍 +/+ +/+ +/+ +/+ +/+ +/+ +/+ +/+ +/+ +		Cr (740)	1	500~1500	600~3300	600~3700	1400~4300	1400~4000	Cr 4200	Cr 900	Cr 270
유출CODmg/ ℓ 50~150 (27) (110) (200) (66) (51) (68) 110 70 20	유입CODmg/#	600~700		(760)	(1560)	(2570)	(3450)	(3084)			
유출COD mg / ℓ 50~150 (27) (110) (200) (66)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68) (51) (51) (51) (51) (51) (51) (51) (51		Cr (115)	20~30	40~300	150~310	30~105	33~60		110	70	20
유입T - N mg / ℓ (79) 300 (235) (311) (366) (314) (393) 260 40 10 (79) (79) 300 (235) (311) (366) (314) (393) 260 40 10 (70) (48) (29) (114) (154 33 85 (170) (14) (154 (14) (154 (15) (15) (15) (15) (15) (15) (15) (16) (170) (18) (19) (114) (19) (114) (19) (19) (19) (19) (19) (19) (19) (19	유출CODmg/ℓ	50~150	(27)	(110)	(200)	(66)	(51)	-			ļ.
유입T - N mg / l (79)	유입T - N mg/ &	60~90	300	100~1100	190~470	140~640	130~640		260	40	10
유출T - N mg / l (5) (12) (68) (170) (48) (29) (114) [54] 33 85 (170) (48) (29) (114) [54] 33 85 (170) (48) (29) (114) [54] 33 85 (170) (48) (29) (114) [54] 33 85 (170) (170) (48) (29) (114) [54] 33 85 (170) (170) (180) (1		(79)		(235)	(311)	(366)	(314)	(393)			<u> </u>
유물T-N mg/ l (5) (12) (68) (170) (48) (29) (114) (114) (114) (114) (115) (114) (115) (114) (115) (114) (115	유출T — N mg/l	<10	10~20	30~170	150~180	9~102	10~60	1	154	33	85
硝 化 / 脱 硝		(5)	(12)	(68)	(170)	(48)				<u> </u>	ļ —— ,—
対象水備考 豆煮汁他 돼지분뇨 돼지분뇨 등좌 등좌 등좌 등좌 당지분유 보지하수 된장배수 약100분/두 약40분/두 돈사배수 동좌 동좌 +(NH4)2CO2 BATA 기가 1969 5~9원 1973년부터가동 1974부터 1975 9원부터 1974 .5-12월 동좌 동좌 동좌 동좌 동좌	硝 化/脱 硝	+/+	+/+	+/+	+/+	+/+	+/+	+/±	<u> </u>	<u>-/-</u>	-/-
지 家 사 幅 考 도시하수 된장배수 약100ℓ/두 약40ℓ/두 돈사배수 + (NH ₄)2U ₅ + (NH ₄)			豆煮汁他	돼지분뇨	돼지분뇨	!	동좌 동좌	· 동좌		동좌	동 좌
DATA 기가 1969 5~ 0원 1375면구터/76 1374 구비 1370 JE 기가 이 쓰는 동좌 동좌 동좌 동좌 동좌 동좌 동좌 동	対象水備考		된장배수	약100년 /두	약40년 /두	돈사배수			 	<u> </u>	ļ
1D A TP A 71 /F 1 10 GU 15 GU 15 T	DATA 기간	1969. 5~ 9월	1973년부터가	1974 부터	1975 9월부터	1974 . 5-12월	두 좌	동좌	1973. 10	 동좌	동 좌
			1977. 10 試験	1974~76	75, 9~76. 1	<u> </u>			<u> </u>		<u> </u>

COD는 Cr로 표시한 것이 K₂Cr₂O,법 나머지는 전부 KMn O₄법 원수의 T-N는 대부분 캐-르달시, 차리수는 NO₂-N이 주.

좌절의 원인

Words of Words

Things to discourage Students

by Chung, Hee Kyung

정희경 / 현대고교 교장



●서울대사대교육과 종 (1955) · 미국노던대학교 육학박사 (1975) · 성균관 대문리대부교수 (1966) -서울사대조교수 (1970) · 이화여고교장 (1971) - 미

버클리대객원교수 (1982) · 한국방룡대연구 교수 (1984) · 현대고등학교교장(1985)

작년에 새롭게 문을 연 고등학교 학교장의 책임을 맡으면서, 새롭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근 900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가진 입학식 겸 개교식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앞으로 3년동안의 고교생활을 위하여 모인 학생들에게 당부한 나의 소원은 매우 다수 했다. 3년후에 한 사람의, 단 한사람의 낙오자없이 고스란히 졸업식을 가지자는 것이었다. 크고 작은 곤경이 있어도,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러도, 젊은 날의 곤경이나 실수는 그것을 극복해 이길 때에는 더욱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정전하자고 그래서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나와선 인된다고 정성껏 타일렀다. 지난 해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세명이

탈락되었다

한 아이는 부모님을 여의고 누이와 형과 셋이서 시는 아이었는데, 누이의 생활에 . 난조가 일어나자 다툼이 많아졌고, 누이 덕에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지퇴를 고집했다. 형은 이미 탈선해 나간지 오래 였고, 누이는 집안살림을 꾸려나가다 비정상적인 생활에 젖어 있었다. 아무리 타일러도 학교에 머물지 않고 그 아이는 학교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 후에 소식이 없다.

또 한 아이는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주벽이 심했고, 학교등록비로 친구들이 모아서 도와준. 돈까지 빼앗아 써버린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는 이들을 시골로 데려간다고 굳이 이들을 학교에서 자퇴시켰다. 말릴 수 없는 지퇴였다. 그리고 그후엔 소식이 없다. 세째 이이 역시 자퇴를 간청해 왔다. 계속 되는 기출과 무단결석으로 온 집안식구가 서너달을 애쓰더니 어느날 그 아버지는 지퇴를 간청해 왔다. 그에 대해서도 역시 속수무책으로, 떠나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경우였다. 이렇게 자퇴를 고집하는 학생의 경우 공통된 점은 학업성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밀어 붙이는 학업성취의 회오리 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훌훌 떠나 버리는데 학교는 이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시실 오늘날 고등학교는 지난날처럼 입부 선택된 청소년에게 베풀어지는 교육기회가 아닌 매우 보편화된, 말하지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교육기회로 확산 되었는데,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규범은

조금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욱 더 선발적이고 경쟁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가치없이 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 점수가 매겨지고 석차가 정해지고 그 석치를 공표하는 경우까지 적지 않으니, 성적을 올릴 수 없는 그 수 많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생활이 건디기 힘든 수모로 경험되는 것이다. 그런 풍조속에서 불안 억울. 인타까움 그리고 자포자기등의 불건전한 심리는 학교문화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한단할 노릇이고 두려운 현상이다. 지난 해 적지 않게 말썽을 부리던 몇 아이들을 부모와 상담하고 의논하면서 타일러 올해들어 제법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꼈었다. 그러던 그 아이들이 얼마전 저녁하교길에 술을 마시며 기어하는 파출소에 끌려기는 불상시를 일으켰다. 예측못할 청소년의 마음이라고 뗩떠름하고 속은 것 같은 생각에 노여움마저 부글거렀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중간시험성적이 발표된 날이었다. 점수, 석차를 이무리 살펴보이도 고교생활에 한가닥 정을 붙이기 힘들었던 이 이이들이, 그래도 주위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에서 새학년을 맞아 새로운 재미를 찾으려 했는데, 사정없이 맞부닥친 중간시험성적 결과는 이 아이들에게서 또다시 모든 자존심과 의미와 목적을 앗아가지 않았겠나--나는 그렇게 생각되어 그저 딱하기만 했다. 울화난다고 술마시는 어른들을 닮은 이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로되 정말 우리 어른들, 교사, 부모, 사회는 이들에게 할것을 했느냐를 심각히 자문해야 할 것같다. 따내는 점수, 차지할 석차 따위만이 아니라. 좀더 지부심을 가지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지랑스러운, 긍정적이고 건실적인 지지의 몫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통로는 정말 이땅에서는 불가능할까. 점수, 석차따위가 지나는 그 〈위대〉한 마력에 견줄, 다른 〈위대함〉을 우리의 지녀 우리의 학생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해줄 위대한 포용력을 갖추지 않고선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에 대비하기 어렵겠다고 스스로 뉘우친다. 그리고 헌없이 인타깝기만 하다.

'86회원건축설계 작품전시회 출품작 공모

본협회에서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 아래 매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86년도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전시회가 우리나라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회원으로부터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출품요령

1983년부터 1986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패널에 게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 작품. 면·설계개요·인물사진을 8월 30

●패널제작 방법

- 1. 패널크기 / 90cm×90cm (가로×세로)
- 2. 제작요령 / 패널에 개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유리, 스치로폴 등 충 격에 약한 재료 사용 금함),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 3. 패널수량
 1작품당 3개 이내
- 4. 공통사항

우축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출품마감

-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계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도 면·설계개요·인물사진을 8월 30일까지 제출(작 품명, 사무소명·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2. 패널은 9월 20일까지 제출.

●시상내용

대 상(1) 건설부장관상 최우수상(1) 협회장상 우 수 상(2) 협회장상 장 려 상(6) 협회장상

●기타 유의사항

- 1.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 2. 논문부문 시상대상은 회지에 계재된 회원집필논 문에 한함.
- 제출처 및 문의처
 본혐회 출판사업부, 기술부
 (581-5711~4)
- ※ 패널제작시 패널에 부착하는 사진은 지방순회전시 도중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할 것.
- ※ 작품집 제작에 쓰이는 자료는 작품집 발간후 반환하며 필히 흑백으로 제출할 것.

미국 건축사협회총회 참관기

REPORT

The '86 National Convention of the AIA

by Kim, Chi Tok

1986년 6월 8일부터 6월12일까지 개최됐던 미국건축사협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출발 미국 택시스주 산안토니오에 도착한 것은 6월 7일 저녁 늦게였다.

이곳의 공항에서 부터 시중심기에 이르는 동안 이 도시의 분위기가 다른 미국 도시와는 달리 좀 색다른 건물풍과 습관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유럽 스페인 북부지방에 온것이나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색다르게 느껴졌고 여성들의 옷에서도, 식당에서 일하는 여급들의 언어에서도 역시 스페인어의 엑센트가 강하게 느껴졌다.

1718~1731년사이 스페인 정부의 선교 본부로서 잠정적 본거지로 정해진 것이 인연이 되어 멕시코, 그리스, 고대 프랑스풍의 다양한 건물이 있게 된 것 같았다.

고돈스 빌딩(Gordon's Building) 같은

건물은 강한 색채의 빅토리아식 건물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이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듯 했다. 그리스풍의 건물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였다. 나중에 도시를 보고 안 일이지만 학교건물은 전부 고딕식 건축의 부흥형태(Gothic Revival Style)로 많이 지어져 있어 이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듯 했다. 도착 직후 AI A 총회 본부에 한국대표의 도착을 알리는 서면 참석자 명단에 등록을 했다. 콤퓨터에 입력되자마자 (Seoul Korea CHI Tok Kim) 이라고 쓴 팻말을 준다. 그리고 1986년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Nation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책자를 받았다. 1986년도 건축사회장 존. A. 버스비(John A. Bussby)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이 회의가 건축직업인으로서의 중요한 전문지식에 보탬이 되며 여러분의 숙련된 기술훈련에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는 말로써 참석자를 환영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이 총회를 통해서 골목할만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식의 개발, 연구강습회를 통한 토론과 실습, 개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정부. 대협회 등의 자문, 그리고 320가지의 새로운 건축자재 품목의 자재 전시와 그 사용 기술의 취득 등을 통해 발전하는 세계의 건축기술계와 강력히 요구되는 경쟁사회에의 참여로 좋은 건축물이라는 공공요구시항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배양에 크게 이바지 허리라고 생각된다)고 총회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AIA 총회에 처음 참석한 필자로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AIA의 목적 부터가 우리 한국협회와 비교할 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듯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문은 미국 건축사 협회의 활동이 협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재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음을 회의가 끝난후 역력하게 알게 됨으로써 해소되었다.

택시스주의 산 인토니오(San Antonio) 국제회의장 주변에는 5 분이면 닿을 거리에 크로켓 호텔(Crocett Hotel), 포 시즌즈 호텔(Four Seasons Hotel), 힐튼 호텔(Hilton Hotel), 하야트 리젠시 호텔(Hyatt Regency Hotel), 라맨숀호텔 (La Mansion Hotel) 등 5개의 호텔이 총 7,500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 회의장으로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곳이 기도 하였다.

10분 거리의 호텔에 라킨타(La Quinta), 마리오트(Marriott), 멩젤(Menger), 세인트 앤토니(St. Anthony) 등까지 합하면 대단한 수의 국제적 인사를 수용할 수 있어 어머어마한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곳이기도 하였다.

회의장 안에는 〈1986 AIA EXHIBIT of New Products & Technology〉라고 쓴 대형 선전 깃발이 참가자의 시선을 가장 잘 끄는 회의실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각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신자재 및 콤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1시간 정도의 세미나가 번같아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1986년 6월8일 일요일

오늘의 AIA 행시표를 보니까 다음과 같았다.

모두가 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이였다.

Sunday, June 8

마케팅(Marketing)전략, 맨네이징

김지덕 / 유신건축사시무소

(Manging) 전략, 콤퓨터 기술의 이용등 모두가 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이였다. 오늘은 PD 14A의 콤퓨터 기술반(Computer Technology Class)의 〈 What is New, What is Next Semina〉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20 %을 내고 참석표를 구매했다. 역시 미국건축시협회 답게 모두 돈을 내고 잔치에 참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 경청하는듯 했다.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는 콤퓨터의 소프트웨어(soft ware) 이용과 앞으로 어떠한 추세로 이용이 될 것이고, 현재의 문제점, 이용자로서 발전의 예상 등등 낱낱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부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미국 사회의 일면을 읽는 듯했다.

~1986년 6월9일 월요일

오늘의 Schedule이다.

Monday, June 9

Professional Development Consultations 7.15-8 15 A.M. \$25 Strategic Marketing Planning CO1 \$25 After CAD/D -- What? C02A \$25 The Intelligent Building Architectural CQ3 Considerations \$25 Strategic Business Planning \$25 Developing a Mentor Relationship CQ5 COSA S25 Managing Risk 12:10-1:10 P.M \$25 After CAD/D--What? C058 575 Strategic Business Planning C048 \$25 Marketing Consultation: Small Firms CO7A \$25 Visual Information Systems COBA CO9A S25 PC CAD/D 1:20:2:20 P.M. CO6C S25 Managing Risk s25 Marketing Consultation, Medium Firms C10A 425 Gelting Published C11A \$25 Daylighting Design Q & A C12 S25 A Survey of Outdoor Sculpture: C13 200 Good Examples C14A 🔲 \$25 Development as a Career Option 5:15-6:15 P.M \$25 Visual Information Systems
\$25 PC CAD/D C086 C09B \$25 Development as a Career Option C14B 325 Finding, Choosing and Installing C15A Outdoor Sculpture C16 S25 Finding Early Leads
C17A S25 Design Communications \$25 Finding Early Leads San Antonio Case Study 2:30-5 P.M SA01 Sa0 The Entrepreneurial City Professional Development Seminars 2:30-5 P.M. PD12B - \$20 Economic Forecasting and Strategic **Business Planning** PD 13B 🔲 😘 \$20 Managing Risk: Logical Approaches to Reducing Liability PD148 🔲 \$20 Computer Technology: What's New. What's Next PD16 S20 Indoor Air Quality
PD17 S20 Getting in the Door Early
PD18 S20 The Insland Outs of Interiors

오늘은 이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전문용역설계건축시를 위한 세미나 및 개발 혐의(Consultation)를 위한 강의가 많이 있었다.

350여가지 새로운 건축자재 개발품을 전시하고 품목별 제품에 관한 세미나도 Theater 1 & 2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특별히 콤퓨터에 관심이 있는 필자는 CAD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활발하 개발해서 건축평면, 입면, 단면, 구조계산, 구조작도, 견적, 투시도 작성 까지 하는 Prelim Computer Program 회사와 James River Corporation의 장비 (Equipment)와 프로그램에 대해 엄청난 흥미를 갖고 경청했었다. 천연색으로 인쇄해서 의료자에게(Client) 짧은 시간 내에 도면을 완성하여 주는 그들의 기술 (Lechnical device)에 찬사를 보냈다. Lotus 1-2-3 이용 건축기들이 항시 골치이프게 느끼는 여러가지 단계를 신속히 처리하는 Ener Calc 회사의 소프트웨어도 나의 흥미거리로 오래도록 발걸음이 멈춰졌던 곳이다. 미국 건축설계 시무실에서의 CAD 시스템 이용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단계로까지 와 있음을 느꼈다. AIA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세미나를

AIA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도 그 이용이 어느 정도 인기를 알 수 있는 듯했다. 이분들의 행시에는 스위트 카타로그(Sweet Cataloge) 회사, 연방정부, 해군성, 공군성, C.E.E. 등의 유관기관에서 전부 참석해서 총회를 빛내 주고 있었다.

1988년 6월10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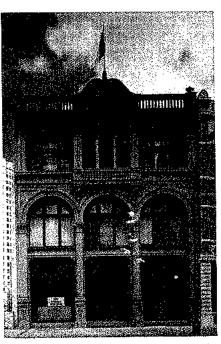
AIA총회의 스케줄

Tuesday, June 10

Professional Development Consultations 7: 15-8: 15 A.M. \$25 The Intelligent Building Wiring Systems
\$25 Marketing Consultation Large Firms C1B C19A \$25 Merketing Constitution 12 Section 25 Setting Above 1:1 With PC CAD/D
\$25 Residential Energy Design Q & A
\$25 AIA Documents Q & A
\$25 Planning Your Early Career C20A C21 C22A C23 Development 12:10-1:10 P.M C10B 🔲 \$25 Marketing Consultation: Medium Firms C11B \$25 Getting Published \$25 AIA Documents Q & A \$25 Energy Analysis on Microcomputers \$25 Energy as a Formgiver C25 🗍 \$25 Architectural Applications for Lotus 1:20-2:20 P.M S26 Design Communications
S25 Marketing Consultation:Large Firms
S26 Making the Most of Getting Published C17B C19B C27A \$25 A File Management System for PC-C28 Based CAD/D \$25 Energy in Redesign Q & A Ç29 \$25 Energy in Redesign Q & A
\$25 Building Systems Integration C30 5:15-6:15 P. M. C15B 🔲 \$25 Finding, Choosing and Installing

Outdoor Sculp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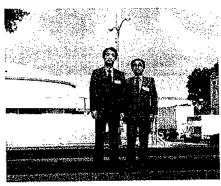
C20B S25 Getting Above 1:1 With PC CAD/D



산 안토니오에 있는 빅토리안 풍의 Staacke Bro's 건물(1884년)



산 안토니오 시가에 있는 던벨린 빌딩, 불란서 풍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회 건물



본협회 국제위원 박규영씨와 필자(우축)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 시내 충심가에 있는 국제회의 장 앞에서 본협회 국제위원 박규영씨와 필자(우측)

C43		\$25 Technical Resources for Paints and
C44		Finishes \$25 Specifying Glass Block
Profess 3:55-5		Il Interest Programs
PI03		\$12 Long-Term Shelter Design
2:30-5 PI04	P.M.	\$20 The 1986 AIA Honor Awards
San Ar 2:30-5		Case Study
SA03		\$20 The Austin-San Anlonio Corridor
Profess 2:30-5		Development Seminars
2024A PD25 PD26	_	\$20 CAD/D Implementation \$20 Closing the Deal (Not the Door) \$20 Mergers and Acquisitions
PD27	LJ	\$20 How to Develop and Integrate Promotional Materials for Design Firms
2:30-3:		
PD21B	Ц	\$12 Architectural Problem Solving Using

Lotus 1-2-3

오늘은 오후 3시부터 회의주최 지역지부 (Host chapter)인 텍시스 건축사 지부의 초청으로 라빌리타(La Villita) 에서 참석건축사 전부와의 연회가 있었다. 가족을 동반하고 많이 참석한 이곳 미국 건축시들은 낮에 총회에 참석하는 남편들과는 달리 산 안토니오 시가의 관광과 텍사스에서 멀리 멕시코 국경지대의 관광, 오스틴(Austin) 의 개척시대 당시의 건축물 관광 등 그들 나름대로의 일정을 갖고 즐기고 있었다. 4천5백명이라는 엄청난 손님을 치루는 총회주최 지부(Host chapter) 답제 50\$을 내고 표를 구입한 모든 참석 건축사들은 그들의 부인과 친지들과 함께 연회 장소에 모여서 바베큐, 그리고 푸짐한 음식과 선물, 음악에 맞춰서 춤을, 노래를, 그리고 우정있는 대화로 맘껏 즐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주로 학교의 동창생들끼리 모여서 오랜 대화의 시간들을 갖기도 했다. 디스코를 추는 그들의 연회는 생동감 넘쳐 잠시의 여행에 많은 회망과 여유와 생기를 회복시켜 주는듯 했다. 1시가 넘도록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연회를 즐겼다. 술이 없으면 연실 퍼 주고 마시란다. 이렇게 그들은 다양한 그네들의 의사를 좁혀 가는 듯했다. 키가 작은 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연신 묻는다. 한국의 건축사라고 답변했더니 멀리서 온 우리를 환영한다면서 많은 질문들을 했다. 남한과 북한의 현재 상황 국민들의 생활상, 학생대모, 현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임도 등등… 재미있게 보낸 연회였다.

1986년 6월12일 AIA 총회의 일정 오늘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았다.

Thursday, June 12

National Workshops 8: 30A.M.-5P.M. P001B [\$175 Liability: Prevention and Protection PD05B 175 How to Design and Conduct Winning PD30 S175 Improving Personal Productivity Professional Development Seminars 9: 30A.M.-Noon PD22B | \$20 PD24B | \$20 Managing Profitability CAD/D Implementation PD28 🗍 \$20 Planning and Preparing for Presentations PD29 🗆 \$20 How to Determine the Value of an Architectural Practice

PD28의 (Planning & Preparing for Presentation》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들은 역시 건축을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이고 선진국임을 느끼게 된다. 토론과 미국의 실태, 유경험자의 표현, 기존 건축시들의 질문… 모두가 미국 교육이 낳은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역시 건축은 다른 어떠한 예술보다도 우리 삶과 매일 접하고 있으며, 그인에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놀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전을 지켜 주기도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도와 주기도 한다. 특히 건축사에 의해 설계되는 건축물은 그 형태와 조형의 아름다움에 의해 우리의 생활환경을 미화시켜 준다. 더 좋은 세계를 창조해 주기도 하며, 기능과 매력과 멋을 더해 인간의 삶을 풍요하고 즐겁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높여 주기도 한다. 이런 의미의 전문용역인을 지도하고 이끌며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건축사 협회의 활동이 부럽기만 하다. 현재 4천4백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미국 건축사 협회는 (AIA) 처음 옥타곤 (the octagon) 이라 불리는 작은 집에서 출발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위성톤의 우이한 현대식 건축물에 본부를 차리고 전미국 건축사의 자질 항상을 위해 봉사하고 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AIA는 좋은 설계의 창작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AIA Honor Awards〉라는 명예 시상제도를 운용, 우수한 건축시를 표창하고 있으며 전문용역인들로 하여금 더 좋은 작품으로 의욕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회에 많은 기여를 했던 건축가를 찾아 내서 상을 주고 있는데 대해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연의

활동을 AIA는 이렇게 설명한다. 〈좋은 작품은 세계를 이름답게 하며 타지역 개발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주의 지역 건축사로 하여금 그들의 자원에 의겨 🦠 더 좋은 작품을 지향하도록 항시 앞장서계 한다. 이런 이념은 개발을 요구하는 모든 지역사회의 개발에 좋은 교훈이 되며 그들의 계획(project)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AIA는 국가와 지역 행정지도자들에게도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지역의 행정관에게 뉴스 매체(News Media) 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그들은 건축과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인이 있을 때는 서숨치 않고 텔레비젼이나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을 던지기도 한다. 이런 연고로 AIA 회원은 많은 자부심과 용기를 갖고 AIA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다.

AIA는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

AIA는 대정부와의 교섭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자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문제도 건축환경을 해치는 어떤 환경문제는 건축가의 관심을 갖는 일이라면 무엇이는 대중과 함께 토론하고 그 해결점을 구한다. 언제나 전문가의 의견과 공공복리의 중잔을 위해 투쟁한다. AIA는 항시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토지의효율적 아용에 대해 의회를 충고하고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보존에도 큰 역할을 한다.

AIA는 모든 국민계층에게 품위에 알맞는 주백을 제공하는데 선봉이 된다. 언제나 역사적 유물의 보존에도 크게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신·구건물에 대한 좋은 재인을 정부에 하기도 하고 에너지 보존, 신설계(新設計) 방식의 소개, 역사보존 등에 앞장서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 창조에 큰 역할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새로운 교육에 앞장서서 일하는 그들은 많은 양의 전문서적 출판, 신공법의 인내, 정확한 계약 문서의 성안, 배포, 건축설계 및 그 기술에 대한 보존과 문헌의 제작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부러운 일이 이날 수 없었다.

그들은 1987년 건축사 회의를 오를란도 (Orlando) FL에서 6월19일 부터 22일까지 갖게 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1986년도 회의를 종료했다.

Ç26 B		\$25 Architectural Applications for Lotus
C31 C32 C33A		\$25 New Clien Relationships \$25 Energy Design Strategies
Profes	sion	al Interest Programs
<i>3:55-8</i> PI02		W. \$12 Emergency and Special/Transitional Shelter Design
San A	Anton	nio Case Study
2:30-		
\$A02	Ш	\$20 The San Artonio River
		al Development Seminars
2:30-		
		\$12 AlA Documents Overview \$12 Architectural Problem Soyling Using
FDZI		Lotus 1-2-3
2:30-	5 P. A	И.
PD10		\$20 The Asbestos lessue
PD19	Ö	
		Relationships: The Mandeville
	_	Techniques
PD22	Α□	\$20 Managing Profitability

PD23 🔲 \$12 Design/Build Documents

3:55-5 P. M

오늘은 산 안토니오(San Antonio)
시청에서 산 안토니오 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축가들, 도시계획가들이 노력했던 경험
실례를 듣기로 했다. 학부모로부터 도시
전체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 강을 보호하고 지켜은 그들의
개척자 정신에 또한번 찬사를 보냈다.
20여년간의 긴 노력끝에 그들은 지금의
멋진 산 안토니오 시내의 풍경을 탄생시킨
것이다.

저녁에는 AIA 회장인 존 버스비(Mr. John A Busay) 회장의 초청 만찬회에 초대를 받았다. 하아트 호텔의 특별 연회 장소에 박규영 위원과 함께 갔다. 그곳에서 특히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오응석회장과 친분이 있는 루이스 머리엥스(Mr. Louis L. Mariens)싸와 우리 건축사 활동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상근부회장으로 있는 그분은 자기들 총회에 와줘서 고맙다고 인서했으며 오회장과 그외 한국건축사협회의 임직원과 모든 건축사 에게 안부를 전했다.

이날은 러시아의 미카일 포소코(Mr. Mikhail U. Posokhin) 이 참석해서 이채를 띠었는데 그와도 여러가지 러시아 건축사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고 우리 건축사 활동에 대한 담을 주기도 했다. 포소코은 USSR의 건축사 회원이고 소련 최고회의 상임건축사 간부회 의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미국의 건축사와 소련의 건축사, 한국의 건축사, 남미의 여러나라 건축사, 특히 피부색이 검은 이프리카의 10여개국 건축사들과 관심대상들에 관하여 서로 주고 받고 했으며 좋은 칵테일 파티였다고 생각되었다.

역시 미국인답게 외국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외교적인 인시를 하게 하는 것이 멋이 있었다. 5시간의 멋진 칵테일중에서 많은 외국건축가들과 그들의 관심시에 대한 것, 우리의 관심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숙소에 오니까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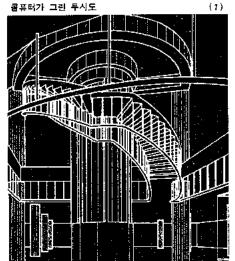
1986년 6월11일 수요일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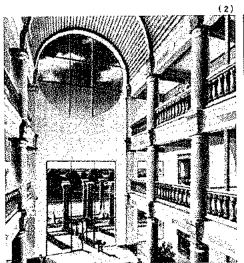
Wednesday, June 11

Professional Development Consultations				
7,15-B:15 A.M.				
C07B		\$25 Marketing Consultation, Small Firms		
C33 B		\$25 Design/Build Documents		
234		\$25 The Intelligent Building: Building		
		Management and Shared Tenant		
		Services		
C35A		\$25 Implementing CAD/D Systems		
036		\$25 Mergers and Acquisitions		
237A		\$25 Computer-Based Encility Programming		
		and Management		
12:10-1	:10 P	EM.		
C26C		\$25 Architectural Applications for Lotus		
		1-2-3		
C27B		\$25 Making the Most of Getting Published		
C35B		\$25 Implementing CAD/D Systems		
C36		s25 Conducting Winning Presentations		
C39A		\$25 Liability: Prevention and Protection		
C40		\$25 Determining the Value of Your Firm		
1:20-2:20 P.M.				
Ç37B		\$25 Computer-Based Facility Programming		
		and Management		
C39B		\$25 Liability, Prevention and Protection		
C41		\$25 Closing the Deal		
C42		\$25 Getting Involved in Women's and		
		Minority Small-Business emerprise		
		Designate		



AIA 회의장년, 그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 잘되고 잘못된 것, 앞으로의 해결 방식에 대한 결론을 찾는다.







북경기행(IV)



TRAVELS

Trip to Beijing

by Choi, Chang Kyu

11월 8일

하늘엔 구름이 끼고 찌푸린 날씨였다. 옛날부터 "북경의 가을"이라 하면 날씨가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가을날씨가 약 15일정도는 세계에서 제일 기막힌 가을이라고 해서 구라파동지에서 여행을 을 정도였다. 펄벅여사의 "北京好日"이란 소설도 있을 정도이다. 하늘 색, 구름, 온도, 습도 모두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날씨의 연속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급강하하는 변덕을 부린다. 오늘은 그 변덕스러운 날씨인 것만 같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오늘 아침 갑자기 바람이 불고 우수수 나뭇잎이 휘날리고 영하 6도로 급강하했으니 말이다.

우리 일행은 호텔 현관 앞에 얼음이 언 것을 보았고 어느새 호텔 중업원들도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도 몹시 추워서 매점에 가서 목도리, 털모지를 샀고 짐에서 바바라 코트를 꺼내 입었다.

조반후 전원 현관 앞에 모여서 차를 탔다. 오늘은 견학할 곳이 많아 서둘러야 했다. 북경 거리는 어제와는 딴판으로 스산했고 행인들이 몸을 쫑그리고 걷고 있었다. 간판들이 얼그럭거렸고 먼지나 종이조각 들이 뒹굴고 있었다.

우리차는 북경교외 서북쪽에 있는 香山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청조나 명조 때에는 천자의 사냥터였다고 하며 자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 산록엔 고목이 우거져 있는 이름다운 산이다. 해발 1,000m의 고령으로 산정까지에는 "케이블리프트"(스키장 승강기와 같다)가 있다. 우리 일행이 이곳을 찾은 것은 미국의 저명한 중국계 건축가인 I.M. Pey가 설계한 香山호텔이 준공된 지 얼마인되고 건축잡지에서 이미 본 바 있어 모두가 실물을 보지는 데 있었다.

중공 건설관계자들은 정부의 전방위개방 정책에 의해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아짐에 따라 서구식 호화호텔을 건축하는데 같은 값이면 자국 출신인 I.M. Pey씨를 정했고 속으로는 현재 북경에서 이파트나 사무실 건물들이 고충으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I.M. Pey 라면 초고층의 세계적인 호텔을 설계할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던 것인데 I, M, Pey는 구릉대지에 나즈막한 3층으로 흑색과 백색의 두가지 색으로 아늑한 중국 냄새가 나는 호텔을 설계해서 중국 당국자들의 허를 찌르며 호텔이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다. 과연 Pey는 Pey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Pey쯤 되면 무식한 정치가들의 회망을 무언으로 설득시킨 셈이 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창의 외양이나 색채, 내정(内庭)의 분위기 등이 서구식 건물이면서도 이것은 중국건축이다 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건물이었다. 특히 정문의 간소함이나 중앙 로비의 큰 유리창 밖에 보이는 후원의 중국적인 경치를 십분 유도한 수법 등 기가 막힌 솜씨라고

최청규 / 건축사사무소 신진 생각했다

우리 일행은 잡지에서 보던 건물을 직접 보고 더욱 놀랐다. 건물을 몇번이나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특별히 요청해서 객실 내부도 구경했다. 이 호텔은 주로 외국인 전용으로 초고급관 리외의 내국인은 투숙할 수 없다고 들었다. 2층 식당에서 점심을 중국요리로 하기로 했다. 아까부터 통역 한 여사는 "우리도 이런 호텔이 있다"라는 자랑스런 표정이고 우리 일행들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니 더욱 그러한 것만 같았다. 식당의 식기와 수저에도 좀!!호텔의 따크가 들어있는 것이고 식탁도 고급이면서도 간소한 것이였다. 나는 식사가 끝나고 도제스푼과 작은 접시 한개씩을 슬쩍 가방에 넣었다. 이것을 훔칠 기분이어서가 아니고 ~ 여행자들은 기끔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한다. 나도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런 짓을 많이 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책상 위에도 그 접시에 커피잔이 놓여져 있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식사 후 각자가 자유시간으로 하고 매점이나 건물시잔을 찍기로 했다. 나는 그동안 미칠듯이 즐기는 커피다운 커피를 못 마셔서 목이 근질근질할 정도이어서 커피숍에 달려가서 단번에 커피 세잔을 한꺼번에 마셨더니 여종업원이 놀라면서 "손님은 커피를 이주 즐기시네요"한다. "북정에 온지 10일이 지나도록 커피다운 커피를 못 마셨다가 이곳 커피가 이주 맛있어서 그런거요" 그 종업원은 깔깔 웃으면서 "그래도 커피를 물 마시듯 하다니요. 하기야 여기는 진짜이니까요" 한다.

일행은 모두 약속한 시간에 현관에 모였다. 이제부터 香山공원으로 가서 정사으로 올라보려는 것이다. 모두들 멋있는 건물을 충분히 보고 기분들이 몹시 좋았지만 날씨는 추웠고 바람도 일고 있다. 11명이 표를 사서 등산 lift를 탔다. 엉성한 장치인데 불안했지만 한대에 두명씩 탑숭했다. 원래 날씨가 좋으면 산정에서는 북경 시가지가 멀리 보이고 공원내의 탑이나 기타 유적이나 건물들이 잘 보이는데 오늘은 구름이 끼고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산정에 올라 기보니 제법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산정에는 별로 시설도 없고 시진사들이 전국시대(전쟁시대)의 무장들의 옷과 가면과 칼. 창을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라고 졸라댄다. 일행중 몇사람이 용해서 관우나 장비가 되어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일행은 볼 것도 없고 또 추워서 하산기로 했으나 하행객의 열이 3 백때나 길어서 2 시간도 더 기다려야 할 판이다. 특히 연로한 몇시람은 새피래서 민당할 정도였다. 나는 운전사 장씨를 데리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소장을 찾아서 교섭을 했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국제회의에 왔다가 가는 길인데 저녁에도 모임이 있어 빨리 하산해이겠다. 하산표의 2 배를 내겠다. 연로자가 있다. 여기 장씨에게 물어 보라. 등등 장광설을 늘어 놓고는 장씨에게 눈짓을 했더니 이 친구도 능청맞게 죽을 맞추어 준다. 솔담배 한감과 껌 몇개를 주고선 시정을 했더니 OK다. 소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 일행 11명을 데리고 승강구에 나와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니 시람들은 불평없이 순순히 응해 주었다. 덕분에 우린 곧 하산할 수가 있었다. 하산하고 나니 산정보다는 바람도 약하고 덜 추웠다. 모두는 덜덜 떨면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자고 했다. 나는 운전사 장씨에게 모두가 오한이 나니 大浴池 (따유치 -)로 안내하라고 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중국 공중목욕탕이다. 당지, 분탕이라고 한다. 원래 중국인들은 목욕을 인하는 민족이나 1년에 2. 3회하기는 하지만 이때 온종일 껍데기를 벗겨버릴 정도로 한다.

차가 욕탕 앞에 서자 모두들 "여기가 어디냐?" 하면서 묻기에 설명을 했더니 환성이 나오고 뛰어 내렸다. 남부 여부라고 입구에 써 있다. 나는 11명의 표를 살려고 매표구에 가서 표를 사고 모두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안에서 "와" 하는 비명소리가 났다. 뒤에서 한여시가 다급하게 "최선생! 그곳은 여탕이예요" 한다. 남부라고 쓰고 화살표를 해 놓은 것을 못보고 그냥 문을 열어젖힌 것이 여부였다. 우측으로 돌아 남부로 들어갔다.

각자에게 침대가 배분되고 벗은 옷들은 종업원이 긴 장대 끝에 달아서 천정 높은 곳의 못에 걸어 준다. 탕내에는 김이 서려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욕조가 여러개 있는데 미지근한데서 부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것 까지 있다.

장시간 추위에 떨고 있었으므로 옥조 내에

들어가니 실것만 같다. 그래도 북경에 와서 중국목욕도 해보다니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나와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손톱, 발톱, 귀소제, 차, 음식도 다 시킬 수 있다. 그때마다 대까치 조각을 탁자 위에 놓고 간다. 나올 때는 그 대까치를 모아서 계산을 하게 된다. 일행은 나오다가 이발부에 들려 모두가 이발까지 하고 기분이 좋아서 성골벙글 했다. 날씨마저도 약간 풀려서 더욱 그러했다.

일했의 차가 북경시내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서산에 지고 감감할 때였다. 일행은 북경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북경의 지하철은 건설한 지 얼마 안되고 현재 운행하는 전장이 24km 밖에 되지 않고 역도 12개소 뿐이다. 도시면적이 광대한 이 도시에 지하철어 이것밖에 안된다면 의야한 일이지만 전번에 말한대로 이곳의 대중대량 교통은 자전거이므로 지하철의 절실성이 회박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역이나 대합실 은 제법 대리석으로 마감했지만 전등이 캄캄했다. 역마다 입구에는 큰 그림이 그려 붙여 있는데 대개가 건국의 인물들의 그림이다. 어쩐지 그 구도면에서는 촌스러워 보였다. 여하간 1구간을 타보기로 했다. 중국인 승객들이 우리 일행의 복장이나 행장이 이상했던지 모두가 쳐다 본다. 아미도 우리 일행이 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가 흔하지 않다. 차중에서도 사진을 찍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니깐 구경거리 였을 것이다.

일행은 1구간을 타고 내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아마도 지하철이 반드시 필요했다기 보다는 이런 대도시에 저하철도 없어서 야 하는데서 이록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여하튼 북경에도 자하철이 있다는 것뿐이다.

11월 9일

아침 날씨는 어제보다 누그러져 있었다. 가까운 대중사를 가 보았다. 이곳은 사원이라기 보다 종(佛)의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주택가에 있어 대저택같은 느낌이었다. 적은 것으로 부터 사원 이름대로 큰 것에 이르기까지 600개 이상의 종이 전시되어 있다. 가장 큰 종은 너무나 커서 이것도 종인가 할 정도이었다. 3층 높이의 종각 인에 있는 가장 큰 종 하나가 꽉 차 있다. 우린 종이라고 하면



북경의 유이원 원아들

종로 보신자중이나 경주 에밀레 종 정도로 알았는데 이건 너무도 컸다. 또 적은것은 밥공기만한 것까지 있다. 종 모양도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비슷했고 우리의 종 모양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특히 진기한 것은 수종이란게 있다.

종을 세수대이와 같이 거꾸로 놓고 그속에 물을 부어 넣고 손바닥으로 가장지라를 힘주어 문지르면 물이 끓는것 처럼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 - 이 우 - 이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매점 점원이우리 앞에서 그리해 보였다. 그의 손바닥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만져 보았다니 뜨거웠다. 이런 진기한 일은 중국에는 많은 모양이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종을 보았다.

대종사에서 나와서 곧 교외의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로 가 보기로 했다. 이미 연락이 되었는지 간부 2 명이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 등소평이 전방위 개방정책을 쓴 후부터 부분적으로 인민공사를 폐지사켜가고 있다고는 하나 북경근교의 이곳은 관광객들의 "보고 기는 마을"로 이직 남겨 두고 있다.

먼저 농민들의 아파트를 보았다.
I 세대당의 면적이 10평방정도이다. 어찌이런 좁은 곳에서 1세대가 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부시설은 말할 것없고 전등도 나구이고 배선도 "모 - 르"를 쓴 노출배선이다. 급수 파이프로 노출이다. 식탁도 거치른 나무 탁자였다. 난방은 어찌 하는지 알 수 없다. 물어 보았더니

우물쭈물 한다. 원래 중국의 기본난방은 炕(깡)이라고 하는 방내 일부분만의 고상온돌인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여성 안내자는 산나서 미리 외웠는지 녹음기처럼 즐줄 설명한다

40대의 소장이란 자는 가끔 일본어를 섞어 쓰기에 "당신은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에 살다가 왔다고 하면서 처음엔 우리 일행을 일본인으로 알았다고 했다.

아들은 외화가 필요한지 어느 곳이든지 관광매점이 있다. 이 인민공사에도 관광객을 위한 매점이 있었다. 동앙화, 서예품, 공예품들이 있었다. 말하기는 농민들이 여기에 만든 것이라고 했고 취미생활에서 제작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솜씨가 전문가들의 그림과 글씨였다

나는 이 인민공사로 올 때 초입에 재래의 중국농가가 용기종기 모여 있는 부략을 보았다. 견학 계획에 없는 일이지만 그 마을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거긴 볼 것도 없다고 잡아 뗀다. 그래도 무리하게 졸랐더니 할 수 없이 가지고 하면서 안내해 주었다.

이 부락은 원래부터 있던 부락이었는데 아파트로 이주시키고 몇집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토담내를 들어서자 젊은 남자가 나왔다. 나는 소장에게 이 젊은이는 왜 작업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느냐?고 했더니 그는 휴가증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농부같지 않았다. 이 농가는 9 평정도 밖에 안되었고 중앙 거실엔 TV 한대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고 조화를 꽃병에 꽂아 놓고 있었다. 가족이 몇명이냐고 했더니 7명이라고 한다. 부모, 처, 자녀, 동생 7명이라고 한다. "동거하느냐" "그렇다" "그런데 방이 두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숙삭하느냐" 자기와 아이들은 거실에서 잔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후담이지만 나는 중공 건축가 한사람에게 이 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었다. 중국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농민들의 주거가 그렇게 협소하고 관공서는 웅장하고 광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런 질문은 곤란한데 하면서 대답을 안했다.

일행이 그 농가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음악소리인지 비행기소린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가 멀리, 가까이 들리곤 했다. 일행중 누군가가 비행기가 떴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비행가는 보이지 않고 비둘기떼가 네 다섯우리 날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구나 하고 옛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秋天鳩遊"라고 하는 풍류인데 중국에선 앙구하는 사람이 많고, 초가을 사람들이 모여서 피리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서로 불어보고 화음을 맞춘 다음 자기네 바둘기떼에 그 피리를 달아서 날리는 것이다. 그러면 40~50마라에서 100마리 정도씩 되는 바물기 때가 같은 피리를 다리에 달고 나를 때는 다른 소리나는 피라를 달고 많은 때가 교차해서 하늘을 날고 있으면 마치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셈이 된다.

사람들은 가을하늘 이래서, 동구에서, 나무그늘에서, 언덕위에서 그 소리를 즐긴다. 이런 놀이는 중국 도처에서 가을이면 벌어지는 광경이다. 이것을 秋天鳩遊라고 한다. 바로 지금이 농가부락 위를 날고 있는 비둘기떼들의 합주이었던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일행은 놀랍다는 듯이 비둘기떼를 쳐다보았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민족이 이런 멋진 풍류를 즐긴단 말인가? 秋天鳩遊! 이것은 중국 민족만이 창안해 낸 기막힌 풍류인 것이다.

중국민족들은 옛부터 현실적인 것보다 대자연이나 신비한 것에서 인간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청담이라는게 있다.

이것은 공원의 나무 그늘에서나 깊은 숲속에서 20~30명이 모여서 정신수양하는

풍류인데 나는 옛날 직접 이 청담을 전화한 경험이 있다. 내 나이 28세때 어느 가을 일요일 오후였다. 고궁 내정을 거닐다가 20~30명의 중국인들이 백색주의 같은 것을 입고 나무 그늘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 보았더니 동자가 이 좌석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물론 그때 나는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구경만하고 가셨다고 했더니 그가 좌상격인 노인에게 가서 귓속말로 무어라고 하더니 끄덕끄덕하며 승낙해 주었다.

이 청담은 40세 이상인 사람이여야 한다. 도교를 공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청담용어를 할 줄 일이야 한다. (속이와는 다른 언어가 있다) 절대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이야기는 못한다. 오직 花鳥風月에 관한 야야기만 한다. 라는 엄격한 규율이 있다

동자는 한쪽 구석에서 철술에 烏竜이나 竜井 같은 명차를 다려서 말없이 나를 뿐인데 그 차 다리는 물은 꼭두새벽 배를 타고 연못에 가서 연잎 위의 이슬(露)을 모아 온 것이고 끓이는 나무는 (新) 작년 봄에 해놓은 버드나무가지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밝은 가을 하늘 이래 고요한 나무 그늘에 유연히 앉아서 花鳥風月에 관한 이야기를 2~3시간 나누고 해어지는 정신수양의 장인 것이다.

이렇듯 그들은 대자연과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생을 즐기는 풍류인 것이다. 기타 낚시, 뱃놀이, 요리, 불놀이, 창, 시회 등 갖은 놀이가 있지만 秋天鳩遊나 清談 같은 것은 그들만의 고유의 멋진 풍류라고 할 수 있다.

인민공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택가 뒷골목의 소위 보고가는 유아원과 탁이소를 견학했다. 내정 주위에 7~8개의 원아실이 있는데 동요소리도 요란하고 참새떼처럼 재재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느실에 들어 갔더니 젊은 보모가 20명정도 원이돌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보모의 지시도 없었는데 합창하듯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하고 인사를 한다. 한 여이에게 이름은 ? 몇살?하고 물었더니 명확하게 王秀花(왕슈화-) 六才了(류-쉐라)하고 대답한다. 그 방을 나올때도 보모는 아무말도 없었지만 원이들은 또 합창이나 하듯이 "안녕히 가세요(짜이젠)"라고 한다. 참

잘 훈련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여아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붉은 리본의 꽃 꽃을 달고 있었다.

11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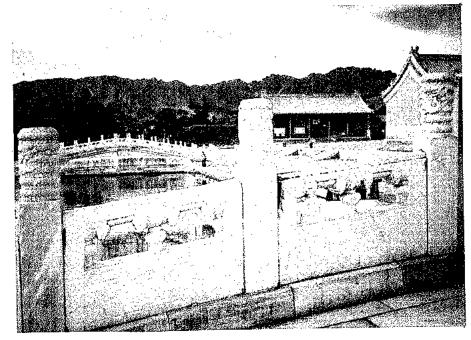
이침부터 頤和宮(萬壽山 또는 일명 西夏宮)을 견학키로 했다. 이 별궁은 북경 서부의 광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저 유명한 서태후의 여름 별장인 것이다. 옛날에는 여러번 와 본 곳이나 옛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용케도 잘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萬壽山 앞 넓은 昆明湖엔 많은 놀이배가 떠 있었고 멀리 옥산과 백탑이 보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玉帯橋(十七孔橋)며 누지들 대회랑(7km의 길이로 호수 반에 이어져 있다) 괴석의 정원 등 표현하기 어려운 호화로운 별궁이다. 서대후라면 명말의 여장부이다. 昆明호를 인공으로 파서 그 흙으로 萬壽山를 만들었다고 하고 호수에서 해군의 조런을 시켰다고 한다. 湖中의 소도상의 향각엔 어린 왕손(7세)올 독살시켰다는 애화도 있다.

물결 넘실대는 호반 회랑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차 있었다. 일행중 4~5명이 十七孔橋물 건너 소도에까지 가 보았다. 도중에 홍콩에서 왔다는 젊은이들도 만났다.

나는 길가의 노점에 水糖果를 열개 샀다. 우리 일행에게 맛이나 보라고 할 셈이었다. 중국의 과지는 대개가 산과와 물엿으로 만드는데 빙당과는 "질괭이"라는 산과를 물엿에 튀쳐낸 것이다, 새콤한 산미가 나는 과자로서 일행도 모두가 진기하게 맛보았다. 나오는 길에 유품전시장에 들렀더니 고물 자동차가 진열되어 있다. 御車라고 써 있다. 살펴 보았더니 영국 Standerd Co. 라는 글자가 기관 파이프에 써 있다. 청조말염에 자동차를 외국에서 사 왔구나 하니 놀랍다. 그 옆에 기록을 보니 "어차가 성문을 나와 서부로 향하면 黃塵萬丈 (驛時에 夏宮에 이르다"라는 시가 있다. 당시 포장도 안된 도로를 10km 정도의 속도였겠지만 당시로선 쾌속차였을 것이고 그 차에 거들먹거리며 타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서대후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 하궁엔 명물이 몇개가 있다. 석주와 후정이다. 석주은 이름 그대로 한개의 거석을 2층의 실물 배로 만든 것이 호반에 놓여 있다. 물론 돌로 만든 배이니 떠서 잘 수는 없어 고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가서 늘고 있다. 만수산 중턱 누각의 후정은 순중국식 정원으로 괴석의 배치나 못, 화초 등 진귀한 후정인데 중국소설인 "金瓶梅에 나오는 西문경과 潘金蓮의 정사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이 하궁에도 많은 설화나 애화가 구전으로 전해 오고 있다. 여하간 서태후란 여성은 중국의 역사상 여결임엔 틀림없다. 우리와 동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진족의 후예가 이곳에서 이런 영화를 누렸다니 감개무량하기만 하다. 현재 이 서태후의 유해는 동청룡에 안치되어 있다.



동청롱이란 북경의 동쪽 125km 당산지구 지구에 속하는 遵化에 있는 청조왕룡이고 북경 서쪽 120 km에 있는 易縣에 있는 서청릉과 합쳐서 소위 청롱이라고 한다. 이곳은 天津관할정차구이므로 우리 일행이 동청롱에 가려면 여권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여권의 시증은 북경지역 제한 시중이었다) 치안사무소에서 승낙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은 천진지역은 군수공장지대이므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의 여행도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다. 통역인 한여시가 이리저리 바쁘게 승낙을 얻어가지고 갔다. 가는 도중에 어느 시골 소읍의 장날이어서 차에서 모두 내려서 장터를 구경도 하고 가노라니 준엄한 산맥이 보이고 그 산록에 많은 왕릉군이 산재해 있었다.

이 동청릉은 전에 말한 북경 근교에 있었던 명13통과 그 규모나 양식이 다를 바 없고 너무도 흡시해서 별로였다. 다만 裕陵이란(乾陸帝陵) 등의 지하궁전은 중국의 전통적인 공권식 석조 구조로 축조되어 있어 유명하다.

어느 능의 지하궁전에는 頤和宮의 정본인이었던 여결 서태후의 유해가 커다란 목관에 방부 옷칠을 해서 인치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일본이 강제로 만주 제국을 세우고 薄儀(清朝王孫)를 허수아비 집정이라고 했던 薄儀의 관도 놓여 있었다. 그래도 왕손이라고 청륭군의 지하궁전에다 모시고 있으니 인간들의 정치권력의 장난들이 우습기만 했다. 그들은 그래도 자신들은 인간이 아닌 하늘이 제왕으로 정했다고 우기고 천자라고 거드름 파웠으니 말이다.

11월 11일

맑은 날씨였다. 내일 오후 3시면 우리는 북경을 떠나 귀국해야 한다. 오늘은 북경의 마지막 날이 되는 셈이다. 아작까지 못 본 곳은 너무도 많으나 불 수 있는 곳은 보고 가이겠다고 일찍 부터 서둘렀다.

고궁 박물관에 갔다. (紫錦城 古宮) 천안문이 바로 이 고궁의 정문이 된다. 그밖에도 단문, 오문, 태화문, 독무문, 경운문 등등 너무도 많은 문들이 있다. 옛날 우리의 사신이 가도 겨우 오문까지 밖에 못들어가고 그 앞에서 천자의 각지를 들고 돌아 왔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 일행은 지금 옥좌 앞까지 들어가 볼 수 있고 더우기 후궁의 왕비의 거쳐도 다 볼 수 있다니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고나 할까 ?나는 그 옛날 이곳에 서너번 외본 곳이고 왕의 옥좌에도 올라가서 앉아본 일이 있다

이 紫錦城은 500년간의 명조, 청조의 왕궁이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는 금나라나 원나라 때에도 왕궁이었다고 하고 현재의 고궁은 명조때에 더욱 중·보축한 것이라고 한다. "마르코 포로"의 동방견문록에는 북경의 "구비라이"의 왕궁의 기외는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다.

당시 서구인들의 눈에는 황금색 釉藥瓦는 순금기의로 보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궁의 규모는 서울 경복궁의 4 배 정도로 보면 된다. 방의 총수가 9 천개나 된다고 하니 이찔한 이야기이다. 현재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후 3 전 이라고 해서 궁후부에 있는 일부로서 왕비나 궁녀들의 거처였던 곳뿐인테도 수많은 귀중한 보물들이 진열되고 있다

장개석이 대부분의 유물을 대만으로 가지고 가서 대북 양명산 중턱에 고궁 박물관을 건축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장품을 가진 박물관으로 되어 있다. 불국의 "루브르"나 大英 박물관, 카이로 박물관이나 스페인의 프리도 박물관 등은 대만 것에 비교도 안된다고 하니 그 나머지를 이곳에 진열하고 있는 셈이 된다.

건물, 단, 대, 호, 교에 사용된 그 많은 대리석들이며 정교한 조각들, 철제 수용에도 금박을 했고 해대상에도 금박이 입혀 있다. 아무리 천자라 해도 그러한 절대권력없이는 어찌 이러한 조영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의 중국의 예술가들은 일생에 하나의 작품을 오직 천자에게 바치기 위해 만들고 죽어 갔다고 여기있는 많은 예술품들은 중국의 예술가들의 수난의 기록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었다.

후편 문무문을 나서면 경신이 있다.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호수인 북해, 중해, 남해를 파서 그 흙으로 만든 산이다. 숲이 우거져 있고 북경시의 중앙에 있는 산이므로 조망이 좋은 산이다. 이 산 어느 모퉁이의 고목가지엔 청조말에 어느 제왕이 권력 싸움에 못이겨 목메어 자살했다는 나무도 있고 후궁 뜰안 어느 우물에는 어떤 왕비를 우물 속에 넣어 죽였다는 기록이 써 있는 우물이 그대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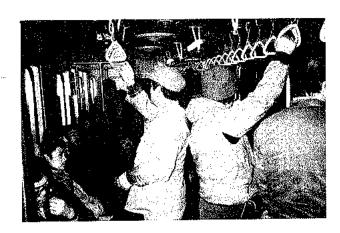
이 화려한 건조물 속에 깃들어 있는 수많은 애화들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파게 하고 허무인생사를 생각케 하는데 충분했다. 또 한가지 이 고궁에 놀라운 일은 외랑에 깊은 호를 파 놓고 연꽃을 심어 놓아 筒子河라고 하며 천자의 조반 식사에 쓰이는 蓮子粥(렌즈쪼-)을 만들게 했다고 하고 사우각엔 초소역할을 하는 각루가 서 있고 대소누각이 6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성벽외부의 색조가 핑크색(桃色)으로 칠해 있다. 옛날 나는 이 색을 보고속으로 천한 색을 궁성의 벽에 칠했구나 했으나 어느 일요일 오후 5~60필의 낙타가 석탄을 싣고 모라꾼도 낙타도 눈만 반짝이고 깜둥이 같이 되어서 꺼덕꺼덕 성벽 밑을 지날 때 성벽에 빛인 크로테스크한 낙타외 그림자가 자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紫錦城이란 성명도 수궁이 가고 중국인들의 색에 대한 감각도 심오한 것을 알았다. 과거 중국의 국기가 청천백일기 리고 했고 남색바탕에 백색의 태양이 그려져 있었고 의복의 95%가 남색이었다. 이 안로는 화학안로가 아니고 각지의 촌락에서 남초란 풀을 베어다가 솥에 끓여서 안료로 썼다. 따라서 자연무공해 인료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즉 대충적인 것이고 그 남색이 중국대륙의 대자연에 가장 잘 조화되는 색임을 알았고 손 문선생의 혁명시에도 비밀결사로서 남의사라는 단체의 활약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이탈리아의 뭇소리니의 혹시츠대와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된다.

일행은 고궁의 후문인 신무문을 나와서 서북쪽 교외로 나가 戒台寺,無拓寺 등의 사원을 방문키로 했다. 옛부터 중국의 절간은 불결하기로 유명했는데 근자는 승려는 없고 보안원이 주재해서 관리하고 청소도 잘 해 놓았고 안내문도 정리되어 있다. 공신국가에 종교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일행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 절간에 중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사상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 거짓말이였다. 현재 중국의 사원엔 종교적 행사는 없다. 물론 승려들도 없다. 오직 관광자원으로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얼마 전에 북경 시내에서 기독교 성당과 예배당을 보고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사나 예배를 보느냐고 북경의 지하철 열차에서



물었더니 "물론 다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 다음 일요일엔 우리 일행 중에 기독교인이 많으니 미사와 예배를 볼 수 있게 성당과 예배당에 안내해달라고 했더니 "요즈음은 안된다. 모든 성작자들의 교육기간이어서 성당도 교회도 휴업이다."라고 한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후담이지만 귀국해서 1개월이나 지났을 때 신문에서 의신에 의하면 복경의 성당에서 처음으로 미사가 있었다고 하고 사진까지 나 있었으니 우리가 북경에 체재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중거가 된다.

종교가 없는 나라! 우리는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해가 서신에 질 무렵 시내로 항해 출발했다. 서직문에 도착했을 때는 비람이 세차게 불고 초가을 날씨 같았고 거리는 컴컴했다. 우린 미리 약속된 중국 건축학회장의 궁중요리로 초대된 북해공원으로 항했다. 호수의 물결이 강풍에 물보라를치고 낙엽은 거리에 뒹굴고 스산한일기였다. 우리도 추워서 달려서 궁중요리 전문점으로 들어갔더니 학회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뜨거운 수건이준비되어 있었다. 학회장은 이주 점잖게 앉아 있었다.

난생 처음보는 특이한 요리에 놀랄 뿐이었다. 옛날 궁중에서 이런 요리만 먹었다면서 웬 역대 제왕들의 평균 연령이 그렇게 짧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의 담화 속엔 몹시도 우리를 부러워 하는 것이 느껴졌다. 여하간 이들은 우리가 입국한 날로부터 우리 일행에게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용중한 대접도 해주었다. 그들은 말끝마다 민항기의 반환은 고마웠다고 했다. 그들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학회 부회장이 나의 옆자리였는데 이야기 중에 동양에선 일본, 한국, 중공 3국 뿐이다. 나머지는 별불일 없다는 말이 있었기에 나는 곧 북한은 어떠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북한은 아직 멀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속으로 너희들도 다 알고는 있구나 했다.

일행은 밤늦게 북해공원에서 나와 쓸쓸하고 고요한 밤거리를 거쳐 호텔로 돌아 왔다. 모두가 말이 없이 시무룩해 있었다. 그것은 내일 12일 오후 3 시면 그래도 정들었던 북경을 떠나 귀국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밤 늦게까지 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북경에서 마지막 밤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냈다.

12일 쾌청한 기막힌 날씨이다. 오전 10시반에 호텔을 출발해서 공항쪽으로 갔다. 중국국제여행사 부총재가 공항 부근에서 오찬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간부직원 몇사람과 같이 와 있었는데 우습게도 우리가 준 울림픽 뱃지와 아시안 게임 뱃지들을 달고 있었다. 그들도 광주리와 달력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 통역 한여사도 운전사 장씨도 약 15일간의 정을 못잊어서인지 쓸쓸한 표정이다.

여기서도 이름모를 요리가 나왔으나 너무 중국요리에 물려서인 김치 생각만 나는 판인데 그래도 이것이 북경에서의 마지막 요리이구나 하니 안먹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86이시안 게임에는 서울로 오겠다고 했다.

시간이 거의 되어서 공항으로 나갔다. 학회 간부들도 몇명 나와 있었다. 기념촬영도 하고 출국 수속을 하는데 여행사 직원이 거의 다 거들어 주었다. 그런데 여권에서 입국 비자를 뜯어서 걷어 넣고는 ①. K 한다. 야 - 이것 참 기막힌 일이구나 했다. 나는 제법 여행도 많이한 편인데 이런 식의 비자 처리를 처음 보았다. 동경 중공 대시관에서 준 비자는 별지에다 해서 우리 여권에 홋지키스로 찍어져 있었는데 그것만 떼고는 그만이니 우리 여권엔 중공에 갔다왔다는 아무런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셈이다. 미수교국의 여행엔 쌍방상호에게 편리한 방법이라고 했다. 행정서류란 묘한 수가 다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

우린 그들과 굳은 악수를 하고 민항기에 탑승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면서 재건(짜이젠)을 연발했다. 민항기는 쾌청한 북청 상공을 일회전하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나는 창기에서 사라져가는 북경 거리를 보면서 "북정이여 잘 있거라, 우린 또 다시 올 것이다."

"再見中国朋友(짜이젠쭝고평유-) 입 속에서 중얼거렸다.

우리를 태운 만항기는 동경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나는 기내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우리들의 이번 여행을. 운이 좋아서 기적적으로 잘 수 없는 나라에 갔다 왔다. 다행히도 일행증한시람의 불편함도 없이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귀국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시해야 한다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이야기했고 많은 것을 생각했고 느꼈다. 이번 여행은 그것으로도 족하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미구한 후일 우리의 건설역군들이 이 무한한 대지를 다듬을 것이고 우리의 장비의 굉음이 대륙에 올리고 우리의 상품이 시내에 나돌고 우리말 간판이 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라다고 마음 속에 새겼다.

우리는 이들의 문자인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스버있는 도덕이나 윤리가 바로 그들의 도교적 교훈이 아니겠는가.

불가사의하고 미지의 나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난 나라, 제아무리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공산주의국가가 될 수 없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나라, 세계 인구의 4분의 1로 인구가 자각하는 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 현재의 젊은 충들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했고 당당해지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화장을 모르는 여인물, 소박한 차렴의 관공리들, 우직하리만큼 검소한 생활 등동 무의식중에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게된다. 그래도 그들에게도 자유의 물결은 말없이 들어가고 있었다. 〈*〉

Report

Energy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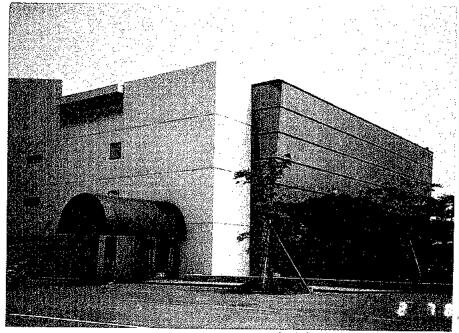
Obayasikumi Technical

Research Center in Japan

Techniques of

by Tae, Choon Seub

일본(株) 大林組 기술연구소본관의 에너지절약기법



[그림 1]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본관)의 전경

머리글

1973년 에너지파동 이후 세계는 점차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에서 부위별 단열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발한 연구 및 투자를 기대하면서 일본 건설회시중의 하나인 (주) 大林組의 기술연구소의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본관)에 채택된 98가지의 절약기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건물에너지절약을 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1982년 4월에 완공된 이 건물은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일반적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의 1/3~1/4 정도인 98Mcal/m'·year의 에너지로 연간 공조를 시행하여 시무실로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며 또한 경제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건축되었다.

1. 건물개요

1. 건축개요.

•면 적:887㎡

• 연면적 : 3.776 mi -

•구 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충 수:지하1층, 지상3층, 옥탑1층

●표준층고:3.2m

2. 공조설비

• 열회수히트펌프 ; 25RT

- •태양열이용 흡수식 냉동기 : 10RT
- •태양열집열기 유효집열면적: 220 m²
- 온도성충형 축열조 : 70m × 2 개
- •덕트병용 홴코일 유니트 방식(남북2계통)
- V A V 방식
- •컴퓨터에 의한 중앙제어 방식 3. 위생설비
- 빗물이용(화장실급수, 냉각탐 보급수)
- •태양열이용 급탕 등

2. 에너지절약기법

(주)大林組 기술연구소 본관건물은 98가지의 에너지절약 기법이 채택되었다. 이하에 그 기법을 소개한다.

1.건물배치의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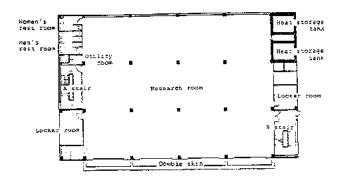
북쪽에는 숲, 남쪽에는 광장이 있는 배차이다. 이 배치는 겨울철에 북풍을 막고 남쪽으로 부터의 일시열 및 광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것이다. 즉 공조부하의 저감(低減)에 적당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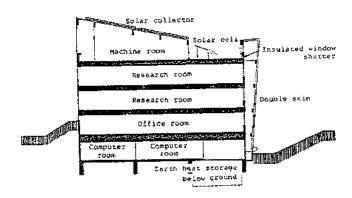
2. 건물방위의 최적화

벽면적이 큰 쪽을 남북축에, 작은 쪽을 동서축에 배치하였다. 같은 벽면적당 연간 냉난방부하는 남북면에 비해 동서면이 크므로 이 건물의 방위는 냉난방부하를 저감하기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3. 건물형상을 육면체로 연면적이 일정하다고 한 경우, 연간 냉난방부하는 평면적으로는 정방형, 임체적으로는 육면체 형상이 가장 적다고

태춘섭





(그림 2] 2 , 3 총 평면도

한다.

4.건물의 일부를 정토

1층 동, 북, 서측의 일부를 성토작업 하였다. 공조측면에서는 흙이 단열재 및 축열재로서의 효과가 있으므로 일반 외벽에 비해 냉난방부하가 감소된다.

5. 층수 감소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이며 옥상층 부분은 기계설바실이므로 상용층은 4 층이다. 지상층수를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불필요하게 되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송용 애너지가 절감된다.

6.출입구의 위치를 주풍향과 평행하게 배치

동경의 주풍향은 1~4월, 9~12월은 북~북북서이고 5~8월은 남~남남동이므로 출입구는 서남서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출입구면의 풍압계수가 작개되어 극간 풍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7. 출입구 방풍벽 설치

출입문 근처에는 겨울철 풍향으로 성토벽을 배치하였다. 직접적인 풍압을 파함으로써 출입구로 외풍이 침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8. 전실의 설치

현관에 반개폐 2중문에 의한 전실을 배치하고 있다. 국간풍의 침입을 억제하고 또한 약간의 국간풍 침입에 대해서도 거주지에게 직접적인 차기운 바람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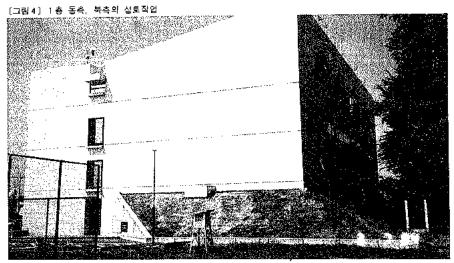
9.계단실 화장실의 지연채광창

[그림 3] 단면도

계단실 및 화장실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창이 설치되어 있다. 주광이 충분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등됨으로써 조명용 에너지의 절감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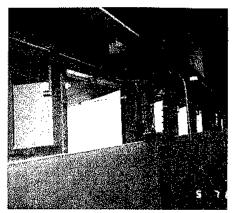
10. 창 면적 감소 송기덕

지하벽을 제외한 각각의 방위에서의 외표면적에 대한 창면적비는 북쪽 10.7%, 남쪽 35.9%이다. 북측면은 거주환경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작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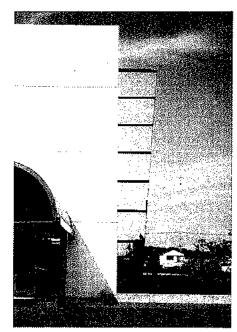


(그림 5) 옥상층의 기계실 및 집열기









(그림10) 2 중외파(남쪽)의 외관

[그램 6] 단열덧뿐 및 가통장치

11, 북측면에 톡수 페어글라스 사용 북쪽면의 창유리 재료는 고성능 단열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중공층이 있는 페어글라스로서 그 성능은 다음과 같다.

- 열관류율 : 1.5 Kcal/m'·h·℃ (보통 페어글라스 – 2.5~2.8 Kcal/m'·h·℃)
- 일시투과율 : 2.5%(보통 페어글라스 --약 80%)

12 옥상면 일사차단

옥성에 기계실을 배치하고 그 지붕에 태양열집열가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일사를 차단하여 공조공간의 천장면은 일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천장면으로 부터의 냉방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다.

13. 외벽 단열

건물의 외벽 및 자봉에 발포스틸렌 단열재를 각각 40mm, 50mm의 두께로 단열하였다.

14 단열덧문의 사용

남쪽 2 중외피(double skin) 내측창에 암면 40mm 두께의 단열덧문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통상 2 중외피 인쪽의 콘크라이트 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난방기의 이건에만 창 부위를 가리도록 가동된다.

15 외측 불라인터의 사용

2중외피는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며 그 중간은 공기층으로 되어 있다. 외벽은 전면 유리, 내벽은 콘크리이트벽과 유리창으로 구성된다. 그 양벽 사이에 블라인더를 설치하여 살내측으로부터 보면 외측 블라인더이다. 내측 블라인더와는 달리 직달일시뿐만 아니라 대류열도 차단한다.

16 차양 설치

2중외피의 상부는 일사 불투과 재료로 구성되어 이것이 수평차양으로서 일사 차단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2중외피 내부에는 점검용 철판이 있어서 이것이 각층 창의 차양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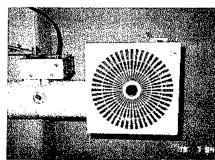


(그림 7) 점검용 철판(수평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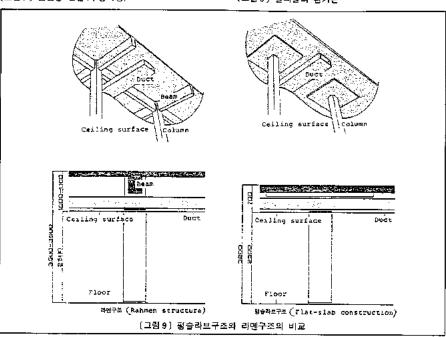
17. 출입문의 단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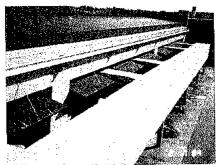
옥상 외벽에 부착된 출입문 등은 내부에 그라스을 40mm를 충진하여 열부하의 절감을 기하고 있다.

18 출입문의 기밀성 향상 건물의 출입문은 편개형으로써 하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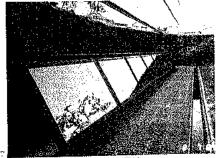


[그림 8] 탈의실의 환기환





[그림11] 2종외파의 상부 개구부(육상충)



(그림12) 2중외피의 하부 개구부

고무제품 또는 모헤어(mohair)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외기의 침입을 억제하고 있다.

19, 삿쉬의 기밀성과 단열성 향상 삿쉬는 기창성 및 단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서 열부하의 저감을 기하고 있다.

20. 창을 통한 지연환기

창은 일부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서 중간기, 냉방기, 야간, 휴일 출근시 등에는 창을 개방하여 자연환기에 의한 냉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1 주변 녹화

건물의 주변에 집초, 활영수, 상록수 동을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건물의 미관을 좋게할 뿐만 아니라 지면의 열반사를 억제하여 건물내부의 냉방부하를 저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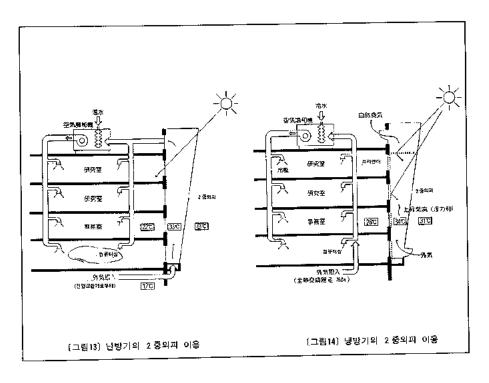
22. 화장실, 탈의실 등의 단독환기 3개소의 화장실 및 탈의실에는 제3종 환기를 시행하고, 각각 단독환기를 하고 있다. 화장실은 인체감저 센서, 탈의실은 조명스위치와 연동한다. 사용시간만 환기홴을 운전하고 그 외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23. 탕비실의 자연환기

중간기(4월, 5월, 10월, 11월)의 의기냉방 운전기간 중에는 탕비실의 채광청을 개방하여 자연환기를 한다.

24 건물의 충고 감소

건물의 외피면적을 가능한한 감소시키는 것은 건축적 에너지절약 기법의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이 건물은 unbanded P. C. Slab을 채용한 평슬라브구조(flat



skb construction)로서 총고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외벽면적도 6% 정도 감소시켰다. 시무소건물의 총고는 통상 3.6 m 정도 이지만 이 건물은 3.2 m 이다.

25. Ductless 급기방식

통상적인 공조공기 운송시스템은 송풍기와 흡출구·흡입구가 덕트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ductless 급기방식은 송풍기와 흡출구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덕트를 천장표면에 개방한 망식이다. 천장표면 부분은 파이프와 배선, 구조량 등이 교차하므로 덕트의 경로도 많은 곡면부분이 생긴다. 그리하여 덕트의 저항이 증가하고 송풍기의 정입을 높일 필요가 생긴다. ductless 급기방식은 덕트의 접속부가 없으므로 여분의 저항이 없다. 송풍기의 소비전력은 정입에 비례하므로 정압을 감소시킨 만큼 전력소비가 절약될 수 있다.

26 2 중외피 (double skin)

남쪽에 전면유리를 부착하여 온실과 같은 공간을 설계합으로써 난방기간에는 공조용 공기와 환기(return air)가 2 중외피 내부에서 데워진 후 공조기로 도입하여 난방에 이용하고 난방기에는 2 중외피의 상하 개구부를 개방하여 자연배기시킴으로써 열부하를 경감시키고 있다. 2 중외피는 냉방기와 중간기에 직시일광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난방기의 이간에는 방열을 저지하는 동의 효과가 있다

2중외피의 면적은 435㎡, 방위는 정남에서 27°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외측은 전면이 8 mm 두께의 열반사 유리이고 내측은 5 mm 두께의 투명유리가 전벽의 50% 정도이다. 외측의 경사도는 95°이다. 2 중외피의 열성능을 실촉·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외축유리의 일사 투과율은 25% 정도이지만 실내까지 투과하는 양은 10% 정도이다.
- 2) 겨울철 맑은 날의 집열량은 2중외피 1㎡ 당 100 K cal /hour 정도이다.
- 3) 겨울철 집연효율은 일사량의 약16% 정도이다.
- 4) 냉방부하는 2 중외피의 열차단 및 자연배기에 와해 약 20% 정도 절감되었다.
- 5) 난방부하는 2중외피의 내부에서의 점열에 의해 약 30% 정도 절감되었다.

27, 2 중외피에 열반사유리 사용

2 중의회의 외축에 열반사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 중외회를 통과하여 직접 실내에 침입하는 일사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열반사유리 8 mm 두께가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인 투명판유리 8 mm에 비해 약 38%의 일사열을 차단한다.

28. 2 중외피 유리의 경시도

2 중외피 외측의 경사도는 약 95°이다. 외측에 열반사유리를 사용하여 수직유리에 비해 유리면의 반사율은 약 36%(82년 8월 15일 측정)가 증가되어 그만큼 2 중외피를 통과하여 살내로 들어오는 일사랑을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즉, 비교적 태양고도가 높은 냉방기에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의 저감을 주목적으로 선택된 기법이다.

소묘

WORKING THINKING

Rough Drawing

by Kim, in Chol

인간이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다시말해
지유를 얻는 것인지도 모른다.
들판을 헤집는 점승이나 하늘을 날으는
새들의 풍경에서 그러한 자유를 느끼는
것은 사춘기의 감상에 지나지 않겠지만,
아무리 제잘난 멋에 도취하려고 해도
주위에 둘러처진 울타리 같은 조건과
제약이 그것을 어렵게 한다.

김인철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엄·이건축

*그하나

스물여섯 시간을 공중에 떠 있다가 지칠대로 지쳐서 내린 다빈치공항의 새벽은 뿌옇기만할 뿐, 주변의 윤곽조차 확실치 않다. 겨우 방울 잡아 들고선 시간이 헛 지날새라 허겁지겁 관광코스에 끼어든다. 폐허와 폐허를 시이돌면서 반졸음으로 헤매다가 인솔자가 이끄는대로 끌려 어딘기에 둘어가니 이게 보통이 아닌듯해 정신이 번쩍 난다. 명한 머리속과 흐려진 초점을 애써 가다듬으며 두리번거리느라고 일행의 뒤꽁무니 쫓아가기도 힘들다. "St. Paul", 성바오로 성당, 별스럽게 큰것도 아니고 유별난 모양을 한 것도 이닌, 얼핏보아 그저그런것 같은 성당인 듯했던 인상은 하나하나를 뜯어보아 기면서 결국 감탄으로 비뀐다.

바닥을 문질러 비벼보고 벽을 매만지고 천정을 올려본다. 관광객은 이랑곳없이,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도 모름 미사의 광경은 제껴두고 이것저것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사뭇 감동적이다.

천정의 측면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광선의 풍만함, 신부의 목소리가 인가의 그것이리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게하는 반향의 신비로움이 철저히 무신론으로 무장된 마음속에 얼핏 한가닥의 경외로움이 스쳐가게한다. 침착해지려 애쓰며 흠잡을 만한 곳이라도 있으면 편할것 같아 두리번거러 보지만 어느 곳 하나 어설프게 : 되지 않으러는 자만심으로 채워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내뱉듯이 중얼거려지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렇게는 인됐을 터인데"하고 우물거리다가 결국 피식 웃게 된다. 어차피 사람이 했을 것이 분명하니 괜한 억지가 되고 만다. 설계도를 통해서는 처리가 이루어짐것 같지않은 장식적인 디테일들, 실물의 제작이어야 표현 가능한 섬세함등이 우리를 경직하게 한다.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고 경비의 과다에는 전혀 무관심 했었을 그런 결과들은 몇 세기의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감동을 간직한 채 있다. 건축가이닌 미쟁이나 석수쟁이의 신세타령이 가득했을 그 시절을 들어 몰라서도 아니지만 오직 주어진 일 그 자체에만 열중할 수 있었던 그들의 지유로웠음이 한편으로 부러워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그물

파리와 비앤나, 그리고 런던을 듬성 건너 뛰며 지나치고 뉴욕의 한밤중에 뛰어 돈다. 고전의 여유로 부터 현대의 긴장감으로 뛰어든 변화의 급격함은 어느정도 익숙해진 그들의 풍토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는다.

수평선이 아닌 지평선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스케일의 차이, 그것으로 인한 감각의 오차는 그 비례를 계산할 수 없게 한다. 자연의 스케일에 순응을 하든 그것에 대응을 하든 간에 어치피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약숙한 스케일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현대건축의 용어 들이 그럴듯하게 전달되는 그럴싸 함이 피부에 와 닿는다. 자그만한 디테일에 연연해 하다기는 큰것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되는 분위기가 주는 압박감은 누군기에 의해 꾸며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 그 자체의 것이었음이 분명해 진다. 넓어야 된다면 말그대로 넓어야 하고 높이야 하는 경우라면 높기만 해야 하는 그런 필연성이 이무곳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실제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한탄스러운 것이다. 환경이나, 조건, :제약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행운이고 또하나의 자유이다.

조건과 제약이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이상의 것이 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된다. 시시콜콜한 시시비비가 주어진 자유의 대법함에 의해 작아지고 또 우스운 것이 된다면 억을 하거나 괘씸한 것은 유모어의 소재로서 제 값을 하게 된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대범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목표의 방향설정이 올비를 수밖에 없는 구설이 된다. 나머지의 일은 주어진 자신의 몫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치루어지는 댓기는 제공된 과정에 따름이 당연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분명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내것이어야 할 것에 대한 통사정이나 애결 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그셋

시간이 뒤죽박죽되어 버리는 태평양을 건넌다. 잃어버린 시간이 한순간에 되찾아지는 어리둥절한 경우를 당하며, 그래도 낯익은, 오른쪽 왼쪽의 방향만 같다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성나리에 앉는다.

우선 느끼한 냄새가 맡아지지 않아 좋고 낯설지 않아 어깨퍼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 편함을 느낀다.

같은 직업을 가진 이쪽의 친구들을 찾아 오랫만에 대화를 나눈다. 그건의 얼굴에 대한 느낌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비교해 가며 분개해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쟁이로서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도 교환되고 최근의 경향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된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 마음속 깊이 끈끈히 우러나는 경쟁의식 같은 감정은 어쩔 수 없다. 바다건너의 것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인정이 쉽게 되면서도 이네들파의 경우에는 그게 쉽질 않으니 모를 일이다.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 받다보면 잘된 경우, 못된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열등감과 선망이 그로인해 생긴다면 별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저런 생각이 감상에 빠지게 하지만 이까운 시간을 흘리기 싫어 현장확인에 나선다. 전에 미처 보지못했거나 새로이 된것들을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본다. 잔재주 부림이라는 삐딱한 시각을 갖고 보는데도 만들기는 잘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귀퉁이나 구석진곳에 짜투리 없이 끼어 맞추는 성실함이 보는 눈을 즐겁게 한다. 너무 깔끔하기에 우리의 감각적인 텁텁함과는 어울리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의 것에 대해 긍정적이기를 거부하는 눈들도 있지만 잘 만들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공사기 진행중인 현장을 가보면 그런 느낌은 재삼 확인이 된다. 세우고 붙이고 바르는 일들이 모두

시스템회되어 필요한 위치에 끼워 맞추어 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신통스럽기까지 하다. 현장의 공정에서 청소작업이라는 단계가 없어진 지 오래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보여지고 있다.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밀성과 관련업체들 간의 협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의지의 결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의지가 정리 되는 단계에서 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협력들이 실제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작가 에게는 또하나의 자유가 주어진 결과를 제공한다. 작곡가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음악을 구성하는 것은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연주자가 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사된 조건이 과연 그대로 될 것인가를 염려한다면 작곡가의 오선지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연주를 해 볼 마음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아뭏든 이네들의 경우는 최소한의 조건, 이니 절대적인 조건이 그려진대로 만들어 진다는 전제가 성립된 즐거움으로 우리의 부러움을 강요한다.

*그 넷

인간이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은 이마도 모든 것으로 부터의 해방, 다시말해 자유를 얻는 것인지도 모른다.

둘판을 헤집는 집승이나 하늘을 날으는 새들의 풍경에서 그러한 자유를 느끼는 것은 시춘기의 감상에 지나지 않겠지만, 아무리 제잘난 멋에 도취하려고 해도 주위에 둘러쳐진 울타리 같은 조건과 제약이 그것을 어렵게 한다.

초자의 작업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또 봉기에는 미련이 깊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흐지부지 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님을 안다.

지금의 자리를 훌쩍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나 곳으로 옮겨 질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도 이것 저것 가로막하는 인연 때문에 또 하나의 자유를 잃게 되고 만다.

아시아 건축사회의 안내

Materials

Guide to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대한 건축사 협회 회원님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말레이지아 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의 굴월을 본협회 전회원에게 알리고자 원문을 실습니다.

26 June 1986

Mr Citi Joseph Kim Architec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832-40 Yoksam-Dong Kangnam-Gu Seoul Korea

Dear Josep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ACA 2 11-13 OCTOBER, KUALA LUMPUR, MALAYSIA

How are you? If you recall, we met at the ARCASIA Council Meeing in Bombay in November 1985.

Preparations are in full swing for our forthcoming ACA 2 to be held in Kuala Lumpur from the 11 to 13 October 1986. David Teh, the Conference Chairman and Vice-President PAM, has sent the preliminary Conference Announcement to the President of you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in early June. I hope your

다음은

(ARCASIA)가 공고한 1986년 10월 9일 부터 10월 13일까지 제 2회 아카시아 총회 개최 안내문입니다. 「아시아지역 전문 기술 용역을 위한 전략;

아시아 건축에 대한 설계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총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98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 1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가진 이래 2번째 회의가됩니다. 회의 날지는 1986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입니다. 회의 조직위원회는 말레이지아 건축사 협회이고 현재 ARCASIA 회원국가는 11개 국가로 방굴라데시 건축사협회, 홍콩건축사 협회, 인도네시아 건축사 협회. 인도 건축사 협회, 말레이지아 건축사 협회, 파키스탄 건축사 협회, 필리핀 건축사 협회, 아일랜드 건축사 협회, 싱가폴 건축사 협회, 스리랑카 건축사 협회, 대한 건축사 협회 이며 북경 건축사, 대만 건축사들이 옵셔버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 주최국인 말레이지아 건축사협회는

이 회의를 통해서 아시아 건축에 관심을

금년 10월 말레이지아의 쿠알라룸플에서 개최되는 건축사 회의는 아시아 건축사 들에겐 대단히 흥미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읍니다.

President has publicised the ACA 2 among your members for we hope to see a large number of architects from South Korea at our Conference.

I enclose a copy of our preliminary Conference Announcement for your information. I expect to see you and many of your collegues in Kuala Lumpur in October as the ACA 2 would be a grand and exciting event for Asian architects.

Our official Conference publicity brochure is in print at the moment and a copy would be sent to you in due course. But in the meantimes, please write to me to indicate your participation in ACA 2.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Best regards

Ms Fay Cheah Executive Manager

갖는 모든 분들에게 참석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건축사들과 아시아 건축에 흥미를 갖는 모든 개업전문인들과 더불어 아시아 건축의 현재 방향 등의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기회를 갖자고 제안을 하고 있옵니다. 특히 현대 건축기술의 연구에 관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지역 건축물의 동질성에 의한 연구를 하지는 제안을 함께 하고 있옵니다.

장소 : 말레이지아 쿠알라름풀의 〈상리·라〉호텔 (Shangri-La Hotel)이고 호텔 숙박비는 일박에 미화 110 \$~115 \$ 입니다. 논제 : 대논제에는 지역특성에 따른 건축사 활동의 수주 전략, 설계 방식의 연구결과 발표, 지역특성 건축물에 대한 비평 등등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사 : 각 나라의 의장단으로 구성 여행스케쥴 : 쿠알라름풀에서 좀 떨어진 말라카(Malacca) 역사도시의 관광도 함께 계획하고 있음니다.

등록내용: 등록비는 150\$입니다. 회의의 스케쥴은 별첨과 같습니다.

송기덕 / 본협 국제위원회 위원장 The Seco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ronymed ACA-2 is the biannual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and follows from the earlier successful Fir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1) held in Manila, Philippines in 198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entitled 'Strategies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Asia' plus 'Design Directions in Asian Architecture' is organized to be held on 11, 12 and 13 October 1986 in Kuala Lumpur, Malaysia.

Organizers

The organizers for the conference is PAM (Pertubuhan Akitek Malaysia/Malaysian Institute of Architects) in conjunction with ARCASIA.

Current membership of ARCASIA include:

Institute of Architects Bangladesh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Ikatan Arsitek Indonesia Indian Institute of Architects Pertubuhan Akitek Malaysia Institute of Architects Pakistan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lippines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urrent observers in ARCASIA include:

Architects from Beijing Architects from Taipei

Cooperating organizations for ACA-2 include: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CAA) Asia Region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UIA) Region 4

Participants

Although the conference is organized by PAM with ARCASIA, the conference is open to all who are interested in Asian architecture. This conference offers opportunities for architects and those interested in Asian architecture to get together to exchange ideas on professional practice and on the current trends in Asian architectur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pursuit of a modern but identifiable regional architecture.

Venue

The conference will be held at the deluxe-class Shangri-La Hotel, Jalan Sultan Ismail, Kuala Lumpur, Malaysia. Special room rates are available for conference participants at:

 Shangri-La Hotel (Conference venue)
 M\$115.00 nett for both single and double occupancy.

2. Merlin Hotel (Located directly opposite Shangri-La Hotel)
M\$110.00 nett for double occupancy

M\$ 98.00 nett for single occupancy

The Shangri-La Hotel is located in Kuala Lumpur's Golden Triangle Area and alternative hotel accommodation within walking distance are the Merlin Hotel, Equatorial Hotel, Hilton Hotel, Regent Hotel, Oriental Hotel.

Topics

Topics include:

 Professional practice topic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marketing of professional services with example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size of practices.

The popular ARCASIA Forum which is presented in the form of a design exchange where selected architecture from the region are shown for review and comment. This usually results in a publication of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The last ARCASIA Forum was held in Sri Lanka in 1982.

Speakers and Panellists

Speakers and Chairmen include:

1. India – Mr A P Kanvinde, Mr Rusi Khambatta

 Malaysia – Dato Kington Loo, Dr Ken Yeang, Tuan Haji Hajeedar

3. Philippines - Mr Caesar Canchela,

Mr Felipe Mendoza
4. Singapore – Mr Yang Soo Suan

4. Singapore – Mr Yang So 5. Japan – Dr T Ikeda

6. USA - Mr A Eugene Kohn

7. Hong Kong - Mr Ronald Poon

Panellists will be represented from:

Bangladesh
 Indonesia
 Hong Kong

3. Malaysia 9. Beijing 4. Pakistan 10. Taipei 5. South Korea 11. Nigeria

Chairman Organizing Committee

– Mr David Teh

Tour and Excursions

6. Sri Lanka

Tours and excursions for delegates and participants are also organized for the city of Kuala Lumpur, its outskirts and the historic town of Malacca.

12. Australia

Registration Fees

The registration fee is US\$150.00 and entitles a delegate to attend the conference opening ceremony and sessions on 11, 12 and 13 October 1986. The fee includes the costs of all conference documents, lunches and test for the three days and excludes accommodation and optional tours.

Conference Secretariat

For more information or for early registration of attendance, please contact:

ACA-2 Secretariat
Miss Fay Cheah
Pertubuhan Akitek Malaysia
4 & 6 Jalan Tangsi
50580 Kuala Lumpur

'Remember to mark October 11, 12 and 13 in your diary'.

	OCT 9 THUR	OCT 10 FRI	OCT 11 SAT	OCT 12 SUN		CT 14 TUE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COUNCIL MEETINGS		α	E		
Dele- gates Arrive	ARCASIA COUNCIL Session 1 ARCASIA Assembly	COUNCIL Session 4	Registra- tion Opening Ceremony (Lounge Suit)	ACA 2 Session 2	ACA 2 Session 4 — Forum	Trip to Malacca (Op- tion- al) Dele- gates Depart
	Lunch- PAM	Lunch- PAM	Formal Opening Lunch	Lunch- Con- ference	Lunch- Con- ference	
CAA COUN- CIL Meeting	Session	ASIA RE- GION	ACA 2 Session 1	ACA 2 Session 3	ACA 2 Session 4- Forum ACA 2 Resolu- tions Closing	
	Dinner (Casual)	Briefing for Speakers Dinner with PAM COUNCIL (Lounge Suit)	l.	EXCUR- SION (Optional)	SOCIAL EVENING	:
	ARCASIA COUNCIL Session 3 ACAI Meeting	4				

2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GENERAL PROGRAMME

<u>민주주의와</u> 자율

Member's Plaza

Democracy and self-regulation

by Song Yi Ho

우라들의 사상은 그 사물(事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유로운 방법으로 정리 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안(事案)에 대한 정연한 논리와 질서를 부여하고 스스럼 없는 표현의 연속을 나타내어야 하며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간작하고 있는 지연스러운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조직사회의 틀(Rule)속에서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살고 있다. 또한 그러한 감정을 내포하므로 해서 정신적인 피해망상을 피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의 귓전을 따갑게 울리고 있는 어떤 민주화라는 외침을 연상해 보면 언뜻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인의 이목을 오랫 동안 묶어 놓으려는 매스콤의 부단한 노력이다. 형식에 얽메여, 장식물도 야니요, 애정품도 아닌 검고 긴 무채색감을 가진 안전벨트를 쉽게 보아 왔다.

그러나 이다지도 긴박하고 중요한 선이 왜 그리도 오랫동안 버려지고 소외되어 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마저 느껴진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매체의 초점 속에서 무슨 단체의 캠페인, 어느 도시의 가두 캠페인, 또는 어떤 비교 내용에 대한 상세한 추적 등에서는 실로 놀라운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다.

과연 대중 매체인 매스컴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도 그 자체에 대한 대단한 위력과 효과를 느끼면서 늦으나마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통계를 보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습성에서 나타나는 서두름에 대한 강박관념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간작해야 할 단순 보편화된 자연스런 호름 속에서 무엇이 되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자연스런 호름의 연속이 되어가고 이름다운 미담 속의 감미로운 화제거리가 번져갈 수 있는 미동의 세태로 눈을 돌려 보고 싶은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다.

문득 우리집 꼬마의 「아빠 저 차 아저씨는 왜 안전밸트를 매지 않아요?」라는 한마디의 의침은, 자율이 아닌 맹종으로 영굴게 되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이 또한 민주적인 시고력의 자율적인 계도와 캠페인에 의한, 민주화의 정도를 벗어나 의식된 주관성을 앞세운 결과가 아닐까.

그 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여유와 이랑을 잊어버린 채, 폐쇄된 과정의 설계 작업을 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이야 한다.

물론 개성과 의지의 표현을 꾸준히 이어 가는 남다른 과정의 연속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나친 현실 집착과 과거답습에 연연하게 되는 누를 되풀이 하는 어리석음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아에 대한 아집과 번거로움의 연속을 피하기 위한 도피적인 발상에 도달 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점을 지계되는 약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외쳐보자. 법률적인 용어에 얽매어가는 우리들의 조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건축시법이 시행된지도 어떤 20여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율 (민주화)의 장(場)에서 자판을 차려보이야 할진대, 아직도 규제와 감시 속에서 아첨을 일삼아이만 하는가?

단독이나 종합이나 하는 건축사 사무소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명분상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조직 사회의 규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화일것이다. 고러나, 우리의 업무영역과 창작 활동에 대한 특수성을 앞세워서 법(法)이라는 테두리가 작품의 구성을 이어가고 만다는 넋두라는 하지 말이야 한다. 그 보다 앞서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한 과시적 건축을 뛰어 넘어서 건축에 대한 진실과 이상을 모든 대중의 인식 속에 고루 영글어지도록, 건축가의 상(像)을 심어주는 우리의 인간성 회복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민주화의 부르짖음이 될 것이다.

아직도 '설계업자' 나 '허가 대행자' 로 비쳐져서 세태의 호름 속에서 당연한 행위자로 규정되어 버린 이 웃지 못할 일들을 겪으며 향변 한번 못하고 씁쓸히 돌아서 버리는 비굴함을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인지?

말많은 소수의 전해보다 말없이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다수의 여력으로서, 건축사의 품위와 지위를 갖출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민주화에 대한 스스로를 개척해 가는 수범적인 어엿한 자태를 갖추면서, 20여성상을 지켜온 우리들의 참된 자이를 발견하였으면……

송이호 / 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

제용회 이사회 개최

제8 회 여사회가 6 월27일 오후 2 시 부터 오용석 회장 주재하에 부회장 이사, 감사,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화는 전화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 보고 부의인건 및 기타인건 심의의 순서로 약6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중요부의인건과 혐의시항 및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리위원회 결정시항 승인의 건 서울지부장으로 부터 타인이 저작한 실계도서에 명의내여한 회원에 대한 장계요청에 의거 제 1 회 윤리위원회 (86, 6, 20)에서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키로 결정한 바 원인대로 승인 (참고)

징계요청자: 서울지부장 정계대상자:이천원(자유공간건축 건축사사무소)

제소내용 : 타만이 저작한 설계도서에 명의대여 행위

결정사항:업무정지 3개월에 처함

제21회 정기총회 개최일정 결정의 건 정관 제20조제 4 형에 의겨 정기총회 개최일정을 86년 10월30일(목) 오전10시로 결정코자 하는바 원인대로 승인

제3회 아카시아(ARCAŞIA) 총회 서울유차에 관한 건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방침이 서면 재협의키로 함

복지회 회칙 개정(앤 혐의 제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부장 회의의 협의를 거친후 이시회에서 결정키로 함

독립예산제도 연구보고서 혐의 독립예산제도로 전환함에 있어 다음 내용을 연구 보완하여 7월5일까지 인쇄완료 후 각시도지부에 배부 지부별로 간단화를 거친후 지부장 회의시 혐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혐의한 보완내용

독립예산제도의 시행시기와 지침시항

월정회비와 실적회비의 장수 금액과 징수요율 또는 회계처리관계 정관 제규정(감사, 회계, 인사 등) 개정 및 기구 개편의 필요성 유무와 도서신고 제도의 변경여부 본부운영재원을 월정회비와 지부 분담금으로 충당방법의 타당성 여부 취약지부에 대한 지원금 보조문제

일본건축시화연합회 회장단 초청예 관한 혐의 국제위원회 사업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국제위원회 에서 결정키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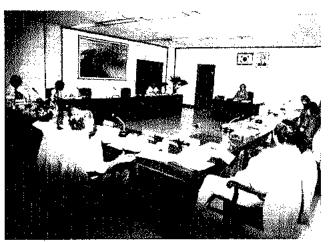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시항 공정거래대책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항

다세대주택 표준설계도 작성에 관한 설계감리위원회에서 건설부와 현의키로 함

지부장회의 개최 7월15일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되 장소와 시간결정은 집행부에 위임기로 함

제2회 사무국장회의 개최

6월 14일(토) 오전11시부터 전라북도지부 회의실에서 임인혁 시무처장 주재로 전국 시도지부 시무국장과 본협회 총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시무국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전형적 전라북도자부장의 격려를 겸한 환영시에 이어 시무처장의 개회시가 있었으며 업무처리지시 및 협조시항 시달과 건의 및 질의시항 순서로 약 1시간30분동안 계속되었다. 이날 시달된 주요지시 및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 대한 친절봉사상 확립 명량한 전화용대 연구하고 발전하는 근무자세 월별 및 일일보고 철저 월 2 회 이상 직원교육 실시 불평불만 해소, 외부유출 미연 방지



제 8 회 이사회



시도지부 사무국장회의석상에서 격려사를 하는 전형직 전라북도 지부장

직원간 위계질서 확립 비상연락망 수시 점검 본부 및 시도지부 임원 인적시항 지부행사계획 수립시 본부행사 계획 참조

에너지절약운동 적극 전개

건축사 특별연수

2 급건축사중 1 차시형 합격자를 대상으로한 2 차 실기시험 대비 특별연수가 6 월20일부터 7 월 5 일 까지 15일간 본협회 2층에서 실시되었다. 연수과목은 시험충제과목인 중소도시형 백회점에 대한 설계도 작성에 집중되었다.

'88하계공직자 경제교육 참석

건설부 공무원 전하기업체 및 단체

임직원에 대한 '86하계 공직자 경제교육이 6 월26일 괴천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실시되었으며 본회 재경임원이 동교육을 이수하였다.

신인 · 학생작품응모마감

제 1 회 신인 및 학생건축설계작품 응모 접수가 6 월30일로 일단 마감 되었다. 그러나 본협화는 마감 이후 일자라도 응모하고자 하는 신인이나 학생의 신청을 언제라도 접수할 예정이다.

6 월30일까지의 응모접수현황은 옆쪽의 표와 같다.

건설회관 준공

건설회관이 6월11일 준공되었다. 주소:서울특별시강남구는현동71-2 전화: 547 - 7301~7303, $547 - 6101 \sim 6107$

협회소식

위원회 소식

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위왕장 송기덕)는 6월 2일 제 5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AIA 총회 참석 ARCASIA 총회 및 일본건축사회(연합) 총회 참석 등 인건을 협의하였다.

AIA 총회에는 당초 참석예정이었던 회장, 국제위원장,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치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을 서신으로 통보하고 박규영 국제위원과 정호환 감사만 참석토록 혐의하였고 ARCASIA 총회와 일본건축사회 연합화총회 참석에 관하여서는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자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지부정회의 인턴으로 올려 각지부별로 소속회원을 독리,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복지후생연구위원회

복지후생연구위원회(위원장 박홍우)는 6월18일 제5회 위원회를 개최, 설문내용을 취합검토하고 복지연금제 제도 연구사항을 협약하였다. 원로회원의 처우문제와 곁들인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내용취합 검토의 결과 •원로회원 처우문제와 함께 복지연금제도는 본무차원에서 주판 실시하며 •65세 이상화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연금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소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3개 기본전체 하이 결론을 유도, 연구보고서를 작성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복자연금제도 연구에 관하여는 60세 이상 회원에게 실시한 설문 내용을 참고로 하여 그 이하 연령층 전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시를 재살이 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6월30일까지 작성 제출기로 합의하였다.

연합회연구위원회

연합회연구위원회(위원장 유경철)는 6월 19일 제 5회 위원화를 개최하고 연합회연구보고서 재출일정 검토 등 인단을 혐의하였다.

지부소식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이춘생)

바둑대회 개최

전임원 및 비독 애호 건축사 다수가 참석한 기운데 '86회원천목 비둑대화를 개최하고 기담을 나누며 회원 상호천목을 도모하였다. 이날 압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1급~4급) 우 중 : 강철무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준우중 : 한봉용회원(한정 건축사 사무소) 3 등 : 권영세회원(정·삼익·세진중합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지부는 6월24일(화)

경기도 양주군 장홍소재 세종레저

타운에서 오용석 본협회 회장과

B조(5급~9급) 우승 : 서천식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 하나로)

준우승 : 박영식회원(박영식 건축사 사무소)

3 등 : 김학선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산선)

지역단위 건축사 전방위문 서울특별시자부 소속 영등포지역 건축사 일동이 6월 8일 전방 이 이부대를 방문, 위문품으로 마련한 고급 응접세트 1조를 전달하고 이어 제 3 땅굴 건화을 실시하며 반공 외식을 고취하였다.

대구직합시지부

(지부장 **황용주**) 지부장 표창 *수*상 7월1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적할사능격 5주관기념식 석상에서 건축부문 공로자로 선정되어 대구적할시 시장으로 부터 표칭을 받았다.

대구직합시지부 항용주 지부장은

화원천목행사 실시 대구직할시지부는 '86회원천목행사의 일환으로 등산부와 사진부 소속회원을 중심으로 찬목행시를 실시하였다. 등산부는 6월6일부터 8일까지 화원 20명이 설악산 대청봉을 동반하였으며 사진부는 회원 16명과 직원 2명등 18명이 오대산을 관광하며 촬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천직할시지부

(지부장 고창영) 채육대회 거행 인천작할시지부는 5 월24일 인천시 당구 민수동 소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부회원 및 시무소작원 동 2 백 27명이 참기한 기운데 축구, 배구, 파구, 줄다라기 등 4 개 종목을 중심으로 한 회원 천목 단합 채육대회를 거행하였다.

경기도지부

(지부장 이종은) 청가도자부 암직원 19명은 6월3일 정기도 화성군 미도면 소재 약4백50 평의 논에서 '86년도 시업계획의 일환에 의가한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지원시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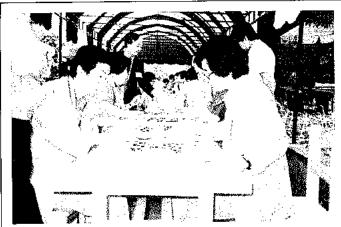
충청북도지부

(지부장 연관홍) 낚시대회 및 지연보호운동 실시 충청북도지부는 6월17일 충북 진천군 초평 저수지에서 35명의 회원이 참석한 기운데 제 1회 회원 친선낚시대회 및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였다 연관홀 지부장은 이날 낚시대회에서 9 개부문에 입성한 회원에게 트로피와 낚시도구를 상품으로 수여하였다. 충청북도지부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로 회원간 이해를 중진시키고 화합단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부 업무의 활성회에 기여하고자 연례적으로 회원친선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제1회 신인 및 학생건축설계작품 응모현황

주제	건	축 설	계	단지	계획설계		_	1	정	[
용모자 지부	전문대	대학생	신 인 (대학원생)	전문대생	대학생	신 인 (대 학원 생)	전문대생	대학생	신 인 (대학원생)	계
서울지부	29(건)	111(건)	122 (건)	13(건)	14 (건)	15(건)		14(건)	26(건)	344 (건)
부산지부	5	11	4	1	2	2			1	26
대구지부		5	2 -		2					9
인천지부		17	1							18
경기지부	6		1	2			l			10
강원지부		2	2							4
충북지부		9	2					1		12
충남지부		20	6		2			7		35
전북지부	1	4	1		2	1		1		10
전남지부			1							1
경북지부							·			- "
경남지부경		12	4		2 .					18
제주지부			l					·		1
계	41	191	147	l 6	24	18	1	23	27	488

협회소식



서운지부 회원천목 바둑대회



대구시장으로 부터 표창을 받는 황용주지부장(오른쪽)



고창영 인천지부장으로 부터 우숭상품을 받는 우승팀 대표들

전리북도지부

(지부장 전형직)

전타복도지부 소속회원 14명은 6월 21일 전타복도 김제군 금구면 옥성리 7백20명의 논에서 농촌 알손톱기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전라남도지부

(지부장 조춘원)

전라남도지부 회원과 가족 및 사무소 적원 등 1백3명은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2박3일의 여정으로 울릉도에서 등산파 낚시 등 취미별 친목 행사를 실사하였다. 성인봉 등산 울롱도 근해 낚시, 울릉도 일주 선면판량, 기타 관광명소 관광 등, 회원간의 친목과 융합 단절을 목적으로 한 본 행사로 회원들은 즐거운 한때를 즐겼다.

장학금 선달 조춘원 지부장 등 임원진 일행은 6 월16일 한국노총점남혐의회를 방문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자녀로서

경남건축사회관 기공

정상남도지부는 7월16일 건축관련 관형 고위인시와 지역자명 인시를 비롯 본협회 오용석 회장과 임원진 김정수 지부장과 지부 임원진 및 회원 등 다수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남도지부 자체회관인 경남건축사 화관의 기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등 3가 3 소재 9백21㎡(2백79평) 대자에 지하 1층 자상 5층, 건축연면적 2 천 8 백16㎡ (8 백54평) 규모로 세워질 경남건축시화관은 이상채 건축사시무소가 설계와 감타를 말았으며 경남건축시복지회의 발주 하이 대원종합건설(주)이 시공 한다.

본화관은 일치로 자하 1 총 자상 3 층 (연건평 1천 9 백40 m': 5 백88평) 을 세우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2차 공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돜이 놀이동산 개장

건축사나무소 한양단축 현종락 의자, 다림쥐통, 공중자전거, (文鍾樂)소장이 사율대공원 주치장 전자오락시설 하나문 카 등이 설 서쪽 1만 2 천명 부자에 30억원을 되었으며 이밖에 이와공연장, 그 투입, 85년 3월 착공했던 서울대공원 사령 기족단위 휴게소 등 갖기지 목돌이 놀아동신이 7월 5일 편의사설이 갖춰졌다. 이들 사설은 한양단축이 17년동안

복물이 놀이동산에는 9 면의 정구장, 성인용, 청소년용, 유이용의 수영장 3개소, 높이 7 m, 길이 40m의 물미끄럼대, 폭 7 m, 길이 2 백때의 물러 스케이트장이 사설되었다. 또 유회사설로 회전목만, 회전량이 의자, 다림쥐통, 공중자전거, 전자오락사설 하나문 카 등이 설치 되었으며 이뤄에 이와공연장, 그늘 시렁 가족단위 휴게소 등 갖가지 편의사설이 갖춰졌다. 이들 사설은 한양건축이 17년동안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하게 된다. 현종락 소장은 경복교등학교를 가쳐 1965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 공학과를 졸업한 뒤 1967년 12월 30일 한양 건축종 동연구소를 개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절이 있어도 취합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비를 자원하는데 쓸 수 있도록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농촌암손돔기 실시 전라남도지부 순천분소 화원 28명은 6월21일 전라남도 승주군 승주읍 신학리의 6백여명 논에서 농촌암손 돕기 모내기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기 영농관리를 돕고 중신의욕을 고취 하였다.

건축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
전라남도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일행은 6 월24일 도 주택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축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에 참석, 건축관계 법령 운용, 건축물 설계 감리, 협회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협조,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성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지리에서 지부 참석지는 미리 준비한 간단회 지료에 따라 주택점검
(감사) 회수 감축, 설계사무소
살태조사 점검사항 한정, 건축사
청문제도의 합리적 운용, 건축사
성별제 실시 등 건의사항을 협의
하였으며 정부시책 사업과 관련한
건축물에 대한 감타비 감면조정,
정부사채사업 계획에 의한 감반대상자
명단 통보, 도내 공공기관 건축설계
감타업무 지역건축시 수주 등의
협조사항을 건의하였다.

경상남도지부

(지부장 김정수) 경상남도지부는 6월29일 마산시 덕동 소제 6백여평의 논에 모내기 작업을 하는 등 농단의 일순을 도울기 위해 직원 3명을 파견 못줄잡기와 부엌일을 조력하였다.

회원동정

변경

- □ 서울지부= ○김창서·김두호· **함성권** 종합건축사 사무소 협화건축 / 강남구 서초동1330~16/568 ~9004
- ○**박시익** /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 426 / 586 - 5781
- ○**허종오 / 박남준 · 한영원** / (주) 우석 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구 반포동722-1 /547 - 7272, 549 - 7511
- ○**이상검·박운옥·양해윤** /예전 종합건축사시무소/강남구 청담동31-10 /543 - 1708 , 547 - 1708 , 4267
- ○**이승도** /승도 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1330-16/567-7646
- ○**이동훈** /대경 건축사시무소 / 강동구 성내동539 - 2 / 471 - 4940
- ○문용회 /세림 건축사시무소/중구 무학동 1 /233 -9680
- O 이병균 / 광생 건축사시무소 / 강동구 가락동410-211/416-2001
- ○김용인 · 이규정 · 이홍래 / (주) 삼도 종합건축시시무소/강남구 방배동1001-8 /585 - 0125
- ○**권상운 · 김방부 · 장양순** / (주) 종합 건축사시무소 신원건축 / 강남구 삼성동 37 - 20 / 545 - 1744
- ○**문제천** /예원 건축사시무소/강동구 석촌동290 - 3 /415 - 5417
- ○김주열 /서강 건축시시무소 / 강서구 화곡동98 - 235 / 604 - 3130
- **이성일** /대흥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795 - 23 / 599 - 6931
- ○**박재환** /도성 건축사시무소 / 강남구 신사동644 - 8 / 548 - 7458
- ○**윤봉원** /건축사사무소 원건사 / 중구 신당동101 ~ 7 / 253 ~ 4920
- 조태종 · 이성규 /종합건축사시무소 마당/강남구 논현동66 - 26 / 544 - 0485
- ○김관중·홍관우·이병훈 / 서울심미 종합건축사사무소/강서구 회곡동987 - 7 /694 = 5299, 693 = 1898
- **김석철 · 송영주 · 이정근** / (주) 종합 건축사시무소 아키반/종로구 동숭동 1 ~ 132 / 764 - 3072
- 한철화 / 원화 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34-21/543-3088, 546-5229
- ○조중연·송광섭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강남구 방배동924 - 19 / 583 - 1941, 1942
- **김종근 · 홍만기 · 임양섭** / 종합건축사

- 사무소 범이건축/강남구 서초동1308 5 /567 - 2451
- ○김기웅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 강남구 신사동588 - 19 / 548 - 5175
- ○이영화 · 김태준 · 이석문 · 안택영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구 서초동 1308 - 5 / 568 - 7863
- ○**이종욱** / 화일 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7 ~ 19 / 473 ~ 1920
- □ 부산지부 = ○여덕연 /대정 건축사 시무소/동래구 복천동295- I /54-0070
- O**황염철** /이화 건축사시무소/동구 초량동1163 - 5 / 462 - 5909
- O**활복명** /도일 건축사사무소/동래구 명륜동401-3 / 553 - 0600
- O**김진철** / 향토 건축사사무소 / 동래구 복천동374 - 1 / 54 - 1223
- □ 경기지부=○구창원 /원일 건축사 사무소/고양군 원당읍 주교리605-7 /63 - 6253
- O유재현 / 유재현 /건축사사무소 /구리시 교문동229 - 5 / 63 - 4031
- ○**김의성** / 건축사사무소 예일건축 /수원시 교통140 - 4 / 33 - 3348
- ○**이진수** /부천건축사사무소/부천시 원미동91-2/62-6969
- □ 강원지부=○민경수·이명섭 박재국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 /춘천지 조양동37-19
- ○**엄상욱** /염 건축사사무소/강릉시 급학동84 - 2
- ○**강권순** /강 건축사시무소/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710-8
- ○**심명택** /심명택 건축사사무소/원주시 학성 2 동207 - 36
- ○박용인 /동진 건축사사무소/영월군 영월읍 영흥리960 - 12
- □ 전북지부=○이상본 /이상된 건축사시무소 구미설계 / 2 - 5804

휴업

- □ 서울지부=○김진호 / 고려건축사 사무소/성동구 구의동251-31/86.6.28 \sim 87. 3.28 / 452 - 0572
- **이대형** / 종합건축사시무소 향건축 /강남구 삼성동34-9/86.6.13~87.6. 12 / 545 - 9500
- □ 강원지부=○이정식 /정선 건축사 사무소/정선군 정선읍 봉양리399 - 2

/86, 6, 16~86, 7, 15/3-1119 □ 인천지부=○신형범 / 신형범 건축사 시무소 / 인천시 남구 주인동200 -14 $/82-2102/86.6.10\sim6.30$

전입

- □ 경기지부=○강원철 / 건축사사무소 목림 /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66 - 4 /655 - 2001
- □ 서울지부=○손종윤/화신 종합건축사시무소/강남구 서초동426 /586 - 5781

전출

□ 경기자부= ○ 허 집 / 허진 건축사 사무소/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687 - 18 □ 서울지부=○강원철 /건축사사무소 화인/강남구 역삼동799-26/86.6.11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66-4

| 재입

□ 경기지부=○김유철 /김유철 건축사 사무소/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76 / 2 - 6182

| 재개

□ 강원지부=○이정식 /정선 건축사 사무소/정선군 정선읍 봉양리399 - 2 /2 - 1119

폐업

□ 인천지부=○최영환 / 광진 건축사 시무소/인천시 북구 부평동252-48 /86.6.19

결혼

- □ 서울지부=○전경진 /삼남 / 6.4. 12:00/규수당예식장
- ○**문병국** /본인 / 6. 7. 14:00 / 상도장로교회
- ○**정남조**/장녀/6, 8, 12:00/ 동궁타운예식장
- ○**안충회** / 장녀 / 6. 9. 13:00 / 태극당 예식부

신입회원



黄 忍 鎬 1928. 11. 7 경북 서울대학교건축공학과 종합건축시시무소 한기 서울시마포구공덕동 253-17 718-4288



韓 相議 1934. 9, 19 서울 서울대학교건축공학과 종합건축시시무소 한기 서울시 미포구 공덕동253 - 17 718 - 4288



金 才令 1935. 11. 7 서울 서울대학교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기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253-17 718-4288



林 福煥 1943, 12, 7 서울 서울경가공업고등학교건축과 (주)종합건축사시무소 삼정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8-19 548-5175



董 政 根 1946. 7. 30 서울 인하대학교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서울 강남구 방배동 924 - 19 583 - 1941



趙 鳳衍 1948. 12. 28 충남 충남대학교건축공학 재흥건축사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92-12



趙 肯鎬 1950, 3, 20 충남 부산대학교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마당 서울 강남구 논현동66-26 544-0485













金 泝洽 1952 1.8 제주 한상대학교건축학과 건축사사무소 다우건축 서울 강남구 청담동 1 547 -7179

趙 顯君 1953, 12, 20 경남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서울 강남구 신사동588~19 548~5175

禁 弘雨 1954 9. 22 부산 부산동의공업고등학교 건축과 대흥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방배동 795-23 593-8824

張 俊元 1955. 2. 6 서울 서울대학교건축공학과 (주)신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5-11 782-8727

黄 長錫 1955, 9, 13 서울 한양대학교건축공학과 대흥 종합건축사시무소 서울 강남구 방배동795-23 593-8824

康 鳳珏 1956. 3. 1 충남 대전개방대학건축공학과 시민 건축사사무소 충남 대천시 대천동197-12 2-4367

韓 項洙 1956. 3. 3 전남 조선대전문대학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내외·공간 광주시 동구 대의동75--1 232-5513

1. 자연공원법 개정안 2. 관광사업법시행 규칙중 개정령

⊙건설부공고 제83호

자연공원법 개정안

1986. 7. 5.

- 1. 법령명: 지연공원법개정안
-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 가.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공원계획을 재정바하지 아니하여 현지 여건과 맞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마다 여건 변동에 따른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할 것임.
- 나. 공원용도 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기준 (1) 자연보존지구내에서 공원자원과 조화되는 사찰의 중·개축 및 신축을 금지 하였던 것을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사찰 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또한 자연보존 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지연 풍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등 산림시업과 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자원보존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조화되도록 할 것임.
 - (2) 지연환경지구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의 금지는 기독권 보호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당해 공원지정 이전의 건축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중축· 개축·재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지연풍경과 조화되는 범위안에서 허용합 것임.
- (3) 현재 농어촌지구에는 도시 취락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 그 명칭이 부적당하므로 이를 취락지구로 변경 하고 취락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원 약국・이용원・미용원 및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으로서 건설부랭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토록하여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 다. 공원관리청의 직무에 대하여 현재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각 시 · 도에 위임함으로써 1개의 공원을 행정 구역별로 여러기관이 관리한 결과, 관리의 다원화, 업무의 중복, 재정형편 등에 따른 수동적인 공원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국립공원의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에의 위임관리로부터 국가 직접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위임조항을 개정할 것임.
- 라.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각급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명시할 것임.
- 마. 공원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작성에 대하여
 -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에 의한 집단 시설지구를 개발하거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 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형식, 외벽의 색채, 사용재료 및 자재 등에 관한 기본설계를 미리 작성하도록 할 것임.
- 바. 공원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등 기준에 대하여 현재 공원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허가 등 행위처용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준 적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락자구에 준하여 허가토록할 것임.
- 사. 탐방객의 공원입장 제한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여 공원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 명예관리인 위촉 시행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애호와 공원이용의 올바른 계도 등을 위하여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관리인으로 위촉 하여 공원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계도를 하도록 할 것임.
- 자. 공원구역과 도시계획구역과 증복된 구역관리에 대하여 공원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도심쪽에 있는 공원구역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을 함께 적용 **** 토록 할 것임.
- 차.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사항에 대하여

현재 공원관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협의된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기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공원 관리업무의 중복과 공원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 협의된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허기를 건축허가시 복합 민원처리의 경우와 같이 의제하도록 할 것임.

- 카. 국립공원관련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토록 할 것임.
 - (1)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2)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9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
 - (3) 공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시업의 시해
 - (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시설의 관리
 - (다) 공원구역인에서의 청소 등 미화업무
- 해 기타 건설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타. 국립공원협회의 설립근거에 대하여 현재 국립공원협회의 설립근거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의에 따라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의 동호인과 국립공원구역내외 공원 사업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지도화 할 것임.
- 3. 의견제출 : 이 법령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6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시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건설부 장관(참조 : 자연공원과장 503 734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교통부령제839호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6. 6. 19.

관광사업법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의 3중 "제 1조제 1호, 제 2호, 제 4호, 제 5호 및 제 7호의 서류"를 "제 1 조제 1호·제 2호·제 4호·제 5호·제 7호 및 제 5조제 1항제 4호의 서류"로 한다. 제 5조제 1항중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 1호 내지 제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 2. 주주총회 회외록시본(주식회사외 경우에 한한다)
- 3, 주주 또는 출자자현황
- 4.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진단 기관이 작성한 경영진단보고서 제 5조제 2 항중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 1호 내지 제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산설한다.
 - 1. 합병계약서 사본
 - 2. 주주총회 회의록 시본(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 3. 법인동기부 등본
- 4. 주주 또는 출자자 현황 제 6조제 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 업자가 여행요금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숙박비·교통비·음식비·안내수수료 등 이행요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자료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실시 30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행알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여행요금표(외국인단체 여행요금을 제외한다)를 당해시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 8.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모집예정회원수 제 8조제 2 항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다.

- 7. 골프장의 모집예정회원수, 홀의 길이및 면적
- 8. 시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수량 및 면적(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 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제12조제2호 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제14조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광호텔인에는 항공사·여행사·환전소·매점(호텔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토산품점 기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되, 당해시설로서 주로 호텔 이용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은행·의료시설 (약국·치과 및 의무실에 한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설은 당해 시설에 출입구 또는 숭용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중 "별표6의3. 별표7"을 별표6의 3. 별표6의4. 별표7"로 한다. 제16조제2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청소년호텔업
 - (개)종류 및 객실수
 - (내)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 (대) 식당 및 휴게시설
- (6) 기족호텔업
 - (개) 객실수
 - (내)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 (대) 식당 및 휴게시설

제16조제2호 나목(2)의 (나)본문중 "극장 식당"을 "관광극장식당"으로 한다. 제24조의 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관광숙박업의 경우
 - 가. 특동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는 총지배인 자격증 소지자
 - 나.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와 특등급관광호텔의 현관·객실 식당부문의 업장별 책임자업부는 1급 지배인자격증 소지자
 - 지배인자격등 소지지 다. 2등급이하 관광호텔(가족호텔을 포함한다)의 지배인업무와 1등급 관광호텔의 업장별 책임자업무는 2급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1종 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2급 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호텔관리인 · 2종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청소년호텔관리인 라.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는 관광증사원 자격증 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광증사원자격증 소지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관광호텔주방의 조리사업무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관광숙박업종사원
- 가. 총지배인
- 나. 1급지배인
- 다. 2급지배인
- 라. 청소년호텔관리인
- 마.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제28조의 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관광 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28조의 3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0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통역안내원의 경우
 - 7. 4년제대학을 졸업한자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재외공관장으로부터 거주확인을 받은자에 한한다)
 -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총지배인의 경우
 - 기. 호텔관련분이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청소년호텔관리인의 경우 국민학교이상의 정교사자격증 또는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호텔관리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4.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시하는 종시원의 경우
- 기: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나. 한국관광공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관광호텔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1조 (수험자격) ① 판광종시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 ② 관광숙박업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총지배인
 - 가. 1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특등급관광호텔의 임원<u>으로</u> 5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1급지배인
 - 가. 2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광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2급지배인
 -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 한다) 자격증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4 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둥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는 제2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2급지배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 2.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3조제 2 항 및 제 4 항을 삭제하고, 동조제 6 항중 "제 3 항" 및 제 4 항"을 "제 3 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 법 제3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2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근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월이상 교육을 받이야 한다. 다만, 총지배인 자격을 인정받은 자, 통역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른 종류의 통역안내원시험에 합격한 자 및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 "관광시업자에게"를 "도지사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연수기관에"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시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정관광연수기관의 교육인원, 교육시기 및 취업종시원의 현황을 매년 11월말 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시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의하여 당해 도의 교육인원의 차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사업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제 6호를 삭제한다. 제56조 제 6호 및 제 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지개발계획서 (관광시설계획, 관광지관리계획 및 관광지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7.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축적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시설물 및 조경계획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 8. 토지조서 기타 관광지 조성계획에 필요한 서류

제60조제 3호증 "휴양 또는 사진촬영등을 위한 시설"을 "휴양·사진촬영 또는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로 한다. [별표 1] 제 1호가목 단서중 "영업소를 2개이상"을 "영업소를"로 하고, 동표 제 3호 나목증 "100 제곱미터"를 "66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6]을 가가 변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9)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외국인에 대하여는 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입회 시켜야 한다.

[별표11] · [별표14] · [별표16] 및 [별표18]을 각각 별자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계약서 시본 1부
- 가.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
 - (1) 외국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서 시본
 - (2) 항공운송시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 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 시본
- 나. 국내여행일선업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에 관한 계약서 사본
- 다. 여행대리점업의 경우

-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 시본
- (2) 항공운송시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 사본
- 6. 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숙박비·교통비·음식비·안내수수료 등 여행요급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별지 제11호서식]중 가 및 나의 각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업종별 영업하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수료라중 "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수수료란의 청소년호텔 다음에 가족호텔을 추가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응시자 참고사항 5중 "수입인지"를 "수수료"로 하고... 정부수입인지 다음에 수입증지를 추가한다. [별지 제23호의 3서식]의 수수료란증 "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 6호를 삭제한다. [별자 제34호서식]의 주 6중 4등급 등록관광호텔"을 "청소년호텔 • 기족호텔"로 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영업소를 설치한 국제여행알선업자에 대한 여행알선업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 3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에 판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관광호텔시업계획승인을 얻은 지는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객실면적에 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 4조 (청소년호텔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청소년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청소년호텔로 등록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 5조 (유흥음식점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11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6조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스키장시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7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2급지배인양성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와 졸업한 자에 대하여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졸업후 1년까지, 졸업한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사행후 1년까지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인정 및 관광종사원의 수험자격에 관하여 제28조의 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광종시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관광종시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28조제 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는 제24조의 2제 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등급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 또는 업장별 책임지업무를 할 수 있다.

[별표 6]

청소년호텔업시설기준(제15조 관련)

(1종)

- 1. 객 실
- 가. 2인이상 6인이하의 수용에 적합한 상하단 침대식으로 하고, 총수용능력 60인 이상일 것.
- 나. 3등급 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준하는 일반용 객실을 수용능력 20인마다 1실씩 충별로 균형있게 추가로 설치할 것
- 다. 온돌객실은 호텔경영상 필요한 때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 객실수 및 객실면적은 "가"목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현 관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3. 위생시설객실별로 현대식 화장실 및 욕실설비를갖출 것.
- 4. 부대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과 간이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5, 기 타
- 기: 비상발전설비를 갖출 것.
 나.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은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 용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시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종)

- 객 실
 4 안이상 10인이하로 청소년이용에 적합한 검소한 시설을 갖출 것,
- 2. 현 관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3. 위생시설 충별로 수용인원에 적합한 현대식 공용화장실 및 욕실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4. 부대시설
- 가. 수용인원에 적합한 지급식 식당과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설비를 갖출 것.
- 나.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u> </u>	···· I	-,
등 급 시 설	톡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1. 객 실 가 면적(욕실면적을		북등급의 경우와 끝다.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특당급의 경우와 같다.
포함한다) 싱글(Single)	13제곱미터 이상(다만, 객실수는 전체객 실수의 10%이내어야 한다)			
다불·투원 (Double Twin)	19제곱미터 이상			
스위트 (Suite)	26제곱마터 이상			
한 실	19제곱미터 이상			
나. 냉・난방시설	증앙집중식 냉·난방검용 공기조절기(에 너지절약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록등급의 경우와 같다.	증앙집중식 또는 독립 조절식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에너지 절 약 설비를 포함한다) 를 설치할 것	스팀 및 에어콘디숀으로된 냉·난방사설(에너지 절약 설비를 포함한다)을 설치 할 것
다. 환기설비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라. 출입문자물쇠	자동 또는 반자동 폐쇄정으로 하고 출입 문 내부쪽에 쇠시슬 안전폐쇄기를 설치 할 것			
마. 침 대	1 인용의 경우 90센타미터×195센타미터 이상, 2 인용의 경우 138센타미터×195 센타미터 이상의 침대를 설치할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톡등급 의 경우와 같다.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바. 전 화	객실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자동식전 화(국제전화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 전화시설이 불기능한 지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식 전화시설이	1등급의 경우와 같다.	전화를 설치할 것
시 욕 실 사 욕 실				
(1)면 적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톡등급 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2) 욕 조	길이 115센티미터 이상일 것	록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2. 현관로비	1. 면적은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록등급의 경우와 같다. 록등급의 경우와 같다.
	2.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실 설비 를 설치할 것			
3. 중용중 강기	4층건물 이상에는 수용인원에 상용하는 엘리베이타를 투숙객용과 종사원용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위치에 설치할 것			1등급의 경우와 같다
4. 식당 등	한식당・양식당・다실・연회실 및 칵테일		양식당 · 다실 · 칵테일바를	양식당 및 다실을 설치할
	바를 설치할 것	칵테일바를 설치할 것	설치할 것	

등급 사설	복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5. 주 방	현대적 주방시설을 갖출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6. 소방・방재시설	1. 중앙집중식 소방·방재센타를 설치 할 것	중앙집중식 소방·방재센 타를 설치할 것	소방·방재시설을 설치함 것	2등급의 경우와 같다.
7. 발전기등	고객안전용 '다시 카메라를 설치할것' 1. 비상 발전설비를 갖출 것 2. 객실의 조명전원(타일 스위치를설치	북등급의 경우와 같다. 복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 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			
	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 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 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			
	도록 할 것 3.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언정 하는 시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동급의 경우와 같다.

유흥음식점업 시설기준(제15조 관련)

유흥음	식점업 시설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시설 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외국인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1 거무여전
	1. 신설인식 연면적이 서울지역은 660제곱미터 이상, 부산지역은 396제곱미터 이상, 기타지역은 23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한국식 정취를 갖춘 이담하고
	우아한 전물일 것.
	2. 수용능 력
	가. 서울지역
	(1) 99제곱마터(10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1실 이상이 있을 것 (2)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2실 이상이 있을 것
	(3)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2실 이상이 있을 것
	나 부산지역
	(1)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1실 이상이 있을 것 (2)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실 이상이 있을 것
	(3)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2실 이상이 있을 것
	다. 기타지역 (1) 50세23이터(M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참 이상이 있을 것 (2)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 실 이상이 있을 것
	(1) 20/1/4 (40 0 1 0 1 0) (1)
1	(3) 20제곱미터(1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2실 이상이 있을 것
	3. 실내구조 고유의 한국적 이취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철기 등으로 장식할 것
	4. 정 원 아담하고 우아한 99제곱미터 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
ļ	5. 환기시설
Ì	95. 원가수명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설비를 할 것
-	[6. 냉·난방시설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냉・난방설비를 할 것
	7. 방음장치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
	8. 주 방
	기, 환기설비를 할 것
	나.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장고가 있을 것
	다.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성크 1대 이상이 있을 것
	9. 고전 무용
ļ	기무음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국고유의 악기를 확보하고 있을 것
ì	

구 분 시 설 기 준 10. 화장실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기를 포함한 수세식변기 및 소변기를 수요에 적정하도록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 11. 교 통

정문에 대형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있을 것 관광극 외국인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장식당 1. 면

연건평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용능력

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4인조 탁자 120개 이상이 있을 것

관광객에게 민속과 거부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4. 현관로비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출 것

5. 실내구조

전면 용단 또는 타일을 깔 것

환기시설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 설비를 할 것

7. 냉·난방시설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냉 · 난방설비를 할 것

8. 방음장치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

9. 주 방

가. 환기설비가 되어 있을 것

- 나. 음식물(양식 또는 중식)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장고가 있을 것
- 다.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직 정크 1대 이상이 있을 것.
- 10. 화장실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가를 포함한 수세식변기 및 소변가를 수용에 적정하도록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

11. 교 통

수용에 적정한 주차장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며, 대형차량이 정문에 정차할 수 있을 것

투수유 주한유엔군 및 외국인 선원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 홍음식 1. 주방을 포함한 홀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홀바닥은 인조석 연출로 수세식 청소가 용이한 것일 것
 - 3. 창문에는 방충용망이 설치되고 외부로부터 홀내부가 보이지않도록 되어 있을 것
 - 4. 환기설비가 있을 것
 - 5. 스텀(온풍기)이나 에어콘디숀 등으로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6. 화재 등 비상시에 긴급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을 것
 - 7. 화장실은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세식좌변기 2조 이상 소변기 2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자동환기시설을 갖출 것
 - 8, 주 방
 - 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처리 '보관할 수 있는 집기 '냉장고가 있을 것 조
 - 나.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 이상을 설치하고 있을 것
 - 9.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없다

- 다. 실내·외에 각 1식이상의 운동오락시설과 아외활동을 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이상의 대자를 확보할 것
- 라. 수용능력에 적합한 집회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목의 실내운동 오락시설장이 회의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임지조건 및 건축구조 판광지 또는 국·도립공원과 기타 지연경판이 수려한 경송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

[별표 6의4]

기족호텔업시설기준 (제15조 관련)

- 1. 객 실
- 기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한식 또는 양식의 검소한 시설을 갖출 것.
-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3. 부대시설
- 가, 식 당

가족단위 이용에 적합한 대중식당을 설치할 것.

나. 취사장

수용인원의 30%이상이 개별취시를 할 수 있는 공용취시장 설비물 매충별로 설치할 것.

다. 매 점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 라. 운동시설
 - 1식이상의 옥내운동시설과의 2식이상의 옥외운동 시설을 갖출 것.
- 4.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이나 기타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

[별표7]

종합휴양업시설기준 (제 15조 관련)

- 1. 공통기준
- 기: 면적은 165,000 제곱이터 이상일 것. 다만,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다음의 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1) 숙박시설(숙박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여관 감동급 시설기준이상)
 - (2)음식점시설(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한 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이상)
- 2. 민족문화자원 소개의 경우
- 가,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 이 20동 이상 있을 것.
- 나.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을 것.
- 다. 민속기무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을 것.
- 라. 3종이상의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장소가 있을 것.
- 마.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 스케장의 경우
- 가. 길이 500미터 폭 30미터이상의 스로프를 2개이상 갖출 것.
- 나. 500미터이상의 리프트를 2개이상 설치함 것
- 다. 스키장내 구조물은 이용자의 안전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시 보호대등의 안전사설을 설치할 것
- 라. 응급처치 설비를 갖춤 것.
- 4. 휴양시설의 경우
 다음에 기재되는 해수욕장·수렵장·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및
 운동오락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해수욕장

- (1) 수용인원에 상용한 간이목욕시설 · 공중화장실·탈의장 및 휴게시설 등이 있을 것.
- (2)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치 설비등의 시설이 있을 것
- (3) 담수욕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수렵장.
 - (1) 수렵대상조수가 2종이상 있을 것
 - (2) 수렵에 필요한 클럽하우스가 있을 것
 - (3) 수렵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엽총및 엽견이 있을 것.

다. 동물원

- (1) 50종이상의 동물을 보유할 것.
- (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라. 식물원

- (1)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마. 수족관

- (1) 건축연면적은 2,000 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어종수(어류외의 것은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있을 것.

바. 운동오 락시설

- (I) 축구장·야구장·배구장· 농구장·정구장·탁구장·수영장 및 승마장등의 운동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2) 탑승좌석 10석이상의 회전형 관람차·모노레일차·관람용기관차· 회전목마·케이블카·유람차 및 유람선등의 오락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造景設計製圖技法

金承煥・張泰賢 著

建築法規問題解説

金 聖 培 編著

^改造景技師問題解説(Ⅰ·Ⅱ)

金承煥・李載根 編著

技文堂 刊/定價 각권 6,000원

技文堂刊 / 定價 8,500원

技文堂 刊/定價 5,000원.

전기설비설계의 바른 외주방법

근래에 건축전가설비 설계가 합법적 등록을 필한 지에게 외주되지 아니하고 무등록 불법 무자격자에게 외주되는 사례가 있어 회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설비의 설계 및 용역업무(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는 기술용역 육성법과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그 권리와 책무가 정하여져 있옵니다. 이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옵니다.

- 기. 전기설비의 설계용역 업무를 영위하고져 하는지는 과학기술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동시행령 제3·5·6조 동시행규칙 제1조)
- L. 국내에서 수행되는 전기설계 용역 등은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동시행 규칙 제9조, 제9조의 2 및 전기공사업법 제26조, 동시행규칙 제23조 등)
- [전기실계용역업 등록을 한자가 작성한 각종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는 책임 기술사외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기술용역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자 보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모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은 각종 전기재해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근지에 들어와 고도의 기술제품 등장과 고품질의 전기를 요하는 기기들이 늘고 있으며 국가적 명제인 전력 에너지의 절감, 전기재해의 감소요구 등 전기설비에 요구되는 기술은 날이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여기에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하여 작성된 불량 전기설계 도서 때문에 많은 건축사 시무소의 명예와 신용이 추락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민재산의 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의 측면에서 무등록 불법 용역업자를 색출 의법처리는 물론 적법한 전기설계 용역 수행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본의아니게 이러한 과정에서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업무에 유념하셔야겠읍니다. 이에 전기관계 설계용역 업무는 반드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술용역 업체의 기술사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읍니다.

등록업체 명단

〈1986、6.1 현재〉

등록 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용 역 업	기술부문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화번호
1-1	전엔지니어링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김응모	산업설비 용 역 업	전기	발 송 배전	783 - 1931
1-2	(주)대우엔지니어링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김우중	"	"	"	783 – 6281
1-4	코리아엔지니어링(주)	중구 서소문 58-9	최관식	"	"	u	757 – 9900
1-5	국제기술개발(주)	강남구 방배동 816-3	조 석	" !	"	"	591 - 1781
1-7	대림엔지니어링(주)	영동포구 여의도동 17-5	김병진	"	"	"	783 - 0161
1-9	현대엔지니어링(주)	종로구 계동 140-2	이명박	"	11	"	741 - 1018
1 – 10	동아엔지니어링(주)	충구 서소분동 58-12	임원수	"	"	"	753 - 0521
1-11	신화건설(주)	동작구 대방동 88 - 19	이남주	"	"	,	812 - 4511
1- 12	한국전력기술(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민경식	"	"	"	784 - 7701
1-13	유공(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최종현	신업설비 용 역 업	전 기	발송배전	783 - 8551
1-14	현대중공업(주)	종로구 제동 140-2	정몽준	11	"	"	741 - 1221
1 – 15	선경건설(주)	종로구 종로 6 가 242 - 1	김종헌	"	"	"	742 - 3500
1-16	제칠엔지니어링(주)	종로구 수송동 51-8	장세훈	"	전 기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운용	733 – 3551
2-1	정우엔지니어링(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주낙용	종합건설 기술용역업	"	발송배전 전기기기	783 – 8470
2-2	(주) 도회종합기술공사	강남구 신사동 640-6	곽영필	"	"	발송배전 전기기기	541-2201
2 - 3	(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용산구 후안동 339-6	백 문	"	"	발송배전 전기기기	754 - 0141
2-4	선진엔지니어링(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 11	이상수	"	전 기 건축전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2-6	(주) 유신설계공단	강남구 역삼동 832-40	전긍렬	종합건설 기술용역업	전 기	발송배전	555 - 7132

	The state of the s		September 1997		기순부모	및전문분야	
등록	입 체 명	소 제 지	대표자	용 역 업	기술부문	<u> 전문분야</u>	전화번호
번호			-) -) -	all district supplies		$\overline{}$	541-2121
- 7	(주) 삼안건설기술공사	강남구 논현동 91-3	김형주	" -> = - \ \	<i>"</i>	" 전기기기	J41-2121
	/조(ㅁㅇ의코리네레이 기모스	종로구 청진동 11-6	신화인	전문기술	전 기		733 – 2465
- 18	(주)문유현전기설계사 사무소	<u>유</u> 포기 (9년 8 11 0	L., L	용역업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0 ×1 -3 =1 - 1 ×1 =1 / み)	동대문구 휘경동 187-20	손태염	,,	전 기	발송배전	961-5431
- 24	대한앤지니어링(주)	क्षाच्या भारति 101 - 20	L 11 0			전기 용용	
		 편하지 하고 토레지는 1년 202_1	한상로	,,	천 기	발송배전	27 - 8141
- 47	(주) 한신콘설탄트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392-1	યાજ—	ļ	-	전기기기	
		E-NET 6 E 6 E 160 90	이영수	전문기술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922 - 8830
- 55	새한설계콘설탄트	동대문구 용두2동 103-28	91-8-1	용역업	7.7.5.1	C (Z ·) E ·	922 - 8831
56	삼영설비(주)	중구 필동1가 35-1	이덕노	"	"	"	304 - 7723
- 73	요ㅎ된 (17) 삼아기술산업(주)	중구 쌍림동 146-1	김광수	"	[전 기]	발송배전	267 - 1128
	회성중공업(주)	영등포구 당산동 5가4	손상모	"	/ /	n	634 - 6411
- 74		강남구 도곡동 543-2	김영정	"	, ,	,,	566 - 8057
-92	육성무애기계전기설비사	경북 영일군 연일읍				전기기기	PO 1011
- 105	효삼콘크롤정비(주)	경독 명일인 인일대 오천동 396 - 27	이국종	"	"	전기응용	72 - 1213
•		文章名 390 - 21		ļ			777 – 2423
- 108	 (주) 삼공사	중구 무교동 95	정해룡	"	"	발송배전	776 - 303
100			71017	<u>.</u>	! 건축설비 :	건축전기설비	783 – 389
- 11 5	(주) 하나기연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김인선	"		[전기 응용	546 - 698
-124	우전건업 (주)	│ 강남구 논현동 238-5	전형수	"	전 기	l :	566 - 502
- 135	(주) 삼림콘설탄트	강남구 역삼동 831-42	선 용		"	발송배전	500 = 50Z
	3.3-1.1(%)	 강남구 신사동 573 - 2	김현득	전문기술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545 - 673
- 150	한양전설(주)	多音士 在小多 3/3-2 	1	용역업			i
		3-15 1 25 300	│ 체스데임	¥	전 기	발송배전	462-632
- 155	▎한국산업써비스(주)	강남구 논현동 199	그리어	"	12 /1	[전기기기 ·	
171	한국전력보수(주)	강남구 삼성동 87	한 훈	"	"	발송배전	545 - 072
3 - 171	1	강남구 삼성동 120-2	서정건	"	"	"	568 - 568
-209		용산구 한남동 683 - 130	이경식	"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792 - 850
3 – 213		마포구 도화동 46-1	김기택	"	전 기	발송배전	710 - 212
3 - 228	1 > -> 0 . (- / >	당대문구 용두동 118 - 118	김충기	"	, "		923 - 113
3 - 230) 한국종합설계(주)	중대군구 중구중 110 - 110		개인기술			
-5	한일전기설비연구소	종로구 수송동 12	이상호	용역업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735 – 825
. 0		- 105 50 05	정순봉	1 2 4 8	, ,	,,	922 - 670
4 - 9	진우전기기술사	동대문구 신설동 76 - 35	1		전 기	전기기기	765 - 024
4 - 12	극동전기설비연구소	종로구 종로3가 16	이종천		1 2 7	(0.4)(4)(1)	100 05
	의 사람들이 구스	강남구 신사동 547-5	이대윤	개인기술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543 - 053
4 – 20	한성기술연구소	88 6 18 031 0		1 2 4 3	_, _,	العرائية المالية	T40 301
4-23	에이스기술단	강남구 삼성동 107-9	을 윤갑구		전 기	발송배전	546 - 334
4 - 28	l	강남구 서초동 539-5	나송물	Į.	건축설비	 건축 전기설비	
4 – 34	동영전설	부산시 동구 초량5동 1159 - 10	성 락	"	"	"	463-31
4 – 35	1 * *	중구 신당동 267 - 70	김상익	"	"	"	253 - 856
	1 1 1	중구 인현동2가 73-1	 신현석	"	"	"	265 - 466
4-38	1 7	동작구 사당동 1051-44	김칠성		전 기	전기웅용	582 - 229
4 43		중구 장충동 1가 35-9	강태근		☐ 건축설비	□ 건축전기설비	269 - 09
4 – 46		부산시 친구 전포동 175-27	박인히	i	전 기	발송배전	802 - 54
4 – 49		·	나경님	1	건축설비	1	554 - 39
4 - 51	l .	강남구 역삼동 705-24	김창성	l	"	"	552 - 88
4 - 59		강남구 서초동 6-4	1		"	,,	253 - 26
4 - 61	유일엔지니어링	동대문구 신설동 114-6	이명생	I	" 전 기		552 - 77
4 - 68	원전기설비연구소	강남구 역삼동 735 - 7	박재왼				Ì
		강남구 역삼동 735-7	허경복	. 기엔기술 - 기엔기술	. 47 /	발송배전	555 - 67
4 - 69	· 우영엔지니어링		ì	1 2 4 2			000 00
4 - 72	화신엔지니어링	영등포구 영등포2동 94-267	장상호	<u> </u>			633 - 26
4 - 75 4 - 75		강남구 서초동 31-1	오성수	<u> </u>	건축설비	1	5
		종로구 창신동 390-29	이상용	} <i>"</i>	전 기	1	743 – 83
4 – 76		서대문구 홍제동 299-5	임대박		건축설비	<mark> 건축전기설비</mark>] 736 - 89
4 - 79	/ 네성인시원세이 <u>ㅜ</u> ~	1 1 2 1 3 1 0 2 2 2					

비고 : 등록번호 전단의 수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산업설비용역업 2. 종합건설기술용역업 3. 전문기술용역업 4. 개인기술용역업

1986년도 외원 건축설계작품 전시회

